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1994. 12.

이 우 영 (정책연구실 책임연구원)

民族統一研究院

- 이 報告書는 民族統一研究院의 研究計劃에 依據한 自體 研究 結果임.
- 收錄된 內容은 統一問題研究 및 政策開發의 參考資料로 提供되는 것으로 刊行處의 意見을 반드시 反映하는 것은 아님.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要 約

본 연구에서는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천과정을 중심으로 문화정책의 이념, 문화정책의 담당기구, 문화정책의 내용 등을 비교 검토하였다. 사회체제에 따른 국가의 문화개입 방식의 차이를 사례연구를 통하여 규명하였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문화정책의 특성을 고찰하였다.

문화정책은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국민들의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국가 정책중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기본적으로 문화정책은 해당사회의 문화체제와 관련된 사안이라고 할 수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체제에 상관없이 국가가 문화정책을 통하여 지배이념의 확산을 꾀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은 정치경제적 환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일반적으로 문화정책을 다른 국가 정책들에 비해서 부차적으로 취급하는 경향이 있다. 이들 국가에서는 국민들의 문화향수권(文化享受權) 확대가 문화정책의 기본목표가 되기 때문에 문화시설의 확충과 문화예술활동의 지원에 주안점을 두는 문화정책을 추구한다. 반면에 사회주의 국가에서는 문화를 지배이념 홍보의 주요한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당이나 국

가가 문화활동에 직접 간섭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 남한은 국가 건설과 전쟁복구 등에 관심을 기울인 까닭에 문화부문에 대한 관심은 미미하였다. 이념적으로 민족문화와 자유민주주의 문화를 표명하였으나 이를 구체화할 정책이 추진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분단과 전쟁으로 반공주의가 팽배하였고 이러한 이념적 성향은 문화정책에도 반영되어 반체제적인 문화활동에 대한 제재는 엄격하였다. 북한에서도 국가 건설과 전쟁 피해 복구가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으나 문화에 대한 관심은 남한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높았다. 따라서 해방직후부터 문화와 관련된 제반 법령이나 제도의 정비가 적극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기간에 북한은 이념적으로 사회주의문화 건설을 주장하면서도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건국초기에는 일제시대의 사회주의 문화이론인 카프계열의 인사들이 문화정책 수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남로당의 숙청, 1956년의 8월 종파사건 등을 거치면서 이들의 영향력은 점차 감소하였다.

1960년대 남한은 경제개발계획이 성공하면서 점차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968년에는 문화를 담당하는 문화공보부가 발족하였고 문화에 관련된 법령도 정비되었다. 자유민주주의와 민족문화를 주장하였으나 여전히 반공주의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이념적 토대였다. 북한에서는 1960년대에 김일성 유일체제를 완성하면서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문화

정책이 추구되었다. 김일성의 항일빨치산 활동을 소재로 하는 ‘항일혁명문학’이 새로운 문예이론으로 자리잡았고, 천리마운동에 주민들을 동원하기 위해서 활용될 수 있는 작품의 창작을 독려하였다.

1970년대에 남한에서는 유신체제가 성립됨에 따라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이 더욱 강화되었다.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고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추진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설립되는 등 문화정책이 보다 구체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기간에는 유신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문화활동이 강조되는 등 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1970년대 북한에서는 1972년에 개정된 헌법에 문화관련 조항이 대폭 증가하고, 3대혁명의 추진과정에서도 문화가 포함되는 등 문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고조되었다. ‘주체문예이론’이 정립되었고 김정일이 주창한 ‘종자론’이 문화활동의 실천적 지침이 되었다. 또한 정치적 선전을 위해서 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노력 동원에서 문화가 활용되어 문화정책이 갖는 정치경제적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남한에서는 문화정책의 부분적인 수정이 이루어졌다. 민족문화의 창달이 여전히 중요한 정책목표였으나 지방문화의 확산 문화시설의 확충과 같은 문화복지정책이 부분적으로 시도되었다. 또한 올림픽을 계기로 사회주의문화에 대한 제한적인 개방이 이루어졌다. 이와 아울러 대중문화에

대한 지원도 활성화되었다. 1980년대에 들어서서 북한에서는 문화활동에 대한 통제가 제한적이거나 이완되었다. '숨은 영웅 따라 배우기'라는 구호하에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의 창작이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그러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1980년대 후반부터는 다시 이념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으로 선회하게 되었다.

남한의 문화정책은 자본주의국가 일반의 문화정책과 두드러진 차이를 보이고 있지 않다. 그러나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문화정책이 정치적 상황에 좌우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은 남한 문화정책이 갖는 특수성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은 실질적인 집권세력의 교체를 경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여타 사회주의국가가 겪었던 문화정책의 질적 변화를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찾아 보기는 어렵다.

남북한의 문화정책은 근본적으로 다른 성격을 갖고 있다. 남한은 문화활동의 자율성과 다원성을 보장하는 반면에 북한은 이념을 강조하고 문화에 대한 통제를 정당시한다. 남한은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을 제한하는 반면 북한은 문화에 대한 당과 국가의 적극적인 개입을 추구한다. 남한은 문화정책이 부차적인 관심사이지만 북한의 문화정책은 정치경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이념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남한과 북한은 경쟁적으로 민족문화를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는데, 이는 분단체제하에서의 정통성 확보경쟁과 무관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문화정책을 지향한 북한은 말할 것도 없고 남한도 문화를 체제의 유지에 활용하였다는 점도 남북한 문화정책이 공유하는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남북한은 통일을 지향하기보다는 문화적 차원의 체제경쟁을 지원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온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북한 문화정책은 문화적 동질화를 증대하기보다는 이질화를 확대하는데 기여하였다고 볼 수 있다.

사회주의권이 붕괴한 1980년대 후반부터 북한은 체제를 유지하기 위하여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경계하는 폐쇄적인 문화정책을 강화하고 있다. 반면에 남한은 1990년대 들어서서 국력의 상대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개방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동시에 통일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하고 있다. 앞으로 북한은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폐쇄적이고 이념지향적인 문화정책의 기초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통일한국을 준비한다는 관점에서 북한의 문화정책의 방향에 상관없이 남한은 북한의 문화를 수용할 수 있는 통일지향적인 문화정책을 모색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목 차

I. 서론	1
1. 문제제기	1
2. 연구방법	4
II. 사회체제와 문화정책	9
1. 자본주의국가의 문화정책	9
가. 자본주의와 문화	9
나. 자본주의국가 문화정책 사례	14
2. 사회주의국가의 문화정책	19
가. 사회주의와 문화	19
나. 사회주의국가 문화정책 사례	23
III.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천	29
1. 1950년대	29
가. 남한: 자본주의문화 도입기	29
나. 북한: 사회주의문화 건설기	33
2. 1960년대	41
가. 남한: 문화정책의 구체화	41
나. 북한: 천리마운동과 항일혁명문학의 대두	49
3. 1970년대	58

가. 남한: 유신과 민족문화의 강조	58
나. 북한: 3대혁명과 주체문화의 완성	66
4. 1980년대	78
가. 남한: 문화복지정책의 추구	78
나. 북한: 통제의 이완과 재강화	88
IV. 남북한 문화정책의 특성	97
1.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요인	97
가. 남한	97
나. 북한	107
2. 남북한 문화정책의 비교	114
V. 결 론	121
〈참고 문헌〉	126

I. 서 론

1. 문제제기

분단 이후 남북한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이념을 토대로 국가를 건설하였고 이에 부합하는 사회체제를 발전시켜왔다. 그리고 남북한이 추구하는 서로 다른 국가형태와 이념 그리고 사회체제는 남북한간에 이질적인 문화체계를 초래하였다고 볼 수 있다. 문화가 사람들이 살아가는 총체적 방법을 의미한다면,¹⁾ 비록 하나의 민족으로 오랜 기간동안 동일한 문화를 공유하였던 남북한 주민들이라고 할지라도 이질적인 국가형태와 사회체제에서 생활하는 한 동일한 문화를 유지할 수 없었음은 자명한 일이다.²⁾

특정한 사회의 문화는 일반적으로 사회체제의 성격에 따라 자연적으로 규정된다고 할 수 있으나, 경우에 따라서는 지배집단의 의도에 따라서 문화의 골격이 규정될 수도 있다. 왜냐

1) Milton Singer, "The Concept of Culture," in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p. 527; 문화의 개념의 다양성에 대해서는 양종희, "사회이론에 있어서 문화의 위치," 「한국사회학」 28집 (1994 겨울), pp. 4~7 참조.

2) 파슨스(T. Parsons)는 두뇌공학적(cybernetic) 모델에서 문화체계가 사회체계의 패턴유지 기능을 수행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T. Parsons, *Societies*, 이종수 역, 「사회의 유형」 (서울: 홍성사, 1978), pp. 57~58; 따라서 남한에는 자본주의적 문화가 북한에서는 사회주의적 문화가 독자적으로 발전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하면 지배집단이 그들이 추구하는 이념을 문화를 통하여 확산함으로써 특정한 사회체제를 유지하고 발전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³⁾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의 문화는 지배집단의 의도적인 문화정책에 영향을 받은 바가 크다고 볼 수가 있다.

남북한이 추구한 국가이념과 사회체제가 국민적 동의를 바탕으로 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으나,⁴⁾ 해방시점의 국민적 의식수준이나 제3세계국가들의 일반적인 특성들을 고려할 때, 국가건설기에 엘리트집단이 주도적으로 국가이념 및 사회체제를 선택하였으리라고 생각할 수 있다.⁵⁾ 따라서 국가건설기부터 일반 민중들을 대상으로 새로운 체제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정치교육을 수행하고, 이들을 사회적으로 통합하는 작업은 시급한 국가적 과제였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남북한의 지배집단은 각각의 사회체제에 적합한 문화체계를 규정하고 이를 의도적으로 확산하였다고 할 수 있다.

남북한의 특수성을 고려할 경우 특히 문화정책 분석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문화정책은 “한 사회에 있어서 주어진 시간 내에 그 사회가 이용할 수 있는 모든 물적, 인적 자원의

3)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지배문화정책 분석을 위한 제언,” 「문화과학」 2호 (1992 겨울), pp. 291~292.

4) 갈등과 체제경쟁을 하고 있는 남한이나 북한 모두 자신들의 국가형태와 사회체제가 해방 당시 일반 국민들이 추구하였던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5) 엘리트 집단이 기존 국가의 체제 중의 하나를 주체적으로 선택하였을 수도 있으며, 강대국으로 표현되는 외부세력에 의하여 체제가 강제적으로 이식되었을 수가 있다.

최적이용을 통해 어떤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는 의식적이고 의도적인 사용 및 작위나 부작위의 총체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⁶⁾ 따라서 남북한의 문화가 지배 집단의 의도된 사회발전 전략의 연속선상에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남북한 문화정책의 분석은 남북한 문화체계의 특성을 규명하는데 핵심적인 고리가 될 수 있다.

통일 이후에 예상되는 제반 사회갈등을 고려한다면 사회통합의 기제로서 문화의 중요성이 강조될 가능성이 크다. 이 경우 통일 한국의 문화정책은 새로운 사회체제에 조응하여야 하겠지만 동시에 기존 남북한의 문화정책과의 연속성도 어느 정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남북한 문화정책 분석은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본 연구는 남북한 문화정책의 분석을 통하여 남북한이 각기 지향하는 이념과 생활양식 및 사회통합기제를 파악하고, 이를 토대로 남북한 문화체계의 특성을 규명하는 데 일차적인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주체로서 국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남북한 문화체계를 비교함으로써 문화정책이 체제 발전과 어떤 상관관계에 있는가를 규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의는 남북한 문화의 차이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뿐 아니라 궁극적으로 통일과정과 통일이후에

6) UNESCO, "Cultural Policy: A Preliminary Study," UNESCO PAPER 1968, p. 8;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논문집」 1집 (1993), p. 63에서 재인용.

바람직한 문화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방법

북한문화나 남한문화에 대한 개별적인 연구들에 비해서 남북한 문화를 비교적인 시각에서 다룬 연구들은 많지 않다.⁷⁾ 남북한 문화를 비교하는 기존의 연구들은 다음의 몇 가지 문제점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문화 혹은 문화체계를 다룬다고 하거나 제목에 문화를 포함하고 있으면서도 문화를 독립적으로 분석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문화체계를 사회체제에 종속된 하위체제로 이해하거나 때로는 사회와 문화를 구별하지 않기도 한다. 비록 문화가 사회체제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며, 개념 정의에 따라 문화

7) 남북한 문화를 비교한 연구들로서는 최재율, 「남북한 사회문화체계 비교 척도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72); 조영빈,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서울: 국토통일원, 1973); 통일원 조사연구실,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서울: 통일원, 1990);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1994)에서 국력의 한 부분으로 남북한 문화를 비교한 바가 있다. 최재율 및 조영빈의 연구는 파슨스의 행위체계이론을 적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최재율의 경우 퍼스낼리티의 분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조영빈은 가치정향이라는 차원을 중심으로 남북한의 문화체계를 분석하고 있다.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에는 다음의 4개 논문이 게재되어 있다. 서성우, “남북한 사회체제 역량평가”; 이은숙, “남북한 사회체제 강약점 분석”; 조은, “남북한 주민 의식구조 비교”; 도종수·김미숙, “남북한 청소년의 사회화 과정 비교”. 이 중에서 문화체계만을 분석하는 글은 없으며, 이은숙의 논문과 조은의 논문에서 부분적으로 문화체계를 다루고 있다.

와 사회를 혼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분석태도는 문화가 갖고 있는 고유한 기능이나 역할을 분석하기 어렵게 만들 수가 있다.

둘째, 기존의 북한 연구에서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이념적 편향성이 드러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점이다. 이 경우 북한은 공산주의 국가이며 전체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북한문화는 획일적이라는 설명만이 가능해진다. 이것은 일종의 논리적 동어반복으로 이러한 연구태도에 따른다면 굳이 북한문화를 독립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없다.

셋째, 남북한 사회가 나름대로의 변화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에 대한 설명은 지극히 정태적인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따라서 문화가 본질적으로 갖는 역동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며, 동시에 사회체제와 문화체제와의 연관관계를 설명하는데 한계를 노정할 수밖에 없다.

비교적인 관점에서 남북한 문화정책을 다룬 연구뿐만 아니라 남북한 문화정책을 개별적으로 분석한 연구도 풍부하지 못하다.⁸⁾ 북한의 문화정책을 분석한 연구들은 절대적인 양이

8) 북한의 문화정책을 분석한 것으로 「박상천·김경용·류보선의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문화연구」 1집(1993)이 있으며, 남한의 문화정책을 다룬 연구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2」(서울: 공동체, 1986); 강현두, “매스미디어의 문화정책,” 「문화예술논총」 1집(1988); 박종국, “문화정책의 기초와 과제,” 「문화예술논총」 1집(1988);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1집, 1988);

부족하고, 몇몇의 연구들도 문화정책의 이념적 토대에만 관심을 갖고 있다는 한계가 있다. 남한의 문화정책을 분석한 글들도 많지는 않지만 문화정책의 방향이나 이념 그리고 사회구조적 연관성 등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연구성과의 수준이 높다고 할 수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질과 양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다루고자 하는 주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나 남북한 문화의 특성을 규명하거나 개별적인 문화정책의 일반적 성향을 밝히는 과정에서 참고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남북한 문화정책의 특성을 규명한다는 연구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몇 가지 차원에서 분석을 진행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정책을 지배이념의 확산을 통한 사회통합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자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문화정책이 수립되는 기제와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방식 등이 분석의 초점이 될 것이다. 이념적 국가기구(Ideological State Apparatus)의 차원에서 문화를 분석하는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지배문화정책 분석을 위한 제언,” 「문화과학」 2호 (1992 겨울);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연구소 연구논문집」 1집 (1993);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행정논총」 27권 1호 (1989);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개념들과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25권 4호 (1991); 정홍익, “새로운 시대 문화정책의 이념과 목표,” 「문화예술논총」 5집 (1993) 등이 있다.

알튀세르와⁹⁾ 지배문화를 사회적 차원의 합병(incorporation) 과정으로 간주하는 윌리엄즈의 견해를¹⁰⁾ 참조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문화일반 보다는 문화정책이 분석의 중심적인 대상이 될 것이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바람직한 사회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고 개념 정의한다. 따라서 정책목표로서의 문화정책의 이념과 이를 달성하는 정부기구로서의 문화담당기구 그리고 정책의 결과로서 문화현상을 분석할 것이다.

셋째, 시계열적 분석을 시도하고자 한다. 특히 사회체제의 변화에 따른 문화정책의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하되, 특히 사회체제 중에서 권력구조의 변화를 핵심적인 환경변화로 간주할 것이다.

넷째, 비교방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궁극적으로 남북한 문화정책을 비교하는 것에 본 연구의 목적이 있으나,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국가에서의 문화정책을 비교적인 관점에서 검토할 것이다. 구체적인 분석과정에서는 문헌에 대한 내용분석 방법을 활용하고자 한

9) Louis Althusser,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en Brewster, tran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10) Raymond Williams,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8).

11)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89), p. 37.

다. 남북한 최고지도자의 연설문, 집권정당의 발표한 각종문건, 문화와 관련된 각종 법규를 분석으로 대상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문화정책을 수행하는 기구들을 분석하기 위하여 권력기구내 문화정책 담당부서의 위계관계, 문화관련기구의 양 및 중요도 그리고 시기별 변화를 규명할 것이다.

-
- 12) 남한은 역대대통령의 연설문집, 북한은 김일성·김정일 저작집이 이에 포함된다.
 - 13) 남한은 정부의 시정계획 및 집권당의 공약, 북한은 당대회 및 최고회의 발표문 등이다.

II. 사회체제와 문화정책

1. 자본주의국가의 문화정책

가. 자본주의와 문화

자본주의국가의 문화정책의 성격은 자본주의가 표방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의¹⁴⁾ 이념에 의해서 규정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유민주주의는 개인(individual)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개인은 기본적으로 평등하며, 개인은 양도할 수 없는 자유에 대한 권리를 향유하고 있다는 인식을 토대로 한다. 개인은 스스로 선택한 목표와 개인적 이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추구할 수 있는 한도까지 자유롭게 평등하다.¹⁵⁾ 이와 함께 자유민주주의는 개인의 존엄성을 중시한다는 점에서 일반적으로 개인 및 집단의 자율성을 기반으로 하는 다원주의와 결합하는 경향이 있다.¹⁶⁾ 자유민주주의이념에 따르면 시민들로 하

14) 민주주의가 반드시 자본주의와 결합되는 것은 아니다. 이론적으로는 민주적 사회주의(democratic socialism)도 가능하다. Leon P. Baradat,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9), p. 85; 그러나 민주주의의 이념적 기초와 자본주의의 이념적 기초가 상통하고 있으며, 현존하고 있는 대부분의 자본주의 국가들은 민주주의체제를 지향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15) David Held, *Models of Democracy*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pp. 2~3.

16) Robert A. Dahl,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pp. 4~5.

여금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해주는 필수 조건들을 제공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적인 역할이 된다.¹⁷⁾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화에 대한 공식적인 태도는 개인의 자율성 보장이라는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적인 이념들에서 벗어나지 않는다.¹⁸⁾ 즉, 개인의 자유와 마찬가지로 문화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체제이념과 부합하기 때문에 국가는 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만 담당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이러한 이유에서 자본주의 국가가 문화의 창작과 생산 그리고 변형에 개입하는 것은 바람직한 문화정책이 될 수가 없으며,¹⁹⁾ 문화정책은 일반시민들이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하는데 주안점을 두게 된다.²⁰⁾

자본주의 국가가 채택한 자율성과 다원성이라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이 국가가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못하

17) Held, *Models of Democracy*, p. 268.

18) 자유민주주의체제는 문화창작의 방향과 내용과도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 서구에서 시민사회가 성립된 이후 인간의 자유를 주제로 한 문학이 중심적인 위치를 점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8), pp. 9~34 참조.

19) 이러한 입장이 극단적으로 표출된 것이 미국의 경우이다. 1967년 유네스코가 모나코에서 개최한 문화정책에 관한 원탁회의에서 미국 대표는 “미국 정부는 사적으로나 공적으로 아무런 문화적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것은 문화정책이 없다는 말이며 실제로 미정부기관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는 없다. “미국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p.243.

20) C. W. E. Bigsby,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 「문화정책」, pp. 44~61.

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으나, 이밖에도 다음의 몇 가지 이유에서 자본주의 국가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첫째, 문화는 정치이념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까닭에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은 정치적 반대세력과의 갈등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문화정책이나 지원은 지배 권력의 정치적 선전으로 인식될 우려가 있다.

둘째, 문화종사자 혹은 문화산업이 자본주의체제에서 경쟁하고 생존하기 위해서는 언론의 자유를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들은 근본적으로 국가의 간섭을 거부하는 경향이 있다.

셋째, 문화는 일반적으로 국가가 보조하여야 할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지 않는 부문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정된 재원과 인원으로 정책을 입안하고 집행하여야 하는 국가로서는 문화부분은 가시적인 효과가 두드러지지 않기 때문에 정치경제적으로 투자가치가 적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넷째, 국가가 문화를 보조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보조할 문화의 선택이 어렵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문화에 대한 평가는 질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데 보조대상의 선택과 보조의 정도 등을 결정할 수 있는 객관적 척도를 만들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경우에도 보조에서 탈락한 집단으

로부터 비난이 야기될 가능성이 크다.²¹⁾

그러나 자본주의체제에서 표면적으로 문화에 대한 국가 차원의 개입을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적극적으로 문화를 체제유지에 활용하고 있다는 주장도 적지 않다.²²⁾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자본주의가 성립되어 자율성과 다원성에 바탕을 둔 시민문화가 발전하는 듯이 보이지만, 이러한 시민문화는 근본적으로 부르조아지의 계급적 이해를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는 교육기관, 종교기관 등을 통하여 문화를 통제한다는 것이다.²³⁾ 따라서 일반 문화조직은 학교교육 이후 정치사회화 역할을 수행하는 사회제도라고 볼 수 있다.²⁴⁾

자본주의 국가는 문화국가인 동시에 윤리국가로서 지배 계급의 헤게모니(hegemony) 장악을 보장하는 정책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⁵⁾ 그러므로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화정책은 외면적으로 부차적인 것으로 취급되는 것

21) 김문환, 「문화로 본 현대일본」 (서울: 나남, 1994), p. 18.

22) 그람씨(Gramsci), 알튀세르(Althusser), 하버마스(Harbermas) 등이 대표적인 학자들이다. 이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Nicholas Abercrombie, Stephen Hill and Bryan S. Turner, "Theories of the Dominant Ideology,"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 George Allen & Unwin, 1980), pp. 12~29 참조.

23)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pp. 141~148.

24) Antonio Gramsci, "On Education," in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 Smith, trans. & eds.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New York: International Pub., 1971), p. 27.

25) Antonio Gramsci, "State and Civil Society,"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p. 259.

같으나, 실질적으로는 체제유지과정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국가는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가가 체제유지를 위하여 문화를 활용하는 경우에 문화정책의 목표는 지배이념의 전파에 두어지게 된다. 학교, 종교조직, 가족, 법제도, 정당, 노조, 언론, 문학예술, 스포츠 등 심지어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 같은 수단들도 지배이념을 확산하기 위하여 동원할 수 있다.²⁶⁾ 이와는 달리 대중문화의 유통에 관여하거나 문화의 상품화를 촉진함으로써 비판적이고 대안적 문화의 창달을 방해할 수도 있다.

국가가 문화에 적극적으로 개입한다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더라도 자본주의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양식은 간접적이다. 검열제도와 같이 직접적으로 문화를 통제하는 경우도 있으나,²⁷⁾ 대부분의 자본주의국가들은 교육내용의 조정, 문화단체 및 예술가의 지원, 특정 문화의 보존과 같은 문화정책을 선택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자본주의 국가와 문화와의 관계를 보는 관점에 따라 문화정책의 실

26) Althusser, "Ideology and Ideological State Apparatus," pp. 143~144.

27) 서구사회에서 검열이 일반화되어있는 분야는 포르노(pornography)와 관련된 것들이다. Jim McGuigan,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1992) pp. 185~186. 민주주의 체제하의 일반적 검열문제에 대해서는 Stephen Holmes, "Liberal Constraints on Private Power," in Judith Lichtenberg, ed. *Democracy and the Mass Me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pp. 21~65 참조.

질적인 전개과정을 다르게 인식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문화정책이 내포하는 정치적 의미, 체제유지와 의 관계에 대한 판단이 관점에 따라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나. 자본주의국가 문화정책 사례

자본주의 국가들의 문화정책은 나라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가 있다. 미국은 공식적으로 문화정책이 없음을 천명하는 반면, 프랑스는 중앙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독일은 문화정책의 입안과 실천에서 지방정부의 역할이 중시된다.

미국은 현재의 헌법을 수정하지 않는 한 연방정부나 의회 그리고 대통령이 문화에 대하여 간섭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문화정책과 행정을 담당하는 연방정부의 행정기관은 없으며, 교육과 노동문제를 다루는 행정기관들이 간접적으로 또는 지엽적으로 문화에 관여한다. 국무성 산하의 공보처는 문화와 예술의 해외소개를 담당하고 있으나 정책을 담당하는 기관은 아니다.

연방정부는 문화정책을 가지고 있지 않은 반면 예술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국립예술 또는 인문재단이 있어서 보조금 지급과 연구 등의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지원 대상에 대한 예술적 간섭은 허용되지 않는다.

1965년에 통과된 국립예술기금 및 국립인문진흥 기금 설

법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임명한 위원장의 책임하에 기금위원회는 여러가지 문화사업을 시행한다. 미국의 예술적 자원을 널리 보급해서 예술의 감상과 향유의 기회를 증대하고, 개인적인 공연예술 및 창작예술을 유지·발전시키며, 현존 예술기관과 단체들의 유지·발전을 도모하고, 예술의 모든 분야에 대한 범 국가적인 새로운 기회를 개척하고, 미국의 예술가들과 교육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국제적인 성격의 모든 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주 임무이다. 미국에서는 공식적으로 문화에 대한 연방정부의 정책이란 표현 대신에 ‘입장(position)’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예술기금의 활용을 통하여 실질적으로는 문화분야에 광범위한 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⁸⁾

프랑스의 경우 문화예술영역에 대한 간섭이 가속화된 것은 제2차세계대전 이후라고 할 수 있다. 전제주의 왕조인 루이 14세 시기에 현 국립극장의 전신인 몰리에르(Moliere)의 왕립극단(1665)이 생겨나는 등 과거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지원이 존재하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59년 문화부가 창설되고 앙드레 말로가 책임자로 임명됨으로써, 비로소 문화정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프랑스의 문화정책은 역사보존과 박물관 지원, 음악과 연극의 지원을 중심으로 하고 있으며, 이외에 문학, 미술과 공예 그리고 영화에

28) “미국의 문예정책,” pp. 243~245.

대한 지원이 포함되고 있다.

문화정책의 내용은 두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역사유물이나 박물관 및 공연장에 대한 시설지원이고 둘째로는 극단 및 개인 창작자에 대한 보조이다. 그리고 문화정책은 중앙과 지방정부가 분담해서 집행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81년까지는 문화부가 사용하는 예산비율은 프랑스 전체예산의 1%이하에 불과하였다. 사회당정권이 수립된 1981년 이후에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어 문화에 대한 예산이 배가되었다. 사회당 정부는 특히 문화의 균질적인 향유를 보장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었으며, 이와 아울러서 다른 문화와 경쟁할 수 있는 문화의 개발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⁹⁾

독일에서는 17·8세기 절대국가시대부터 문화를 국가가 관리하고 지원하는 경향이 있었다. 국립박물관과 역사·언어학 기관 등을 통하여 중앙정부가 직접 문화·예술을 관할하는 경우도 있었으나, 국가사회주의 기간을 제외하고는 주로 지방정부가 문화·예술정책을 담당하는 연방구조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 대한 연방주의적 태도는 2차세계대전 이후

29) Cummings & Katz, "국가와 예술진흥," 「문화정책」, pp. 222~251.

더욱 강화되었다.³⁰⁾

독일의 헌법에서는 예술과 학문의 자유를 기본권으로 보장하고 있으나 문화 지원에 관련된 조항은 없다. 그러나 연방헌법재판소는 헌법의 해석을 통하여 국가의 문화지원 의무를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도 국가는 문화의 보전과 발전을 지원한다. 독일에서 문화정책의 일차적인 책임은 연방내무장관이 지고 있으나, 1982년에 독일문화위원회가 발족되어 전반적인 문화정책을 관할하고 있다. 연방정부에서는 문화예술인에 대한 일반적인 지원, 문화와 연관된 법안의 입법, 역사적 유물의 관리 등의 일을 담당하고 있다. 도서관, 공공 공연장 그리고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에 대해서는 주로 주나 시정부에서 관리한다. 지방정부의 문화정책은 공공교육부나 문화부가 관할하며, 문화시설에서의 공연이나 전시회 등을 직접 주관하기도하고 보조만 하는 경우도 있다. 독일에서도 1973년 사회민주당의 정부가 설립된 이후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1980년대 이후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³¹⁾

자본주의체제의 문화정책은 개별국가들의 역사적이고 문화적 상황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문화활동에 국가가 직접 개입하기보다는 문화활동을 지원하거나 문화를 향유할 기

30) 1981년의 경우 문화와 예술 지원에 시당국은 2.4%를, 주는 1.1%를, 연방정부는 0.1%를 지출하고 있다. Wolfgang Ismayr, "연방제의 분리정책: 서독," 「문화정책」, p. 253.

31) 위의 책, pp. 252~269.

반 시설을 제공하는데 정책의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는 자본주의체제에서도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 정도는 점차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 정부 내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신설되고, 문화 및 예술 진흥에 보다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다.³²⁾ 이와 같이 문화에 대한 국가의 관심이 고조되는 것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첫째, 정체(Polity)와 기존 문화 사이의 갈등관계가 심화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벨(Daniel Bell)에 따르면 정체는 일상 생활의 세속적인 문제를 파악하고 정의에 대한 규범을 확립하고 있다. 동시에 정체는 요구와 권리를 강제하여야 하며, 교환의 규칙을 제시하고,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안전에 대비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지나치게 개인주의화된 현대의 문화상황이 자본주의체제에 위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정체는 문화에 적극 개입함으로써, 체제안정에 도움이 되는 문화적 재구성(Cultural Reconstruction)을 시도하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기 때문이라고 할 수

32) 유럽의 많은 국가들은 1930년대에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를 신설하였고, 영국에는 1940년대에, 아일랜드와 캐나다에는 1950년대에, 미국에는 1960년대에 비슷한 기구가 생겨났다. 그리고 대부분의 국가들은 1950년대 이후 문화개입을 가속화하기 시작하였다. Cummings & Katz, “국가와 예술진흥,” p. 199.

33) Daniel Bel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1976), p. 175.

있다. 2차대전 이후 새로운 국가들이 생겨나고, 민족주의 운동이 활발해지는 가운데 민족문화를 보전하고 발전시키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더욱이 이웃에 있는 크고 강력한 국가의 문화적 제국주의(Cultural Imperialism)가 두려운 나라들은 민족문화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이 있다.³⁴⁾

셋째, 문화를 경제적인 차원에서 생각하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경제와의 관계는 두 가지 차원으로 나누어질 수 있다. 그 하나는 문화제국주의론에서 이야기하듯이 문화의 확산을 통하여 팔기를 원하는 상품의 소비 확대를 촉진할 수 있다는 것이며,³⁵⁾ 나머지 하나는 문화자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는 상품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는 점이다.³⁶⁾ 따라서 국가간에 경제적 경쟁이 치열해지는 과정에서 문화에 대한 관심은 문화산업의 차원에서 점차 고조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2. 사회주의국가의 문화정책

가. 사회주의와 문화

자본주의체제에서와는 달리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는 문화 활동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이러한 특성은 문화나 예

34) Cummings & Katz, “국가와 예술진흥,” p. 200.

35) James Petras, “Cultural Imperialism in the Late 20th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3 no.2 (1993), p. 139.

36) Cummings & Katz, “국가와 예술진흥,” p. 200.

술을 정치와 분리시키지 않는 ‘사회주의 예술론’에 기인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공식적인 예술론은 사회주의리얼리즘이다.³⁷⁾ 사회주의리얼리즘의 특성은 디테일의 충실함 이외도 전형적인 상황에서의 전형적인 성격들의 충실한 재현을 의미한다라는 엥겔스(Engels)의 설명에³⁸⁾ 잘 집약되어 있다. 이것은 문학예술 작품은 객관적인 현실에 대한 충실한 묘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회주의체제가 지향하는 특정한 경향성(tendency)을 추구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서 경향성이라는 것은 소망스러운 상태 혹은 이룩되어야 할 목표라고 볼 수 있다.³⁹⁾ 따라서 본질적으로 사회주의 예술은 정치적 이념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을 수 밖에 없게 된다.

사회주의체제에서 국가가 문화활동에 개입하는 또 다른 이유는 사회주의 지도자들이 예술작품들의 창작과 감상을 계급

37) 내용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은 1917년 러시아의 10월혁명 과정에서 레닌에 의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공식적인 예술양식으로 승인 받았다.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pp. 10~11. 그러나 초기에는 프롤레타리아트 리얼리즘, 경향적 리얼리즘, 공산주의적 리얼리즘 등 다양한 이름으로 불렸다. 명칭으로서 사회주의 리얼리즘이 정착된 것은 1932년 스탈린이 공식적으로 ‘사회주의 리얼리즘’으로 명명한 이후라고 할 수 있다. C. V. James, 「사회주의 리얼리즘론: 기원과 이론」 (서울: 녹진, 1990), pp. 130~131.

38) F. Engels, “Letter to Margaret Harkness,” in Lee Baxandall & Stefan Morawski, ed. and trans., *Marx & Engels: On Literature & Art* (St. Louis: Telos Press, 1973), p. 114.

39) 경향성에 대해서는 Manfred Kliem ed.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 1」, 조만영·정재경 역 (서울: 돌베개, 1990), pp. 155~156 참조.

투쟁의 수단으로 인식하였기 때문이다.⁴⁰⁾ 레닌을 비롯한 초기 사회주의 지도자들은 프롤레타리아트 사회를 완성하기 위해서는 봉건적인 문화와 부르조아 문화를 극복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⁴¹⁾ 따라서 프롤레타리아트의 이념에 투철한 문화·예술을 의도적으로 생산할 필요가 있게 된다.⁴²⁾ 이러한 맥락에서 개별 작가들이 요구하는 사상의 자유, 비평의 자유, 문학창작의 자유는 자산계급 지식분자의 개인주의적 표현으로 비판받고 있으며,⁴³⁾ 사회주의 예술종사자들은 공산당이 실천으로 증명한 「진리」를 구현하는 예술정책을 무조건 따라가야 한다.⁴⁴⁾

40) Avner Zis, 「마르크스주의 미학강좌」, 연희원·김영자 역 (서울: 녹두, 1989), p. 277. 모택동은 “문예로 하여금 혁명이라는 전체 기계의 한 부분 조직으로서의 역할을 잘하게 함으로써, 인민을 단결시키고 교육하여 적에 타격을 가하고 소멸시키는 유력한 무기가 되어 인민들이 마음과 뜻을 합하여 적과 투쟁하도록 도울 수 있게 하여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毛澤東, 李騰淵 역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당팔고에 반대한다」 (서울: 두레, 1989), p. 16.

41) 소련공산당 중앙은 1925년 6월 18일 통과된 「예술·문학정책에 관한 결의안」에서 “문화혁명에 공산주의 사회로 계속 매진하는 선결조건이다”라고 하고 있다. 陣繼法, 叢成義 역, 「사회주의 예술론」 (서울: 일월서각, 1979), p. 174.

42) 이러한 인식이 잘 표출되어 있는 것이 다음에 있는 레닌의 말이다. “문학은 프롤레타리아트의 공동 대의의 일부분이 되어야 하며, 전 노동계급의 정치 의식화된 전 전위에 의해 가동되는 단일한 거대한 사회민주주의적 기계장치 의 톱니바퀴와 나사가 되어야 한다. 문학은 조직적·계획적·통일적인 사회민주당 작업의 구성요소가 되어야 한다” Vladimir Il'ich Lenin, “당조직과 당문학,” 이길주 역, 「레닌의 문학예술론」 (서울: 논장, 1988), p. 52.

43) 陣繼法, 「사회주의 예술론」, p. 169.

44) 위의 책, p. 151.

사회주의체제에서는 문화와 예술의 정치성을 강조하고, 문예작품을 혁명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사회주의 국가는 문화에 대한 관심이 대단히 높을 수 밖에 없다. 구체적으로 사회주의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양식은 다음과 같다.

첫째, 문화를 직접 담당하는 주체는 공산당이다. 당은 문학 예술과 예술가의 주재자가 된다. 문화사업도 당의 감독아래 있으며 당의 명령을 따라야한다. 신문은 다양한 당조직들의 기관지가 되고, 출판과 배포, 인쇄시설, 서점, 독서실, 그리고 도서관 및 기타 시설들도 당의 통제아래 있다.⁴⁵⁾

둘째, 당이념과 부합되지 않는 문화활동은 배척받는다. 유산계급의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심지어 무산계급 문화라 할지라도 당의 지도를 받지 않고 독자성을 주장하는 경우 비판의 대상이 된다.⁴⁶⁾ 검열제도를 통하여 예술작품들 뿐만 아니라, 신문·잡지 등의 내용도 엄격히 규제한다.

셋째, 사회주의 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작가들을 당이나 국가가 직접 발굴하여 양성한다. 발굴한 작가들은 작가조직에 속하게 함으로써 작품활동을 규제한다. 그리고 당원들을 중심으로 작가들에 대한 감시를 지속하고, 당이념으로부터 이탈하는 작가들은 숙청한다.

넷째, 문화정책을 교육정책과 연관시킨다. 봉건적인 질서에

45) Lenin, “당조직과 문학,” p. 53.

46) 陣繼法, 「사회주의 예술론」, p. 172.

익숙하거나 자본주의 의식에 빠져있는 일반 대중들을 재교육하고 조직화시키는 방법으로 교육과 문화를 묶어서 활용한다. 또한 일반 주민들이 사회주의 문화를 수용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을 받아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 문화를 밀접하게 연결한다.⁴⁷⁾

다섯째, 대상자에 따른 차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한다. 인민들의 교육수준이 불균등할 뿐만 아니라, 간부들은 인민들을 교양해야 할 책임이 있기 때문에 당간부들을 대상으로 높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하고, 일반인들에게는 낮은 수준의 문화를 제공한다.⁴⁸⁾

나. 사회주의국가 문화정책 사례

1917년 10월의 볼셰비키혁명은 구러시아의 정치·경제·사회제도를 일신시켰을 뿐만 아니라 문화의 영역에서도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였다. 혁명이전의 제정 러시아에는 문화정책이란 것이 존재하지 않았고, 검열제도 및 비밀경찰을 통한 철저한 탄압만이 있을 뿐이었다. 볼셰비키혁명 이후 사회주의정권은 문예조직과 문예활동을 통한 사회주의 문화의 건설 및 새로운 이념의 교육과 전파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

47) Lenin, “성인교육에 관한 제1차 전러시아 대회 격려사,” 「레닌의 문학에 술론」, pp. 178~182; 毛澤東,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당팔고에 반대한다」, p. 39.

48) 毛澤東,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당팔고에 반대한다」, p. 43.

다.⁴⁹⁾

1924년 5월 혁명 이후 소련에서는 당의 문예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대토론회를 거쳐 다음해 7월 ‘프롤레타리아트 문화 건설을 위한 문화 창작’ 이라고 하는 당의 공식적인 문예정책을 결정하였고, 이 결의안에 토대를 두고 기존의 출판물을 정리하고 작가조직을 정비하였다. 레닌 시대에는 ‘동반작가(同伴作家)’로 분류된 부르조아작가들도 활동하였으나 스탈린이 집권한 이후에는 ‘문학·예술단체의 개조에 대하여’라는 1932년의 당중앙위원회 결의에 따라 기존의 모든 단체들이 해체되고 당이 지도하는 「전소작가동맹」이 결성되어 기존의 동반작가들은 도태되고 교조주의적 문화정책이 확립되었다.

스탈린의 죽음(1953년)으로 개인의 행복이나 남녀의 사랑과 결혼문제를 다루는 것이 허용되는 등 소련 문화정책이 일시적으로 변화하였다. 그러나 해빙기의 문예정책은 브레즈네프가 집권함에 따라 당의 지도원칙이 강조되는 기존의 보수적인 문화정책으로 복귀하였다.

소련의 문화정책은 고르바초프 집권으로 근본적인 변화를 맞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르바초프는 “당문화정책의 주요한 과제는 인간의 재능을 개화시키고 가장 광범위한 가능성을 개척하며, 생활을 정신적으로 풍요롭고 다면적이게 하는 것이다… 사회가 작가에게 구하는 것은 예술적 발견이며,

49) 이항재, “소련 문예정책의 전개와 사회주의 리얼리즘 논쟁,”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pp. 37~38.

항상 참된 예술의 본질을 이루어 온 생활의 진실이다”라고 하면서,⁵⁰⁾ 문화에 대한 탄력적인 견해를 표명하였다. 특히 1985년 10월 당중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소련공산당 신강령’이 채택되어 다양한 문화활동을 보장하게 된다. 기존의 검열제도 등은 비판받았고, 작가들의 자유로운 활동을 허용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이 변화하였다.

중국 문화정책의 근거는 1942년 발표된 모택동의 “연안문예강좌회(延安文藝講座會)에서의 강화(講話)”라고 할 수 있다. ‘연안강화’에 따르면 모든 문화 혹은 예술은 일정한 계급의 이해를 대표하고, 특정한 정치노선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문학예술은 인민을 위한 것이어야만 하고, 노동자·농민·병사를 향해 보급해야 하는 것이며, 노동자·농민·병사의 수준에서 출발하여 점차 질을 높여가야 한다.⁵¹⁾ 예술이 정치를 위하여 복무해야한다는 ‘연안강화’의 원칙은 중국 정권이 수립된 이후에 철저히 지켜지게 된다.

‘문예정풍(文藝整風)’은 모택동 시대에 당의 이념에 동의하지 않은 작가들을 숙청하는 것을 의미한다. 1951년과 1954년 두차례의 문예정풍으로 ‘연안강화’에 비판적인 이론가 및 작가들을 숙청한 후, 1956년 모택동은 ‘백가쟁명(百家爭鳴)’

50) “고르바초프 정치보고(II): 소련공산당 제27차대회에 제출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중소연구」 10권 4호 (1986/7 겨울), pp. 223~279.

51) 이충양, “중국의 문예정책,” 「중소연구」 14권 4호 (1990/1 겨울), pp. 37~39.

을 주창한다. 백가쟁명은 표면적으로는 학술연구의 자유를 허용한 것이었으나, 실질적으로는 모택동의 사상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추려내기 위한 조치였다. 백가쟁명시기에 기존의 정책을 비판하였던 인물들은 결국 정풍의 대상이 되었다.⁵²⁾

1959년부터 1962년까지 유소기(劉少奇) 등에 의해 중국의 문화인들은 잠시 해빙기를 맞이하였으나, 임표(林彪)와 사인방(四人幫) 시대 그리고 10년여에 걸친 문화대혁명으로 모택동사상 일색의 문화적 획일화는 더욱 심화되었다.⁵²⁾

모택동이 사망하고 4인방이 몰락한 이후 화국봉(華國鋒)·등소평(鄧小平)이 집권함에 따라 기존의 문화정책에 대한 비판이 시작되었다. 1924년이래의 모든 문학예술 작품을 재검토하는 등, 문화에 대한 논쟁이 개방되었으며, 각종 문화조직을 재정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모택동 시절에 금지되었던 작품들이 해금되었고, 모택동시기의 어두운 면을 묘사한 ‘상흔문학(傷痕文學)’이 활발히 창작되기도 하였다. 등소평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당권파의 권력이 안정됨에 따라 자유로운 창작 풍토는 다시 위축되었으나, 그 정도는 모택동 시대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었다.⁵³⁾

변화된 중국의 문화정책이 잘 표현된 것이 1986년 제 12기 6중전회의에서 통과된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

52) 위의 책, pp. 41~42.

53) 위의 책, pp. 43~44.

침에 관한 결의”이다. 이 결의문은 개방이후 자본주의문화의 무분별한 도입을 경계하기 위해서 채택된 것으로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과 개혁·개방을 위해서 사회주의 정신문명의 건설의 중요성을 재삼 강조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문화정책을 “계급투쟁을 강령으로 삼아 교육, 과학, 문화건설을 경시하여 ‘문화대혁명’이라는 내란이 발생될 때까지 의식형태 영역의 계급투쟁을 극단적으로 확대시켰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존 문화에 대한 반성을 토대로 외부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각 민족의 고유성을 인정하며, 교육, 과학, 문학예술, 신문출판, TV방송, 위생, 체육, 도서관, 박물관 등 각종의 문화사업을 활발히 수행하는 방향으로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⁵⁴⁾

오늘날에도 중국에서는 여전히 문화를 체제유지의 수단으로 간주하고, 마르크스주의와 모택동주의를 지도이념으로 삼고 있으며, 창작과정에서의 당조직과 당간부의 선도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제한적인 수준이기는 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다원적이고 자율적인 문화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이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소련과 중국을 포함하여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정책은 1980년대 이후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고 할 수 있다. 변화의

54)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 「중소연구」 10권 4호 (1986/7 겨울), pp. 281~287.

가장 큰 특성은 문화의 다원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다민족을 포함하고 있는 국가들은 민족단위의 문화를 인정하고 있으며,⁵⁵⁾ 자본주의문화를 포함한 외부문화에 대해서도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문화의 자율성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 양상중의 하나이다. 당의 지도에 의한 획일적인 문화활동 보다는 개인이나 단체 중심으로 다양한 주제에 대한 자율적 창작이 보장되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현재에는 도서관이나 박물관과 같은 문화시설의 조성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문화정책 변화는 일차적으로 소련에서는 고르바초프의 등장 그리고 중국에서는 덩소평의 집권과 같은 최고지도자의 교체와 밀접하게 연관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체제를 변혁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집권층이 지향하는 체제성격에 부합하는 새로운 문화정책을 추구하였다고 할 수 있다.

55) 소련은 1989년에 '민족정책강령'을 발표하였다.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문화정책,"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p. 85.

Ⅲ.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천

1. 1950년대

가. 남한: 자본주의문화 도입기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는 정부수립과 한국전쟁을 겪은 혼란기로서 이렇다 할 문화예술정책이 없었다고 할 수 있다.⁵⁶⁾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가 당면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두 가지인데, 그 하나는 남북통일이고, 다른 하나는 경제안정”이라고 하고 있듯이⁵⁷⁾ 정치와 경제에 관해서 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제헌헌법(1948)의 전문에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각인의 기회를 균등히 하고 능력을 최고도로 발휘케 하며”라고 되어 있으며, 제14조에는 “모든 국민은 학문과 예술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자, 발명가와 예술가의 권리는 법으로 보호한다”라고 되어 있다. 그리고 1951년에 창당한 집권 자유당은 기본강령의 5조에 “우리는 문화의 향상과 과학기술의 진흥으로 신시대 신생활을 지향하여 도시문화와 농촌문화의 교류 병진과 재건으로써 국민생활의 변혁 개

56) 문화공보부에서는 이기간을 문화정책의 혼란기로 명명하고 있다. 「문화공보 30년」(서울: 문화공보부, 1979), pp. 221~233.

57) 유영준, “한국 역대정권의 국가목표 설정과 그 정치적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14집 (1980), pp. 52~53.

선을 기함”이라고 하고 있다.⁵⁸⁾ 그러나 정책 강령에는 문화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제4대 대통령선거(1960)에서 자유당이 내세운 공약 중 문화와 연관되는 것은 “국민의 도의심을 함양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하고 전통과 민주이념을 조화한 새 윤리를 확립한다”와 “문화예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을 기한다”의 두 가지 조항이다.⁵⁹⁾

〈표 1〉 1950년대 남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대	내 용	비 고
1950	국립극장, 국립극단	시설·단체
1951	국립국악원	단 체
1952	문화보호법	법
1953	문화인등록령	법
1954	학술원, 예술원, 국악사양성소	단 체
	국제펜클럽 한국본부	사회단체
1955	대한민국예술원상	상
	동아일보정간사건	사 건
1957	필화사건	사 건
1959	경향신문	사 건

이 기간 동안에도 몇 가지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 1952년에 문화보호법이 제정되어 학술원(1954)과 예술원

58) 「대한민국정당사 1집」(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p. 213.

59) 「대한민국선거사 1집」(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pp. 336~337.

(1954)이 설립되었고, 1953년에는 문화인 등록령이 시행되었고, 1957년에는 저작권법이 제정되었다.⁶⁰⁾ 또한 국립극장(1950년), 국립극단(1950), 국립국악원(1951), 국악사양성소(1954) 등 문화시설 및 단체의 설립도 이루어졌다. 또한 1948년에는 정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미술전람회가 개최되었고, 1955년에는 대한민국예술원상이 제정되었다.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초기에는 문교부와 공보실로 이원화되어 있었으나 1956년부터는 공보실에서 담당하던 영화와 도서출판 분야를 문교부로 이관함으로써, 문교부가 문화예술 분야를 총괄하기 시작하였다(표 1 참조).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되어 있는 것도 아니었고, 구체적인 문화정책이 미미하다는 점에서 이 기간동안 국가는 문화에 대해서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취하였다고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특성은 근본적으로 남한이 체제이념으로 선택한 자유민주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념적 지향성 못지 않게 해방과 전쟁이라는 정치·경제적 혼란으로 인하여 국가가 문화에 관심을 갖기가 어려웠고, 결과적으로 문화정책은 자유방임적인 성향을 떨 수 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1950년대 남한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은 표면적으로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되어 있

60)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p. 18.

듯이 개인의 창의성 존중을 강조하고 있고, 다른 단체에 앞서서 국립국악원과 국악사양성소를 설치한 것은 민족문화를 중시하는 입장을 보여주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념적으로 자유민주주의를 강조하고 문화에 대하여 자유방임적 태도를 견지하였으나 국가가 문화부분에 전혀 개입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경향신문의 폐간(1959)에서 알 수 있듯이 정권에 도전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강력하게 대응하였고,⁶¹⁾ 특히 좌파적 성향의 문화에 대해서는 배타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당시의 갖가지 필화사건들이라고 할 수 있다. 1954년 서울신문에 연재 중이던 정비석의 「자유부인」을 둘러싼 저자와 황산덕교수와의 논쟁과정에서 치안기관은 ‘이북과 관련이 없는가’ 그리고 ‘불순 세력의 공작비를 받고 쓴 게 아닌가’라고 하면서 작가를 조사하기도 하였다.

서울문리대 필화사건(1957), 동아일보 정간사건(1955) 등도⁶²⁾ 체제에 도전적인 문화를 국가가 엄격히 통제하였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예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1950년대 남한의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자유민주주의나 민족문화의 바탕은 좌파이념을 배제하는 반공주의의 한계 내에 머무르고

61) 경향신문 폐간과정에 대해서는 한배호, 「한국의 정치」(서울: 박영사, 1984), pp. 110~140 참조.

62) 윤제철, “문인필화 30년 총정리,” 「정경문화」(1983. 11), pp. 243~244.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⁶³⁾ 또한 민족주의를 강조하였고 국립국악원을 일찍이 설립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국립 서울대에 국악과 설립은 1961년에 가서야 이루어지는 등 민족문화에 대한 실질적인 관심도 충분치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나. 북한: 사회주의문화 건설기

해방이후 1960년까지는 북한에서 ‘사회주의 건설기’로 명명하고 있는 기간으로 정부 수립, 한국전쟁 그리고 전후복구 시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로서 북한은 건국 초기부터 상대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 예를 들어 김일성은 1946년 북조선 각 도민위원회, 정당, 사회단체 선전원, 문화인, 예술인대회에서 한 연설에서 “우리가 반동세력을 분쇄하고 새 민주조선을 건설하는가 못하는가 하는 것은 동무들이 문화전선에서 잘 싸우는가 못 싸우는가에 달려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⁶⁴⁾ 일찍부터 문화예술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1948년의 북한 헌법에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세 곳이다. 10조에서는 “국가는 국내의 경제 문화의 부흥과 발전을 지향

63) 이승만 정권의 반공주의에 대해서는 최봉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본 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그 함의,”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I」(서울: 열음, 1985); 송영원, “19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성격,”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서울: 열음, 1987) 참조.

64)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1946. 5. 24),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p. 231.

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11조는 “공민은 국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생활의 모든 부문에 등당한 권리를 가진다”라는 내용이고, 20조에서는 “공민은 과학 또는 예술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저작권 및 발명권은 법적으로 보호한다”라고 하고 있다. 1946년의 조선로동당 창립대회에서 채택된 강령 중 문화와 연관된 내용도 이와 흡사하다. 8조에는 “전조선인민에게 언론, 출판, 집회, 연설대회, 시위운동, 당조직, 동맹조직 및 신앙의 자유를 보장할 것”이고, 10조에는 “조선민족문화 예술 및 과학의 정상적 발전을 도모할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⁶⁵⁾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정부의 정강에는 “정부는 민족문화를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것이며, 성인교육을 장려하여 인민들의 문맹퇴치는 물론 그들의 문화수준을 더욱 향상시키기 위하여 성인학교 성인중학교를 확장할 것”이고, “인민들의 정치 문화 수준 향상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많은 신문 잡지 서적들을 발간하며 도서관 영화관 극장 구락부 사업들을 충실히 하며 또한 확충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⁶⁶⁾

해방이후 1950년대까지 북한의 문화정책은 크게 네 가지 방향으로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문화시설의 확충이다. 1945년 평양에 국립중앙역사박물관이 개관되었으며, 도서관은 1946년에 35개에서 1947년에는 103개, 도서실은

65)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86.

66)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96~97.

717개에서 8,112개로 늘어났다.⁶⁷⁾ 전쟁이후에도 이러한 노력은 지속되어 1954년에 모란봉 극장이 완공되었고, 1956년에는 공업전람관과 농업전람관이 개관되었다. 1949년에서 1958년 사이에 도서관은 106개에서 185개로, 영화관은 81개에서 296개로 대학의 수는 4개에서 22개로 증가하게 된다.⁶⁸⁾

둘째, 각종 문화기관의 정비이다. 문학예술인들을 포괄하는 ‘북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1946년 3월 25일에 창립되었고, 1949년에는 평양미술대학이, 그리고 1952년에는 평양음악대학이 설립되었다. 1953년에는 국립극장부속종합예술학교가, 1956년에는 연극학교 그리고 1959년에는 평양연극영화대학이 설립된다.⁶⁹⁾ 또한 1959년에는 미술창작기지인 ‘만수대창작사’가 평양에서 창립된다.

셋째, 전통문화의 보존이다. 1957년 현재 유적지가 260개소, 명승지가 12개소, 천연기념물 43개가 관리되고 있으며, 96개 유적지 및 명승지에 대한 보수공사가 진행되었다.⁷⁰⁾

넷째, 문화정책을 추진하기 위한 각종 법령의 정비이다. 1946년에 ‘보물, 고적 명승, 천연기념물 보존령’과 ‘예술위원회조직에 관한 건’이, 1947년에는 ‘국립극장설치에 관한 결정

67)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1), pp. 368~369.

68) 「조선중앙년감 1959」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 337.

69)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1), pp. 290~291

70) 「조선중앙년감 1958」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8), p. 144.

서'와 '국립영화촬영소설치에 관한 결정서'가, 1948년에는 내각결정 58호로 '조선물질문화유물조사보존위원회에 관한 결정서'가 결정되거나 의결되었다. 1950년에는 '이동예술대에 관한 규정'과 '극장(극단, 악단, 무용단)에 관한 규정'이, 1952년에는 내각결정 168호로 '무대예술인들을 우대함에 관하여'가, 1958년에는 내각명령103호로 '도시·농촌을 전반적으로 유선방송화할 데 대하여'와 내각결정 30호로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가 결정되었다.⁷¹⁾ 1952년에는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를 결정하여 예술가에 대한 우대를 명확히 하였다⁷²⁾(표 2 참조).

1950년에 북한 문화정책의 근본 목표는 주민들에게 사회주의이념을 내면화시키는데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문화정책의 목표가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이 김일성의 다음의 말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건설의 기본과업은 인민교육과 문학 예술 분야에서 일제사상잔재를 완전히 뿌리 빼고 민족문화를 빨리 발전시키며 전체인민의 지식수준을 높이며 인민경제와 국가기관에 필요한 능력 있고 민주주의정신으로 교양 받은 민족간부들을 많이 준비하는데 있습니다("민주주의조선립시정부를 세우는 것과 관련하여 모든 정당, 사회단체들은 무엇을 요구할 것인가,"

71) 「북한법령집 4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pp. 188~223.

72) 「북한법령집 1권」(서울: 대륙연구소, 1990), pp. 404~405.

1947. 6. 14).⁷³⁾

〈표 2〉 1950년대 북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도	내 용	비 고
1950	이동예술대에 관한 규정	법
	극장(극단, 악단, 무용단)에 관한 규정	법
1952	평양음악대학	교육기관
	무대예술인들을 우대함에 관하여	법
	인민배우, 공훈배우 및 공훈예술가 칭호를 제정함에 관하여	법
1953	국립극장부속종합예술학교	교육기관
	농촌지역에 설치된 민주선전실, 직장 단위에 존재하는 각종 문화씨클, 지 역단위의 구락부가 군중문화의 중심 이 될데 관하여	법
1954	모란봉 극장	시 설
1956	공업전람관과 농업전람관	시 설
	연극학교	시 설
1958	도시·농촌을 전반적으로 유선화할 데 대하여	법
	체육 및 스포츠 보급과 체육간부 양 성사업을 개선할 데 관하여	법
1959	평양연극영화대학교	교육기관
	만수대창작사	단 체

73) 「김일성저작집 3」(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p. 313.

따라서 문화는 교육과 함께 ‘사회주의 교양’의 중요한 기제가 된다. 건국초기에 내각에서 문화를 다루는 부서는 문화선전성이었으나 1957년에 교육성과 통합하여 교육문화성이 되어 교육과 문화를 동시에 다루게 된다. 정부예산에서 문화부분에 대한 투자도 적지 않다. 확인된 경우 1948년에는 전체 예산의 1.5%, 1949년에는 1.3%, 1956년에는 1.5%가 사회문화사업비로 지출되었는데,⁷⁴⁾ 국가건설이나 전후 복구가 시급하였던 당시의 북한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한다면 문화에 대한 투자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⁷⁵⁾

1950년대 북한 문화정책의 이론적 바탕은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고 할 수 있다.⁷⁶⁾ 공식적으로 “카프문학의 위대한

74) 「조선중앙년감」 해당 년도 참조. 문화에 대한 투자는 정부의 예산지출에 있어서 교육과 함께 사회문화비 항목으로 합쳐져 있다. 북한은 예산내역을 매년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공개하는 경우도 세부항목까지 포함되는 경우는 드물며, 분류항목도 변하는 등 일관성이 없다. 따라서 순수 문화에 대한 예산 비율을 정확히 알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사회문화 항목에는 문화사업비 외에 교육문화비, 과학사업비, 보건 및 체육사업비, 사회보험 및 사회보장사업비 등이 포함된다. 교육문화비 항목에서도 문화에 일정 부분 지출되었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정부의 투자는 앞에서 밝힌 것 보다 더 많다고 볼 수 있다.

75) 실제로 전후복구계획에도 ‘민족문화와 예술의 가일층의 개화를 보장할 것’이 포함되어 있다. “1954~1956년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인민경제 복구 발전 3개년계획에 관한 법령”(1954. 4), 「북한최고인민회의 자료집 1집」, p. 664.

76) 김일성은 “우리의 문학, 예술인들은 앞으로 계속 문학, 예술에 있어서 반동적 부르조아 사상을 반대한 견결한 사상투쟁을 완강히 전개하며 사회주의 레알리즘의 창작 방법에 엄격히 립각하여 자연주의, 순수 예술의 각종 표현들을 반대하여 견결히 투쟁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1956. 4. 23),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366.

전통을 계승하는 것이 우리나라 문학”이라고 하고 있듯이,⁷⁷⁾ 일제하의 카프계열의 사회주의문예이론이 해방이후에도 북한에서 지속되었다고 할 수 있다.

사회주의가 북한문화정책의 이념적 바탕이었지만 초기에는 민주주의 이념을 강조하기도 하였다. 김일성은 “일부 문화인들은 아직 민주주의의 진리를 깊이 파악하지 못하고 있습니다”라고 비판하면서 “문화인들이 민주주의의 진리를 철저히 체득하고 민주주의 깃발 밑에 굳게 단결하여 더욱 견결히 투쟁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⁷⁸⁾

사회주의와 함께 민족주의도 강조된 경향이 있다. 김일성은 “민족문화유산에 대하여 허무주의적으로 대할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잘 보존하여야 하며 문화유산가운데서 진보적이고 인민적인 것은 비판적으로 계승발전시켜야 합니다. … 민족문화유산을 통하여 인민들의 계급의식을 높여주는데도 관심을 돌려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⁷⁹⁾ 민족문화에 대한 최고지도자의 관심과 부합하기 위하여 유적지를 보수하고 문화재를 관리하는 등의 민족문화유산 보존 정책이 추진되었다.

건국이후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민주주의나 민족주의적 경향성이 나타나는 것이 사회주의 건설과정에서 일차적으로 극복해야 할 대상이 일제의 전제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한국전쟁을 통해서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에 돌입한

77) 「조선중앙년감 1957」(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p. 111.

78)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1946. 5. 24), 「김일성저작집 2」(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p. 233.

79)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1949. 10. 15),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p. 283~285.

결과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상황적인 요인 외에도 해방이후 활발하게 전개된 북한문학예술계 인사들의 이론 논쟁도 초기 북한 문화정책의 민족주의적 성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계급문학과 민족주의 그리고 민주주의문학과와의 관계를 중심으로 진행된 건국 초기의 문예논쟁에서 프롤레타리아의 계급성을 강조하면서도 민족의 역사적 상황을 중시하는 견해들이 지배적인 위치를 차지하였고 이러한 논의가 초기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⁸⁰⁾

그러나 이 기간에 배타적인 민족문화만을 고집한 것은 아니다.⁸¹⁾ 북한은 외국문화의 유입에도 적극적이었는데 특히 ‘조쏘문화협회’를 중심으로 건국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소련 문화와의 교류를 지속하였고,⁸²⁾ 1957년에는 모스크바에서 개최된 제6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기도 하였다.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군중문화’의 강조라고 할 수 있다. 일반 주민들의 참여를 의미하는 군중문화 혹은 ‘군중예술’은 주민들이 예술적 기술을 습득하는 동시에, 문화를 통하여 인민들을 정치적으로 교양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⁸³⁾ 1953년 내각명령 제74호로 농촌지역에 설치된 ‘민주선전실’, 직장단위에 있는 각종 ‘문화 씨클’, 그리고 지역

80) 해방이후 북한 문학예술계의 논쟁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1부 참조.

81) 김일성은 민족문화에 대하여 허무주의 못지 않게 북고주의적 태도를 경고하고 있다. 김일성,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전하여야 한다,” p. 283.

82) 「조선중앙년감 1950」, pp. 361~364.

83) 「문학예술사전」(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72), pp. 83~84.

단위의 ‘구락부’가 군중문화의 중심으로 기능하였는데, 1958년에는 민주선전실이 8,703개소, 구락부는 472개에 달했으며 씨클의 수는 8만여개에 이르고 있다.⁸⁴⁾ 군중문화는 일반 주민들이 능동적으로 문화에 참여하게 함으로써 문화가 갖는 정치사회화의 효과를 제고시켰다고 볼 수 있다.

2. 1960년대

가. 남한: 문화정책의 구체화

1960년대는 4·19로 집권하였던 민주당 정권이 1961년의 5·16쿠데타로 1년만에 무너지고, 군정을 거쳐 1963년부터 박정희가 집권하였던 시기이다. 4·19와 5·16, 6·3사태와 3선 개헌 등 정치적인 격변기였으며, 경제적으로는 경제개발계획이 실시되어 고도성장을 구가하던 시기였다. 경제성장이 여전히 중요한 국가적 과제였으나 문화에 대한 관심도 전 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⁸⁵⁾

2공화국의 헌법이나 제3공화국 헌법에서 문화와 연관된 부분은 1공화국의 헌법과 동일하다. 그러나 2공화국의 집권당이었던 민주당의 정강에는 “민족문화를 육성하며 문화교류를 촉진하여 세계문화의 병진에 공헌하다”라는 항목이 있으며, 정책에는 “문화인·문화재의 보호와 과학기술의 장려”가 포함

84) 「조선중앙연감 1959」(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9), p. 224.

85) 정부에서는 1961년부터 1972년까지를 개발기로 표현하고 있다.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pp. 221~233.

되어 있고,⁸⁶⁾ 중앙당에 문화부를 두고 있다는 점에서⁸⁷⁾ 자유당에 비교한다면 문화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높았다고 할 수 있다.

1963년에 채택한 민주공화당의 정강에는 “우리는 교육의 발전, 언론의 창달 및 민족문화의 보호육성과 과학기술의 진흥으로써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라고 하고 있다. 문화에 대한 기본적인 시각은 민주당과 대동소이하나 기본정책의 4항을 ‘교육문화의 향상’으로 정하고 “민주국민의 자질 향상과 자유인으로서의 인간성 함양, 교육의 자주성과 정치적 중립성 보장, 학문의 자유 보장과 학술연구 적극 지원, 민족문화의 보호 육성과 과학기술의 진흥, 언론의 자유 보장과 책임 있는 언론의 창달” 등 문화에 대하여 구체적인 관심을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⁸⁸⁾ 이러한 맥락에서 1965년 전당대회에서 채택한 민주공화당의 정책방향은 ‘문화관계’ 항을 독립하여 학·예술원의 처우와 조직문제, 국립도서관과 예술관설치 문제 등 실질적인 사항을 거론하고 있다.⁸⁹⁾

2공화국 시기에 있었던 5대국회의원선거(1960)에서 집권한 민주당의 선거공약에는 문화에 대한 항목이 없으며,⁹⁰⁾ 1963년의 제5대대통령 선거에서 박정희의 선거공약도 문화

86) 「대한민국정당사 1집」, p. 226; 한태수, 「한국정당사」(서울: 신태양사, 1961), pp. 298~299.

87) 자유당의 경우 문화부는 지방당에만 있었다. 한태수, 「한국정당사」, pp. 303~314.

88) 「대한민국정당사 1집」, pp. 306~307.

89) 위의 책, p. 342.

90) 위의 책, pp. 240~241.

문제는 언급하지 않고 있다.⁹¹⁾ 그러나 대통령선거와 동시에 실시된 6대국회의원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내세운 선거공약에는 문화와 관련된 부분이 등장한다. 공약의 16항에 “민족문화와 민족예술을 진흥한다”라는 항목이 있고, 당면 정책에는 「교육문화의 향상」을 독립시켜 “민족문화예술의 진흥, 문화재의 적극 보호, 문화의 대중화를 위한 국민계몽의 강화, 국민체위 향상과 체육문화 진흥”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⁹²⁾

1967년의 제6대대통령선거와 제7대국회의원선거에서 집권 민주공화당은 100개의 항목으로 구성된 공약을 제시하였는데 이 가운데 5개항이 문화와 관련이 있다. 56항에는 “도시와 지방에 걸쳐 공공도서관을 늘리고 농어촌 문고를 더 많이 만들겠다”라고 하고 있으며, 60항에는 “학술단체와 문화예술단체의 활발한 활동을 위해 정부지원을 더 많이 하겠다”라고 하고 있다. 61항은 “앞으로 4년 안에 민족문화 「센터」를 건립하고 박물관, 학술원 예술원 등 민족문화시설을 모두 갖추겠다”는 내용이고, 62항은 “인간문화재를 보호하고 문화재관리를 개선하여 민족문화예술을 널리 보급하여 국제적으로 그 이름을 높이겠다”는 내용이고, 63항은 “우리나라의 어디서나 듣고 볼 수 있도록 공보 문화사업을 강화하여 문화의 혜택을 전 국민이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되어 있다.⁹³⁾

1961년 6월에 신설된 공보부가 문교부가 담당하던 문화관련 업무 중 영화 및 공연업무를 담당하게 되고, 국립극장 및

91) 「대한민국선거사 1집」, p. 362.

92) 「대한민국정당사 1집」, pp. 316~317.

93) 위의 책, p. 355.

〈표 3〉 1960년대 남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대	내 용	비 고
1961	공보부	기 관
	공연법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법	법
1962	문화재보호법, 불교재산관리법, 향교 재산법	법
	국립창극단, 국립무용단, 국립오페라단	단 체
1963	유네스코활동	법
	대한민국체육상	상
	국립중앙도서관	시 설
1965	지방문화사업조성법	법
1966	영화법	법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	단 체
1967	음반에 관한 법률	법
1968	문화관계법령	법
	고전 국역사업과 한글전용화 정책	정책시행
	국민교육헌장	
1969	대한민국문화예술상	상
	국립현대미술관	시 설

국립국악원도 관할하게 되어, 문화행정의 이원화가 이루어졌으나,⁹⁴⁾ 1968년 문화공보부가 발족되어 문화행정은 다시

94) 문교부는 문학, 예술, 음악, 도서, 문화재, 중무행정을 공보부는 영화, 공연, 연예, 정기간행물을 담당하게 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p. 91.

일원화되었다.⁹⁵⁾ 문화 관계법령들도 잇따라 정비되었는데, 1961년에는 ‘공연법과 출판사 및 인쇄소의 등록에 관한 법률’이, 1962년에는 ‘문화재보호법’, ‘불교재산관리법’ 그리고 ‘향교재산법’이, 1963년에는 ‘유네스코활동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또한 1965년에는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이, 1966년에는 ‘영화법’이, 1967년에는 ‘음반에 관한 법률’이 제정 공포되었다. 1968년부터 고전 국역사업과 한글전용화 정책을 시작하는 동시에 국민정신의 재창조를 위하여 ‘국민교육헌장’을 제정하고 건전가요와 국민표준오락을 보급하는 등 국가가 문화활동에 개입하는 정도가 점차 심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기간에 문교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체육상(1963)’, 문화공보부가 주최하는 ‘대한민국문화예술상(1969)’이 시작되었고, ‘국립창극단(1962)’, ‘국립무용단(1962)’, ‘국립오페라단(1962)’ 등의 국립극장 산하단체가 결성되었고 국립중앙도서관(1963)과 국립현대미술관(1969)과 같은 문화기관도 정부에 의하여 설립되었다. 또한 정부는 1962년의 ‘한국예술문화단체총연합회(예총)’의 설립을 후원하였고,⁹⁶⁾ 1969년에는 출판금고가 설치되어 도서출판에 대한 정부의 지원

95)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18.

96) 예총은 건축, 국악, 무용, 문학, 미술, 사진, 연극, 연예, 영화, 음악 등 10개 분야의 예술협회가 모여서 결성한 것으로, 공보부가 사단법인체로 인가하였고, 1964년에는 정부의 지원으로 예총회관을 건립하게 된다.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p. 69.

이 시작되었다⁹⁷⁾(표 3 참조).

1960년대 남한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은 여전히 자유민주주의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시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정도가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5·16을 ‘민족중흥의 계기’로 간주한 대통령 박정희는⁹⁸⁾ 실제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높았다.⁹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공주의가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이념 토대로 작용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5·16 혁명공약 제1항이 “반공을 국시의 제일의로 삼고 지금까지 형식적이고 구호에만 그친 반공태세를 재정비 강화한다”라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 시정연설의 교육문화부

9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19.

98) 박정희, “5·16 군사혁명 1주년 기념식 기념사”(1961. 5. 16), 「박정희 대통령연설문집 1: 최고회의 편」(서울: 대한공론사, 1973), p. 230.

99) 박정희가 집권한 18년 동안 한글날에 담화문을 발표한 경우가 11회이다. 이러한 빈도는 적십자의 날(12회), 한국전쟁(10회)과 더불어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박정희의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라고 할 수 있다. 윤희중, “박정희대통령의 담화문 및 신문의 그 보도성향에 관한 연구”(고려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82), pp. 45~47; 박정희의 민족주의가 내포하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박정희가 추구하였던 민족주의가 단지 수단적인 의미를 갖는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 반면 박정희가 진정한 민족주의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다. 그러나 박정희가 생각하는 민족주의의 성격은 집권기간 동안에 적지 않게 변화한다. 따라서 일률적으로 그의 민족주의 성향을 평가하는 일은 용이하지 않다. 그가 생각하는 민족주의가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표면적으로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있음은 분명하다. 박정희의 민족주의에 대해서는 이우영, “박정희통치이념의 지식사회학적 연구”(연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p. 167~180 참조.

분에도 ‘자유수호’와 ‘승공통일’ 등의 반공구호가 등장한다.¹⁰⁰⁾ 또한 박정희는 방송의 중요한 성과로서 “전파전의 용사로서 대북선전 공세의 포문을 열었다”는 점을 들고 있다.¹⁰¹⁾ 이와 같이 반공주의 이념은 이전 시기보다 더욱 표면화되었으며, 자유민주주의나 민족주의는 여전히 반공주의의 틀을 벗어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¹⁰²⁾

1960년대에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양식은 지원과 규제 의 두 가지 방향으로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예총을 비롯한 각종 문화단체의 지원, 그리고 출판금고 설립 지원 그리고 문화관련 각종 상의 제정은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1966년에 설립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문화활동을 규제하는 장치라고 할 수 있다. 문화와 관련된 법률들의 제정은 해당 분야를 지원하는 수단이 되는 동시에 또 한편으로 자유로운 창작활동을 제한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¹⁰³⁾

100) 박정희, “시정연설문” (1964. 9. 1),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2: 제5대편·상」 (서울: 대한공론사, 1973), p. 182.

101) 박정희, “「방송의 말」 치사” (1965. 10. 2),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2」, p. 466.

102) 남정현의 소설 「糞地」 사건도 반공주의 경향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이다. 1965년 3월 「현대문학」에 실린 단편소설 「분지」는 발표당시 문제가 되지 않았으나 4개월 후 이 작품이 북한의 「조국통일」에 소개되자 작가가 반공법으로 구속되었다. 윤재휴, “문인필화 30년 총정리,” pp. 246~248.

10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66; 예를 들어 「음반법」이 제정됨에 따라 가사, 악보 등에 대한 사전 승인이 필요하게 되었다.

1950년대에 비해서 박정희 집권 이후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한 것은 일차적으로 경제개발계획의 성공으로 경제적 여유가 생겼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절대빈곤 문제가 시급하거나 정치·안보 문제가 시급하다면 문화에 대한 관심을 줄어둘 수 밖에 없다. 그러나 1960년대에는 1950년대보다 경제적 조건이 호전되었고, 결과적으로 문화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가능해졌다. 경제성장이 가시화 되는 1960년대 후반에 문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많아지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문화를 경제성장이나 정치적 통합의 수단으로 인식하게 된 것이 문화정책이 확대된 중요한 이유였다고 볼 수 있다. 박정희정권은 쿠데타로 집권하였기 때문에 정통성의 확보가 중요한 문제였다. 박정희는 반공주의나 민족주의와 같은 이념을 강조함으로써 정치적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정치 선전(propaganda)에서 문화가 갖는 역할이 증시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를 공보와 같이 다루는 문화공보부 설립이 이러한 설명을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좋은 예가 된다.¹⁰⁴⁾

104) 문화와 공보는 본질적으로 차이가 있다. 문화를 담당하는 부서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국가에서는 문교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문화를 다루고 있다. 남한의 경우 문화공보부가 문화를 담당하였다는 것은 문화의 독자적 발전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박종국, 「문화정책의 기초와 과제」, 「문화예술논총」 1집 (1988), p. 44; 앞장에서 살펴본 듯이 미국도 공보처를 운용하고 있으나 미국의 공보처는 미국문화의 소개를 주 임무로 하고 있다.

또한 1960년대는 경제성장을 위한 국민 동원을 위해서 문화를 활용했다고 볼 수 있다. 경제성장을 권력획득 및 유지의 수단적 이데올로기로 삼았던 박정희정권에게 가시적 경제성장은 가장 절실한 문제였다. 그러나 당시 남한은 자본과 기술 등 성장을 위한 조건들이 지극히 미미한 반면, 상대적으로 노동력만이 양과 질에서 풍부하였다. 저임금에 바탕을 둔 수출주도형 성장전략을 결정한 이상 국민의 동원화는 핵심적 과제였다고 할 수 있다. 더욱이 군부출신의 집권세력은 전투력향상에서 정신교육이 갖는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와 교육을 통한 국민동원에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¹⁰⁵⁾

나. 북한: 천리마운동과 항일혁명문학의 대두

1960년대 북한은 김일성의 1955년도 논문 “당 사상사업에서 교조주의와 형식주의를 타파할데 대하여”가 발표되고, 1956년의 ‘8월 종파투쟁’이 완결된 후 김일성 개인으로의 권력집중이 가속화되어 유일사상체계가 성립되는 시기였다. 북한의 문화정책도 유일사상체계의 성립이라는 정치적 환경변화와 관련을 가지면서 이전 시기와는 부분적으로 차이

105) 박정희는 “경제적 번영의 밑바탕에는 강인한 의지와 근면한 노력에 사는 국민이 있는 법이며, 민족중흥의 저력은 정신의 개혁 운동에서 우러 나오는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박정희, “「국민교육훈장」선포에 즈음한 담화문”(1968. 12. 5)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4: 6대편·상」 (서울: 대한공론사, 1973), p. 382.

를 보이게 된다.

기본적으로 문화가 갖는 정치사회적 역할은 1950년대와 마찬가지로 할 수 있다. 김일성은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에서 “문화 혁명에서 주요한 것은 근로자들의 일반 지식과 기술지식을 높이는” 것이며, “당의 로선과 정책을 맑스-레닌주의적으로 심오하게 해설 선전하여야”하고, “작품들은 현대의 유일하게 정당한 창작 방법인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에 의하여서만 창조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고, “문학예술이 인민의 심장을 울리며 인민에게서 사랑을 받기 위하여서는 그 사회주의적 내용과 슬기롭고 다양한 민족적 형식이 옹계 결합되어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⁰⁶⁾ 그러므로 국가는 “우리 시대의 위대한 현실과 우리 혁명의 빛나는 전통을 형상화하기 위한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보장하며 우리나라 사회주의적 민족 문화의 가일층의 개화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충분히 공급한다”라는 관점에서 문화정책을 추진하게 된다.¹⁰⁷⁾

문화정책의 의미는 크게 변하지 않았으나 구체적인 정책의 지향점은 1960년대에 들어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그

106) 김일성,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1961. 9. 11),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2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54~55.

107) 한상두,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1961년 국가예산집행에 대한 결산과 1962년 국가예산에 관한 보고,”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2집」, p. 983.

첫번째는 1956년부터 시작된 천리마운동의 결과 천리마시대의 영웅들을 부각하는 문학예술작품의 창작이 독려되었다는 점이다.¹⁰⁸⁾ 문화정책에서 천리마운동을 강조함에 따라 문화를 통한 주민들의 노력 동원을 강조하고, 집단적 사상 교양이 더욱 중시되게 되었다.

두번째로는 항일혁명문학이 대두하였다는 점이다. 항일혁명문학은 1957년에서 1960년까지 보급된 「항일빨찌산참가자들의 회상기 1권~4권」에서부터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¹⁰⁹⁾ 1967년 12월에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제4기 1차회의에서 발표된 ‘공화국정부의 10대정강’에서 김일성은 “모든 문화창작에서 항일혁명문학을 중심으로 할 것”을 공식 천명한다.¹¹⁰⁾ 항일혁명문학의 강조는 유일사상을 문화정책

108)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1), p. 299; 김일성은 “우리의 문학과 예술은 응당 천리마의 기세로 내달리고 있는 인민의 위대한 창조적 생활을 힘있게 형상화하여야 할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다.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1960. 11. 27),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 144

109) 1950년대 후반 항일혁명문학이 대두된 것은 ‘반종파투쟁’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에 대해서는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pp. 144~157 참조.

110) “우리는 당의 문예정책을 받들고 사회주의적 문학과 예술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계속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문학예술부문 일군들은 우리 인민의 영광스러운 항일무장투쟁과 그것을 계승한 현시기 우리 인민의 장엄한 투쟁모습과 약동하는 현실을 형상한 혁명적인 작품들을 많이 창작하여 전사회의 로동계급화, 혁명화에 더 잘 이바지하여야 하겠습니다.” 김일성, “공화국 정부 10대 정강”(1967. 12. 14),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평양: 과학,백과사전 출판사, 1982), p. 267.

에도 반영한 것으로서 김일성의 우상화작업을 문화를 통하여 추진하게 되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1960년대에도 문화를 위한 기간시설의 확충과 조직정비가 계속되었다. 1962년의 제3기 최고인민회의 1차회의에서 발족한 새 내각에서는 교육부와 통합되어 있었던 문화부를 독립하였고, “민족문화 발전을 위한 물질적 토대를 더욱 튼튼히 축성한다”는 인민경제 7개년계획에 발맞추어,¹¹¹⁾ 1960년에 평양대극장이 신설되었다. 1961년에는 조선혁명박물관과 중앙미술박물관이 재개관되었으며, 1961년에는 건설 전람관과 어머니 전람관이 건립된다. 1962년부터 혁명 전적지가 정비되기 시작하였고, 1963년에는 보천보 박물관, 천리마 전람관, 학생소년 궁전이 평양에 건축되었다. 같은 해 13개시도에는 군중 문화회관이 건설되었으며, 1964년과 1967년에 각각 평양에 국립교예극장과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이 완성되었다.

또한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이 1961년에 창립되어¹¹²⁾

111)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7개년(1961~1967) 계획 통계 숫자,” 「조선노동당대회자료집 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148.

112) 1946년에 창설되었던 북조선 작가동맹이 1951년에 조선문학예술총동맹으로 바뀌었으나 당시의 주축은 남한출신이었다. 문예총은 1953년 남로당 숙청과정에서 해산되었다가 1960년 문학예술의 모든 부문을 망라하는 연합조직을 만들고 당에서 직접 지도하라는 김일성의 교시에 따라 1961년에 다시 조직된 것이다. 김일성,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1960. 11. 27),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 459. 문예총의 창립과정에 대해서는 좌담, “북한의 주체 문예 60년을 점검한다,” 「역사비평」 4 (1989 봄), pp. 42~48. 참조.

산하에 작가동맹, 미술가 동맹, 작곡가 동맹, 연극인 동맹, 영화인 동맹, 무용가 동맹, 사진가 동맹을 망라하게 되었다. 1964년에는 창작지도집단인 ‘대창작지도그루빠’가 창립되고, 1965년부터는 생산단위에서 예술소조들의 활동이 본격화되었으며, 수령형상문학을 담당하는 ‘4·15창작단’이 1967년에 출범한다.¹¹³⁾ 그리고 문화재의 보존과 유적지발굴 등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표 4 참조).

〈표 4〉 1960년대 북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도	내 용	비 고
1960	평양극장	시 설
1961	조선혁명박물관, 중앙미술박물관	시 설
	건설 전람관과 어머니 전람관	시 설
	조선문학예술총동맹(문예총)	단 체
1962	군중문화 사업과 대중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	법
1963	보천보 박물관, 천리마 전람관, 학생소녀 궁전	시 설
1964	국립교예극장, 보천보전투승리기념탑	시 설
	대창작지도그루빠	단 체

항일혁명문학을 강조함에 따라 문화정책의 이념적 특성도 다소 변하였다고 할 수 있다. 여전히 마르크스·레닌주의와 사회주의리얼리즘을 강조하였지만 ‘민족적 형식에 사

113)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참조.

회주의적 내용'이라는 북한식 사회주의리얼리즘의 독특성이 상대적으로 부각되었다. 또한 반자본주의적 이념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한 것도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은 “문예작품에서 남반부 인민들의 생활과 투쟁을 적게 취급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우리의 문학예술은 북반부에서의 사회주의 건설에 복무해야 할 뿐 아니라 남조선혁명과 조국통일을 위한 전체 조선인민의 투쟁에 복무하여야 합니다”라고 하면서 자본주의의 모순을 부각할 수 있는 작품창작을 독려하고 있다.¹¹⁴⁾

1967년 문학계 내에서의 반종파투쟁은 북한 문화의 이념적 지향이 변화하는 결정적 계기였다. 반종파투쟁을 통하여 기존의 문학예술작품들은 수정주의와 반동주의 그리고 사대주의로 비판되고, 수령의 형상화를 소재로 하는 교조주의적 문예관이 확립된다. 이 과정에서 기존의 카프 전통은 폐기되고,¹¹⁵⁾ 항일혁명문학이 사회주의적 사실주의의 전형으

114) 김일성,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1964. 11. 7) 「김일성저작집 18」(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p. 436~438; 남한을 소재로 한 작품을 창작하여야 한다는 주장은 1949년에도 제시된 바가 있다. 김일성, “현시기 문학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1949. 12. 22) 「김일성저작집 5」(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337; 그리고 전쟁기간 중에 미군을 비판하는 문예작품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김일성,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1950. 12. 24), 「김일성저작집 6」(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p. 225; 그러나 이전에는 남한주민들의 사회주의적 성향을 묘사하거나 전쟁물에서 부분적으로 미군의 잔학상을 고발하는 정도였다. 자본주의의 모순을 전면적으로 묘사하면서 반미·반제국주의적 작품창작이 본격화 되는 것은 196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

로 자리잡게 된다. 문예이론에서 항일혁명문학의 성립은 문화전반에 대한 국가의 간섭이 한층 강화되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문화예술인들은 “당 정책을 무조건 지지옹호하는 견결한 립장”을 취하게 되고¹¹⁶⁾ 미학적인 기준보다는 정치적이고 사상적인 기준에 따라 작품을 평가하게 된다.

항일혁명문학의 정립과 함께 군중문화활동의 강조도 문화에 대한 국가의 통제가 강화되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징표라고 할 수 있다. 1961년 6월 당중앙위 상무위원회가 ‘새환경에 적응하게 문화 및 대중정치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일부 개편하여 기구정원을 조절할데 대하여’를 결의하고, 1962년 1월에는 내각결정 제6호로 ‘군중문화 사업과 대중정치 사업을 개선 강화할 데 관하여’가 의결되어 군중문화가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이에 따라 1961년부터는 군중예술 전문예술인들을 공장 기업소에 파견 야간예술학교를 운영하기 시작하고,¹¹⁷⁾ 예술소조의 활동을 더욱 독려하였다. 군중문화의 강조와 예술소조의 활동이 강화됨에 따라 지역 및 생산단위에서 문화에 대한 당의 직접적인 통제가 더욱 심화되었다.

1960년대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특기할만한 사실은 김정일이 문화정책에 관여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김정일은

115) 김재용, 「북한 문학의 역사적 이해」, pp. 217~219.

116) 「조선중앙년감 1963」(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63), p. 241.

117)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0」(평양: 과학, 백과사전 출판사, 1982), p. 240

대학을 졸업한 후 당중앙위원회 조직지도부 지도원과 정무원 제1부수상 김일의 참사실에 잠시 근무한 후 1972년 당 선전선동부장이 되기까지 조직지도부 부부장으로 있었던 6개월을 제외하고는(1969. 3~1969. 9), 1966년부터 선전선동부 지도원(1966. 2), 선전선동부 영화예술과장(1968. 2), 선전선동부 부부장(1969. 9), 선전선동부 문화예술담당 부부장(1970. 10) 등 주로 문화분야에서 근무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김정일은 김일성이 항일유격대시절에 창작하였던 작품들을 재창작하는 등 유일사상체계를 문화사업에서 구현하는데 주력하였고 문화부문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¹⁸⁾

다양한 문화갈래 중에서 영화에 대한 관심이 더욱 높아진 것도 이 시기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¹¹⁹⁾ 김일성은 일찍부터 “영화가 가장 중요하고 힘있는 대중교양수단이라고 주장하였는데,¹²⁰⁾ 1960년대에는 영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면서 직접 영화제작과정에 참여하기도 하였다.¹²¹⁾ 영화

118)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2」(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272~274.

119) 1970년 11월에 개최된 조선로동당 5차대회에서 문학예술 부문을 토론한 박영신은 1960년대에 특히 영화예술발전에서 획기적인 성과가 이룩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국토통일원, “박영신토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884.

120) 김일성,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 나가야 한다”(1958. 1. 17), 「김일성저작집 12」(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p. 9.

121) 리기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예술령도사」(평양: 문예출판사, 1991), 제5장 3절 “영화예술발전에 화력을 집중,” 참조.

를 중시한 것은 영화가 정치적으로 효율적인 선전 매체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김정일이 영화에 직접 관여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영화가 기본적으로 제작과정에서 필요한 장치나 시설들이 많고, 일정한 제작경비가 필요할 뿐만 아니라 비공개적인 작업이 불가능하여 다른 장르보다 통제가 용이하다는 점도 북한에서 영화를 중심적인 문화갈래로 택한 또 다른 이유가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960년에도 문화교류는 지속되었다. 조선가무단이 소련을 방문하는 등 소련 및 중국과의 문화교류가 활발히 진행되었고, 1962년에는 헬싱키에서 개최된 제8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도 참가하였다. 그러나 해외문화 교류에서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은 1964년을 기점으로 동유럽 및 아시아, 아프리카 그리고 라틴아메리카와 같은 제3세계 국가들과의 문화교류가 활성화되었다는 점이다. 이는 주체사상의 공고화 과정에서 비롯된 비동맹국가에 대한 외교 강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3. 1970년대

가. 남한: 유신과 민족문화의 강조

남한에서 문화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1970년대부터라고 할 수 있다.¹²²⁾ 1972년에는 문화정책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문화예술진흥법’이 제정되었으며, 1973년에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특수법인 형태로 설립되어 본격적인 문화예술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경제개발계획과 유사한 형태로 ‘제1차 문예중흥 5개년계획’이 1974년부터 시작되었다. 문화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는 것은 이시기 주요 문건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1972년 개정된 제4공화국헌법(유신헌법)에서 문화와 관련된 부분은 구헌법과 대동소이하다(전문, 19조). 그러나 1971년 제7대 대통령 취임사에서 박정희는 “선대의 빛나는 전통과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문예와 학술의 적극적인 창달로 문화한국 중흥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다할 것” 이라고 천명하였고,¹²³⁾ 유신이후 개정된 민주공화당의 정강(1973)은 총 7항으로 이루어져있는데, 이 가운데 “국민교육헌장의 이념으로 생산적 인간성을 함양하고 새

12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19;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2」(서울: 공동체, 1986), pp. 288~289; 「문화과학」편집위원회, “지배문화정책 분석을 위한 제언,” 「문화과학」, 2호 (1992 겨울), p. 292.

123) 박정희, “제7대 대통령 취임사”(1971. 7. 1),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6: 제7대편」(서울: 대한공론사, 1973), p. 5.

역사관을 정립하여 민족정기를 높인다”는 3항과 “고유의 문화를 창조적으로 개발·육성하고 과학기술을 진흥시켜 문화수준의 향상을 기한다”라는 6항이 문화와 연관되어있다.¹²⁴⁾

1971년 7대 및 8대 대통령 선거에서 “문화예술인의 권익을 보호하고 자발적인 창작활동을 적극지원하며, 유형 무형의 문화재를 더욱 개발하고 민족문화의 전승과 발전을 이룬다”는 공약을 발표하였던¹²⁵⁾ 민주공화당은 1972년 제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도 민족문화의 창달로 국민정신을 순화한다는 제목 하에 예술인의 권익 보호와 창작 활동 지원, 예술인구의 저변 확대, 고유문화 개발을 통한 민족 긍지 향상 등을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¹²⁶⁾ 문화예술진흥기반의 확충, 문화유산의 보존관리, 국학의 진흥, 창작·공연 활동의 지원, 지방문화권의 중점육성, 지방문화재의 보존, 군 단위 문화센터의 육성지원, 대중문화의 육성, 방송·무대예술의 지원, 공공도서관의 증설, 체육활동의 보장 및 체육시설 확충, 체육인의 처우개선 등은 1978년 1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공화당이 제시한 문화 관련 선거공약이다.¹²⁷⁾

대통령과 집권층의 문화에 대한 관심이 구체화된 것이 ‘제1차 문예진흥계획’이라고 할 수 있다. 제1차 문예진흥계획은 전통문화를 계승하며 그 바탕 위에 새로운 민족문화를 창조

124) 「대한민국 정당사 2집」(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1), p. 74.

125) 「대한민국 정당사 1집」, p. 412

126) 「대한민국 정당사 2집」, p. 77.

127) 위의 책, pp. 167~168.

하는 것을 기본 목표로 삼고 첫째, 올바른 문화사관을 정립하고, 새로운 민족예술을 창조하며 둘째, 예술의 대중화로 국민의 문화수준을 높이고 셋째, 국제적으로 문화 한국의 국위를 선양한다는 것에 정책 목표를 두었다.¹²⁸⁾ 문예진흥계획 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총 485억원이 투자되었는데, 1975년에는 12.2%, 1976년에는 14.8%, 1977년에는 12.5%, 1978년에는 76.6%씩 투자액수가 전년도에 비해서 늘어났다. 이 기간 중 총 투자의 70.2%가 '민족사관 정립'이란 목표하에 국학, 전통예술, 문화재 부문에 집중되었다.¹²⁹⁾

1972년도에 제정된 '문화예술진흥법'은 1970년대 문화정책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법은 "문예예술의 진흥을 위한 사업과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문화예술을 계승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며 민족문화의 증흥에 기여함"을 목적(제1조)으로 하고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시책을 강구하고, 국민의 문화예술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제3조)라고 하고 있다. 문화예술진흥법은 국가가 문화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것임을 천명하는 동시에 문화의 역할(민족증흥에 기여)과 문화의 방향(전통문화 계승, 새로운 문화창조)을 규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술진흥법 이외에도 문화관련 입법이 정비되어, 1973

128)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p. 225.

129) 위의 책, p. 227.

년에는 ‘외국간행물 수입배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66년에 제정된 영화법은 1973년에 개정되었으며, 1961년에 제정된 공연법은 1975년에 전면 개정되었다. 또한 ‘문예활동 수입에 대한 소득세 감면제도’가 마련되고(소득세법 49조, 5조, 66조) 1977년에는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는 소득세와 법인세를 면제토록 하여(조세감면법 49조) 문화에 대한 민간기금의 모금이 가능하게 되었다.¹³⁰⁾

1970년대에는 각종 문화관련 단체들도 만들어졌는데 대표적인 것이 ‘문화예술진흥위원회’와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다. 문화예술진흥법 제5조에 의거한 문화예술진흥위원회는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문예정책 심의기구이다. 비록 1973년과 1977년 두차례만 개최되는 등 실질적인 역할은 거의 없었지만, 설립 자체가 문화정책이 여타 정책범주만큼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것을 형식적 수준에서 보장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¹³¹⁾

문화예술진흥법 제6조에 의거하여 1973년에 설립된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문화정책 추진과정에서 가장 핵심적인 문화조직으로 ‘민족문화의 계승 발전과 문화예술의 연구, 창작, 보급활동 지원을 통한 문화예술의 진흥’이라는 목표를 갖고 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은 각종 공연장과 고궁 및 박물관

130)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개념틀과 분석,” 『한국행정학보』 25권 4호 (1992), p. 238.

131)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p. 294.

이용객에게서 일정 기금을 모금하고, 기타 기금조성사업의 수익을 재원으로하여 문학, 미술, 음악, 연극 등 각 부문별로 자금지원을 하였다.¹³²⁾

이 밖에 1973년에는 ‘영화진흥공사’가 설립되었고, 1966년 설립된 ‘한국예술문화윤리위원회’는 1975년에는 ‘공연윤리위원회’로 대체되었다. 또한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부설 미술관과 극장이 건립되고, 경주, 광주, 공주에는 박물관이 세워졌으며, 세종문화회관이 1978년에 준공되었다.

〈표 5〉 1970년대 남한 문화정책 관련 시안

연 대	내 용	비 고
1972	한국문화예술진흥법	법
1973	문화예술진흥사업	정책시행
	외국간행물 수입배포	법
	영화진흥공사	기 관
	문화의 날	기 념 일
1975	공연윤리위원회	기 관
1976	대한민국문학상, 대한민국음악제	상·행사
1977	문예진흥기금에 대한 기부금에 대하여 소득세와 법인세 면제	정책시행
	대한민국연극제, 대한민국작곡상	행사·상
1978	문예진흥원 부설 미술관과 극장	시 설
	세종문화회관	시 설
1979	대한민국무용제	행 사

132)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p. 48~49.

1970년대에는 각종 문화행사나 문화에 관련된 상의 숫자도 급격히 증가한다. 1973년에 ‘문화의 날’선정을 필두로, 1976년에는 ‘대한민국문학상(문예진흥원)’과 ‘대한민국음악제(문화공보부)’가 제정되었고, 1977년에는 ‘대한민국연극제(문예진흥원)’ 및 ‘대한민국작곡상(문예진흥원)’이 제정되었다. 그리고 1979년에는 ‘대한민국무용제(문예진흥원)’이 개최되기 시작하였다(표 5 참조).

남한의 문화정책에서 1970년대는 하나의 분수령이었다고 할 수 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종합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되었고(문예진흥 5개년계획), 실질적인 투자가 진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관계법령이 정비되었으며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을 비롯한 단체들이 신설되었고, 정부가 주도하는 문화행사가 개최되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적인 정비보다 문화정책의 방향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박정희 대통령은 문화의 역할과 지향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

문화와 예술은 국력의 상징인 동시에 국가발전의 정신적 지주입니다... 나라가 어려웠을 때 최고의 지성인 문화예술이 앞장서서 민족을 일깨우고 국난을 극복했던 무수한 기록들을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문화예술도 민족적 대아와 자주성에 입각해서 국민 정신을 개발하고 민족의식을 제고하여, 민족번영의 향도적 역할을 담당할 시기에 이르렀습니다(“1974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시정연설,” 1973. 10. 4).¹³³⁾

우리는 민족중흥의 역사적 전환기에 처하여 새로운 문화창조의 사명을 절감한다. 한겨레의 운명을 결정짓는 근원적 힘은 그 민족의 예술적 문화적 창의력이다. 예술이 창의력을 잃었을 때 겨레는 침체되고 문화가 자주성을 찾았을 때 나라는 흥한다. (“문예중흥선언,” 1973. 10. 20)¹³⁴⁾

앞의 인용문을 통하여 문화를 체제발전의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인식이 뚜렷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문화도 넓은 의미에서 정치의 한 부분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에 대한 높아진 관심은 문화부문에 대한 예산의 증가와 각종 문화정책의 시행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의 정립’이 문화정책의 이념으로 확실해진 것도 이 시기라고 할 수 있다. 문예중흥 5개년계획의 가장 중요한 중점 목표가 “올바른 민족사관의 정립과 새로운 민족예술의 강조”이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문화예산의 상당부분이 문화재 발굴, 보존 및 진흥 등에 투입되었다.¹³⁵⁾

문화정책의 역할이 규정되고 방향이 정립된 것은 1972년의 ‘10월 유신’의 성립과 관련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적 민

133)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7: 8대편·상」(서울: 대한공론사, 1973), p. 152.

134) 문화공보부, 「문화공보 30년」, p. 450.

135) 1차 문예진흥 5개년계획에서 투입된 자금의 70.2%가 ‘민족사관정립’에 투입되었다. 구체적인 구성은 ‘문화재’ 분야에 63.1%, ‘전통예능’ 분야에 3.8%, ‘국학’ 부문에 3.3%이다. 2차 문예진흥계획에서는 전체 항목의 이름이 ‘민족사관정립’에서 ‘전통문화의 개발’로 바뀌었는데 이 분야에 50.6%의 예산이 집행되었다. 「문화진흥백서: 1981~1985」(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pp. 22~23; 「문화공보 30년」, p. 232.

주주의를 내세운 유신헌법은 서구적 민주주의를 비판하고 주체적인 정치체제를 강조함으로써 정당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정치체제의 독자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문화 차원에서도 주체성을 강조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문화를 증시하는 문화정책을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유신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하기 위하여 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¹³⁶⁾

1970년대에도 국가가 문화에 대한 간섭하는 양식은 1960년대와 마찬가지로 지원과 규제라는 두 가지 방식으로 이루어졌으나 그 방식이 보다 구체화되었고 개입의 정도가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국가는 각종 단체의 설립을 지원하였을 뿐만 아니라 창작을 지원함으로써 문화의 내용에도 관여하기도 하였는데. 당시 영화계의 가장 큰 이권이었던 외화수입권을 배당하는 과정에서 활용된 ‘우수영화 시상’이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우수영화의 선정 기준이 ‘유신이념의 구현,’ ‘민족주체성 확립,’ ‘새마을 운동에 적극 참여케 하는 내용,’ ‘조국 근대화를 위하여 헌신 노력하는 산업전사 소재,’ ‘국민의 총화와 단결’ 등으로 삼아 지배체제를 정당화하는 내용의 영화를 제작하도록 유인하였다. 이외에도 각종 문화관련 상의 시상과 공연을 주관하는 과정에서 시상 작품 및 지원 작품을 선별함으로써

136) 우수영화 선정 기준 18가지 중 첫번째가 10월유신을 구현하는 내용이었다. 이영일, “영화정책 20년,” 「월간영화」(1981. 1), p. 34.

체제이념과 부합하는 문화 창작을 장려하였다.¹³⁷⁾

‘방송윤리위원회,’ ‘신문윤리위원회,’ ‘도서잡지주간신문윤리위원회,’ ‘공연윤리위원회’ 등의 각종 윤리위원회와 문공부 내의 각급 ‘심의관제도’ 그리고 각종 문화예술 관련법에 포함되어 있는 검열기준도 국가가 문화를 통제하는 기제들이라고 할 수 있다. 작품활동의 통제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와 같은 간접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지기도 하였으나, 때로는 문공부가 영화상영을 금지하는 등 직접적으로 통제하기도 하였으며,¹³⁸⁾ 각종 필화사건에서 볼 수 있듯이 공권력이 작품활동에 직접 개입하기도 하였다.¹³⁹⁾ 이밖에도 문공부는 외국간행물의 수입 배포를 조절함으로써 외부문화의 유입을 통제하기도 하였다.

나. 북한: 3대혁명과 주체문화의 완성

1970년대에 북한은 헌법을 개정하는 등 체제를 전반적으로 정비하였다. 1972년에는 헌법개정과 더불어 제5차 로동당 당대회가 열렸으며 1977년까지 6개년계획이 수행되었다. 사상·기술·문화의 3대혁명이 추진되었고, 주체사상화가 강력하게 진행되어 유일사상체계가 확고하게 되었다. 또한 김정

137)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pp. 298~299.

138) 문공부는 각종 문화단체의 허가과 취소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문화활동에 대하여 강력한 통제능력을 갖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위의 책, p. 300.

139) 필화사건 중에는 성적인 문제로 인하여 야기된 것도 있었으나 대부분이 국가나 국가원수에 대한 비방과 같이 정치적 문제와 연관된 것들이 많았다. 1970년대에의 필화사건들에 대해서는 윤재휴, “문인필화 30년 총정리,” pp. 251~259 참조.

일은 1974년 2월 12일 당중앙위 제5기 8차 전원회의에서 김일성의 유일한 후계자로 추대되어 주체사상의 김일성주의화와 3대혁명소조 및 속도전을 주도하게 된다.

〈표 6〉 1972년 북한 헌법의 문화관련조항

조 항	내 용	비 고
제35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가 개화 발전한다.	문 화
제36조	문화혁명을 수행·모든 근로자를 사회주의 공산주의 건설자로 만든다.	문 화
제37조	조선 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사회주의근로자들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화건설·제국주의의문화적 침투반대·민족문화유산 보호	문 화
제38조	국가는 새로운 사회주의적 생활양식 확립	문 화
제39조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를 구현하여 공산주의적 새인간으로 키움	교 육
제40조	국가는 인민교육사업과 민족간부양성사업 주도	교 육
제41조	국가는 10년제 의무교육실시	교 육
제42조	국가는 학업전문의 교육체제와 일하면서 공부하는 교육체제 확립	교 육
제43조	국가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1년간 학교전 의무교육 실시	교 육
제44조	국가는 과학기술발전촉진	교 육
제45조	국가는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주체적이며 혁명적인 문학예술 발전시킴. 작가, 예술인들의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근로대중의 문예활동 유도	문 화
제49조	국가는 우리말을 제국주의세력으로부터 보호	문 화
제47조	국가는 근로자의 체력을 증진하고 국방체력강화	체 육
제48조	국가는 전반적 무상치료제 공고화	의 료

1972년에 개정된 북한 헌법에는 문화에 대한 장이 독립되어 있다. 문화를 다루고 있는 개정 헌법 제3장은 35조에서 48조까지 총14조로 이루어져있다(표 6참조). 개정된 헌법에 의하면 북한 문화의 목표, 이념지향, 국가의 역할이 명확히 규명되어 있다. 즉, 북한 문화가 지향하는 것은 사회주의적 민족문화이며,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을 담은 문학 예술 작품을 표준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이념을 토대로 국가는 창작활동을 장려하고 일반인의 문예활동을 보장하는 정책을 지향하여야 한다고 점이 명확히 제시되었다.

헌법개정후 개최된 제5기 최고인민위원회 1차회의에서 행한 김일성의 연설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도 문화의 역할이나 문화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우리 당과 공화국 정부는 사람들을 교양개조하는데서 로동계급의 사상성과 조직성, 문화성을 높이고 로동계급을 본보기로 하여 농민과 인테리를 교양개조하는 원칙을 시종일관 견지하였습니다.

사회주의 사회에서는 문학예술도 찬란히 개화 발전합니다. 사회주의 제도는 주권과 생산수단 뿐 아니라 문학예술도 인민의 것으로 만듦으로써 문학예술 발전의 넓은 길을 열어 놓았으며 문학예술이 근로 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참다운 문학예술로 되게 하였습니다(“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 1972. 12. 25).¹⁴⁰⁾

140)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p. 487~509.

개정된 헌법과 김일성의 연설을 통해서 사회주의교양이 문화정책의 목표이며, 북한에서는 주민들의 광범위한 참여를 추구하는 문화정책을 지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문화의 대중화라는 명목 하에 이 기간에도 다양한 문화시설이 설립되었다. ‘당창건 기념관’이 1970년에 건립되었고, 1948년에 세워졌던 ‘조선혁명박물관’은 1972년에 신축 개관되었다. 1974년에는 ‘인민문화궁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과 ‘3대 혁명전시관’이 그리고 1975년에는 ‘2·8문화회관’이 건립되었고, 1977년에는 ‘만수대예술극장’이, 1978년에는 ‘국제친선전람관’이 그리고 1979년에는 ‘삼지연 혁명사적관’이 건립되었다. 또한 1971년에는 평양음악대학이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 개편 증원되었고, 1972년에는 ‘모란봉예술단’이 ‘평양예술단’으로 개편되었다. 또한 1972년에는 ‘김일성 상’이 제정되어 문화부문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표 7 참조)

1960년대에 이어 1970년대에도 해외문화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다. 피바다 가극단, 평양교예단, 평양만수대예술단, 평양예술단, 평양학생소년 예술단 및 국립교향악단이 일본, 중국, 싱가포르, 버마, 인도 등의 아시아 각국, 루마니아, 프랑스, 이탈리아, 소련 등의 유럽 각국 및 아프리카와 중동지역에서 공연을 가졌다. 1972년에는 국제영화축전에 참가하였으며, 1973년에는 베를린에서 개최한 제10회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참가하였다.¹⁴¹⁾

141)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참조.

민족문화유산에 대한 관심도 지속되는 데, 1975년까지 역사유물 3,200여개소가 정비되고 유적 11만 9천여건이 재평가된다.¹⁴²⁾

1970년대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특기할 만한 것은 언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고, TV를 중시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북한의 표준어인 ‘문화어’는 1966년부터 강조되기 시작하였는데¹⁴³⁾ 1970년에 김일성이 “우리는 사회주의 민족문화의 찬란한 개화발전을 위하여, 우리 민족의 무궁한 번영을 위하여 미제와 그 앞잡이들이 민족어 말살정책으로부터 우리 말을 지켜내기 위한 투쟁을 전민족적 운동으로 힘있게 벌려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한 이후에¹⁴⁴⁾ 언어는 더욱 중시되었다. 문화어에 대한 관심이 결집된 것인 1973년에 사회과학원 언어연구소에서 편찬한 「조선문화어사전」(평양: 사회과학출판사)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같이 문화어를 강조한 것은 남한 언어가 외래문물에 훼손되었음을 부각함으로써 북한이 상대적으로 민족문화를 잘 보존하고 있음을 보여주기 위해서라고 할 수 있다.

김일성이 “근로자들의 문화기술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출판

142) 「조선중앙년감 1976」(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76), p. 361.

143) 문화어는 다음의 글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김일성, “조선어의 민족적 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1966. 5. 14), 「김일성저작집 20」(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p. 343.

144) 김일성, “조선로동당5차대회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1970. 11. 2),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48.

물보급사업과 방송사업을 개선 강화하며 특히 텔레비전방송망을 더욱 늘여 가까운 년간에 온 나라의 텔레비전화를 실현하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말하면서¹⁴⁵⁾ TV에 대한 관심도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김정일은 1974년 5월 7일에 “주체적 출판보도강령”을 발표하였고, 이후 TV방송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이 시행되어 1969년에 실질적으로 완공된 ‘평양TV방송국’이 1970년에 ‘조선중앙TV방송’으로 개명하게 된다. 조선중앙방송은 1971년에 녹화방송을, 1974년에는 부분적인 천연색방송을 그리고 1977년에는 전면적 천연색방송을 실시하게 된다. 그리고 개성 TV방송국이 1971년에 개국한다.¹⁴⁶⁾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성격은 이전 시기와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1970년대 북한의 문화정책은 몇 가지 점에서 독특성을 보이고 있다.

첫째, 3대혁명의 한 과정으로 문화정책이 다루어졌다는 점이다. 1973년 9월 개최된 조선로동당 제5기 7차전원회의에서 기존의 사상·기술·문화혁명을 하나로 묶어 3대혁명으로 명명한 후, 3대혁명은 북한체제의 궁극적인 발전목표가 되었다.¹⁴⁷⁾ 김일성은 문화혁명을 “생산문화와 생활문화의 개

145) 위의 책, p. 46. 5차 당대회의 문화예술분야 토론과정에서도 TV의 중요성이 다시 강조된다. “박영신토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 p. 890.

146)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2」, p. 341.

147) 1950년대부터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은 개별적으로 언급되었다가. 1964년 김일성의 “사회주의 농촌테제”에서 처음으로 동시에 언급되었다. 1970년 11월 조선로동당 제5차대회에서 사회주의의 완전한 승리를 위한 기본과업으로 규정되고 다시 1972년 개정헌법에 명문화되었다.

선 운동”으로 표현하고 있는데,¹⁴⁸⁾ 북한에서는 이를 낡은 사회의 문화적 낙후성을 없애고 노동계급의 새문화를 창조하여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문화적으로 살며 일하게 만드는 것으로 개념정의하고 있다. 문화혁명의 근본 목표는 전사회를 인테리화하는 것이고 이를 위해서 교육사업을 발전시키는 것이며, 문화혁명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서는 사회주의적 민족문화 건설노선을 철저히 관철하고 문화건설에서 민족적 특성을 옹기 살리고 노동계급의 이념과 요구를 구현하며 제국주의의 문화적 침투를 막아내고 복고주의적 경향을 극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다.¹⁴⁹⁾

문화혁명에서의 문화 논의는 기존의 논의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문화혁명을 독자적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상혁명 및 기술혁명과 결합하여 추진한다는 점이 3대혁명의 특징이다. 이것은 문화를 정치(사상혁명) 및 생산(기술혁명)과 연계시킨 것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⁰⁾ 이러한 정책방향을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예술선전대’ 활동의 강조이다. 생산현장에서의 공연을 통하여 근로의욕을

148) 김일성,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치자”(1973. 3. 14), 「김일성 저작선집 6」(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4), p. 439.

149) 문화혁명, 「백과전서 2」(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p. 809.

150) 김일성은 “문화혁명의 중요한 과업은 근로자들의 전반적 기술문화수준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근로자들이 한가지 이상의 기술을 소유하며 일반지식수준을 한계단 더 높이도록 하기 위하여 투쟁하고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김일성, “조선로동당·공화국정부의 대내외정책 몇가지 문제에 대하여”(1971. 9. 25), 「김일성 저작선집 6」, p. 83

고취하는 것을 목적으로 조직된 예술선전대의 활동이 1970년대 후반부터 활발해진다.¹⁵¹⁾ 따라서 1960년대까지 북한의 문화가 주로 정치적인 기능을 수행했다고 한다면, 1970년대에는 문화를 노력동원화에 활용함으로써 문화의 경제적 기능도 증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둘째, ‘주체문예이론’이 본격화된다는 점이다. 1960년대 후반의 문학계의 반종파투쟁을 통해 카프 전통과 단절한 북한은 주체문예이론을 정립하게 한다. 북한에서 주체문예이론은 “가장 과학적이고 혁명적인 세계관이며 혁명과 건설의 유일하게 정확한 지도사상인 주체사상에 기초하여 새형의 혁명적이며 인민적인 문학예술, 주체적인 사회주의문학예술을 건설하고 창조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모든 리론실천적문제들에 독창적이고도 심오한 과학적 해명을 줌으로써 로동계급의 혁명적문예리론에서 전혀 새로운 경지를 개척하고 새시대의 참다운 문학예술이 나아갈 가장 올바른 길을 밝혀주는 정확한 지도지침”이라고 정의하고 있다.¹⁵²⁾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운다는 것은 인민의 민족적 정서와 감정, 기호에 맞는 작품을 창작하는 것이기 때문에,¹⁵³⁾ 주체

151) 예를 들어 1975년의 경우 무대공연 1,620회, 현장공연 2,650회, 1977년의 경우 무대공연 2,053회, 현장공연 3,687회나 수행하였다고 한다. 「조선중앙연감」 각년도 참조.

152)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p. 1.

153) 위의 책, p. 51.

문예이론에서는 예술의 형상성을 민족적인 정서와 감정에 맞추는 민족적인 문학형식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민족적 형식 못지 않게 사회주의적 내용도 중요한데 왜냐하면 문학예술에서 주체를 세우는 목적은 ‘인민과 혁명을 위하여 복무하는 문학예술을 건설’ 하는데 있으며, 문학예술은 ‘근로자들이 시대의 선진사상으로 무장시키는 생활의 참다운 교과서’가 되는데 있기 때문이다. 주체문예이론에서 이야기하는 사회주의적 내용은 낡은 것을 없애고 새것을 창조하는 투쟁, 착취계급과 사회를 반대하는 투쟁, 인민들의 이익을 옹호하며 모든 사람이 잘살도록 하는 투쟁과 같은 혁명적인 내용을 의미한다.¹⁵⁴⁾

주체문예이론의 민족적인 형식은 전통적인 민족문학의 형식이나 전통양식의 현대적 재조명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적 형식은 김일성이 항일유격대 시절에 창작하거나 지도하였던 문학예술형식을 의미한다. 마찬가지로 사회주의적 이념은 보편적인 노동자계급의 이데올로기가 아니라 김일성 유일사상이다. 그러므로 주체문예이론에서는 항일혁명문학의 전형성이 더욱 강조된다.

주체문예이론을 구체화하기 위하여 1970년대에는 혁명문학예술 창조에 박차가 가해진다. 북한에서 5대혁명가극인 ‘피바다(1971),’ ‘당의 참된 딸(1971),’ ‘꽃파는 처녀(1972),’ ‘밀

154) 위의 책, pp. 69~70.

림아 이야기하라(1972), '금강산의 노래(1973)' 등이 창작 공연되고, 혁명연극을 대표하는 '성황당'이 1978년에 초연된다. 소설에 있어서도 항일혁명문학을 대표하는 '불멸의 력사'총서가 1972년부터 발간되기 시작한다(표 7 참조).

〈표 7〉 1970년대 북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도	내 용	비 고
1970	당창건 기념관	시 설
	평양TV 방송국이 조선중앙TV방송으로	시 설
1971	평양음악대학이 평양음악무용대학으로	교육기관
	피바다, 당의 참된 딸	창작 공연
1972	헌법개정	법
	조선혁명박물관	시 설
	모란봉예술단이 평양예술단	단 체
	김일성 상	상
	꽃파는 처녀, 밀림아 이야기하라	작 품
	불멸의 력사	작 품
1973	금강산의 노래	작 품
1974	인민문화궁전, 조국해방전쟁 승리기념관 과 3대 혁명전시관	시 설
	주체적 출판보도장령	법
	부분적인 천연색방송	실 시
1975	2·8문화회관	시 설
1977	만수대예술극장	시 설
	전면적 천연색방송	실 시
1978	국제친선전람관	시 설
1979	삼지연 혁명사적관	시 설

셋째, 김정일이 주장하는 ‘종자론(種子論)’이 문학예술창조의 지침이 된다는 점이다. 주체문예이론의 구현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한 김정일은¹⁵⁵⁾ 1973년 「영화예술론」을 출판하면서 종자론을 적극적으로 주장한다.¹⁵⁶⁾ 김정일은 “종자란 작품의 핵으로서 작가가 말하려는 기본문제가 있고 형상의 요소들이 뿌리내릴 바탕이 있는 생활의 사상적 알맹이”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종자는 소재와 주체, 사상을 유기적인 련관속에서 하나로 통일시키는 작품의 기초이며 핵”이라고 말하고 있다.¹⁵⁷⁾ 종자는 작가의 소재 선택, 이야기의 전개 및 묘사, 주체의 형상화 그리고 미학적 감동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써 작품의 창작과 작품에 대한 평가의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

종자론에서 중요한 것은 종자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¹⁵⁸⁾ 종자의 선택기준은 당정책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형상

155) 1970년대에 발표된 혁명가극을 포함한 소설 및 영화 창작을 김정일이 직접 지도하였다고 한다. 류만, 「당의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문학예술」(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4장 “다양한 문학예술형태의 전면적 발전” 참조.

156) 북한에서 ‘종자’란 말은 1972년의 문학예술사전에서 처음 등장하였다. 「문학예술사전」, pp. 769~771. 여기에서는 종자를 주체문예이론의 구현과정에서 파생된 새로운 개념으로 소개하고 있다. 독자적인 문예이론으로 정립된 것은 이듬해 나온 김정일의 「영화예술론」에서이고 그 이후 북한에서는 종자론의 창시자로 김정일을 들고 있다.

157) 김정일,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 1972~1973」(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p. 114.

158) 김정일은 “종자를 똑똑히 골라잡지 않고서는 그 어떤 주제에 대해서도 말할수 없다”라고 하고 있다. 위의 책, p. 115.

으로 구현할 수 있어야 하고, 새롭고 특색이 있는 것이야 한다고 이야기한다.¹⁵⁹⁾ 그러나 이중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종자의 사상적 성격 즉 정치적 의의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당의 이념에 부합되는 종자의 선택이 작품창작의 일차적인 관건이 된다.

종자론이 주체문예이론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아니다. 다만 주체문예이론이 순수 문예이론에 가깝다고 한다면, 종자론은 상대적으로 문학예술의 창작과 관련된 구체적인 실천강령에 가깝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종자론의 확산은 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다. 종자론이 사상적 알맹이를 중시함으로써 작품창작에서 사상성이 더욱 중요해졌으며, 사상적 알맹이를 당의 정책 곧 김일성 유일사상으로 한정함으로써 사상적 획일화가 더욱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 종자론은 창작과정과 같은 문화생활의 미시적인 차원에까지 당과 국가가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의 북한 문화정책은 이전 시기의 전통을 이어받으면서도 이론적이고 실천적인 차원에서 보다 정교해졌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학예술이 ‘3대혁명’과정 뿐만 아니라, ‘3대혁명 붉은기 쟁취운동,’ ‘3대혁명소조운동’에도 개

159) 위의 책, pp. 118~123;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pp. 76~95.

입함으로써¹⁶⁰⁾ 정치, 경제, 사회적으로 문화의 역할이 더욱 커졌다고 볼 수 있다.

4. 1980년대

가. 남한: 문화복지정책의 추구

1980년대는 제5공화국과 6공화국 초기에 해당하는 시기로 서 정부에서 이 기간을 문화정책상 도약기라고 하고 있다.¹⁶¹⁾ 18년에 이르는 박정희시대가 종언한 이후 권력을 차지한 새로운 집권층은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였다. 특히 ‘선진조국창조’를 정권의 목표로 내세우고 삶의 질의 향상을 지향함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¹⁶²⁾

1980년에 개정된 5공화국헌법에서는 8조에 “국가는 전통 문화의 계승·발전과 민족문화의 창달에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44조에서는 대통령이 취임선서시에 “민족

160)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된 대중운동이며, 3대혁명소조운동은 1973년부터 시작된 조직운동으로 3대혁명을 구현하기 위한 실천적인 운동이라고 할 수 있다. 「백과전서 3」(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3), pp. 596~599. 예술소조의 경우 1975년도에 총인원이 1,188명으로 대중 공연과 대중에 대한 지도를 활발히 하였고 3대혁명붉은기쟁취운동에도 적극 참여하였다. 「조선중앙년감 1976」, pp. 359~360.

161) 문화부,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1992」(서울: 문화부, 1992), p. 27;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21.

162)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p. 80.

문화의 발전”을 국민 앞에 다짐하도록 명확히 하고 있다. 이러한 헌법정신에 바탕을 두고 1980년대 4대 국정지표의 하나로 ‘교육혁신과 문화창달’이 포함되게 된다. 전두환대통령은 1982년도의 시정연설에서 “문화예술은 국민정신의 원천이며,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다”라고 하고 있으며, 1984년도 시정연설에서는 “문화를 창조하는 힘은 국가발전의 원동력이며 선진조국의 정신적 지주이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⁶³⁾

집권당이었던 민주정의당의 창당발기문에서는 “우리는 민족문화의 주체성과 창조성을 함양하고 교육의 기회 확대와 혁신을 통하여 창조적인 인간개발에 힘쓰고자 한다”라고 하고 있으며, 강령 8조에 “자주적이고 창조적인 민족문화를 계승 발전시킨다”라고 하고 있고, 기본정책 22항에서 “민족문화예술의 계승발전과 창조성 함양에 노력하고 외래문화를 선별적으로 수용하며 적극적인 문화진흥과 지방문화시설의 확충으로 격조 높은 문화를 널리 보급한다”라고 하고 있다.¹⁶⁴⁾ 1981년 11대 총선의 공약에서도 “전통문화를 계승발전하여 민족의 긍지를 높이고 국민정신을 순화한다,” “문화·예술인의 창작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국제문화교류를 확대하여 국위를 선양한다,” “중앙과 지방의 문화격차를 해소하고 건전한 대중문화를 육성한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¹⁶⁵⁾

163) 위의 책, pp. 30~31.

164) 「대한민국정당사 3집」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pp. 76~82.

165) 위의 책, p. 106.

5공화국에서는 각종 문화관계 법령이 재정비되었다. ‘공연법’과 ‘음반법’이 1981년에 개정되었고, ‘문화예술진흥법’과 ‘문화재보호법’은 1982년에 개정되었다. 그리고 ‘영화법’은 1984년과 1986년에, ‘저작권법’과 ‘지방문화사업조성법’은 1986년에 개정되었다 이 밖에 ‘박물관법(1984),’ ‘전통건축물 보존법(1984),’ ‘유선방송법(1986),’ ‘독립기념관법(1986),’ ‘방송법(1987),’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1987),’ ‘방송문화진흥법(1988),’ ‘대한민국예술원법(1988)’이 새로이 제정되었다.

1986년에는 ‘독립기념관’이 개관되었고,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가 1986년에, ‘한국방송광고공사’는 1981년에 설립되었으며, 1980년에는 ‘한국문화재보호협회’가 발족되었다. 그리고 1984년에는 ‘예술의 전당’의 건설이 시작되었고, 1986년에는 국립현대미술관이 신축개관하는 등 문화시설의 확충도 이루어졌다.¹⁶⁶⁾

1987년도의 헌법개정 이후 직선제를 통하여 출범한 노태우정권의 문화정책은 5공화국의 문화정책과 크게 다르지 않다. 개정된 헌법에서 문화와 관련된 헌법조문도 대동소이하다.

노태우 대통령은 “학술, 문화예술 분야가 자유롭고 창조적인 활동을 통해 오늘의 문예부흥을 이룩하도록 정부와 사회는 넉넉한 바탕을 마련해 가야겠습니다”라고 하고 말하면

166) 「要錄 제5공화국」(서울: 경향신문사, 1987), pp. 447~47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p. 44~61.

서,¹⁶⁷⁾ “새 공화국의 가장 중요한 과업 중의 하나가 경제발전에 병행하는 문화발전이라는 것을 믿고, 문화부를 독립부서로 만들어 종합적인 문화예술 진흥책을 펼쳐 가겠다”고 하고 있다.”¹⁶⁸⁾ 이에 따라 문화를 전담하는 부서로서 문화부가 1990년에 신설되었다. 문화관련 법률로 ‘향교재산법’과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전통건조물 보존법’ 및 ‘정기간행물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1989년 개정되었고,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과 ‘도서관진흥법’이 1991년에 제정된다¹⁶⁹⁾(표 8 참조).

1980년대에 들어서서 문화정책은 국가정책의 중요한 부문으로 자리잡았다고 할 수 있다. 제5차경제사회발전 5개년 수정계획에 문화예술부문이 편입되었고,¹⁷⁰⁾ 1987년에 발표된 제

167) 노태우, “198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1988. 10. 4), 대통령공보비서실 편, 「민주주의의 시대, 통일을 여는 연대: 노태우대통령 1년의 주요연설」(서울: 동화출판공사, 1989), p. 157.

168) 노태우, “문화의 달을 맞아”(1989. 10. 2), 대통령 공보비서실 편, 「민주주의와 통일을 여는 길: 노태우 대통령 3년의 주요 연설」(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 p. 371.

169) 「자료 제6공화국: 노태우대통령 정부 5년」(서울: 공보처, 1992), pp. 569~580.

170) 경제사회개발 5개년계획에 편입된 문화부문은 다음과 같다. “생활의 질을 향상시켜 나가는데 있어서 문화예술의 진흥은 중요한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계획기간 중에는 그 동안의 민족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노력을 더욱 강화하고 양적으로 확대되어 온 예술분야의 연구 및 창작활동을 질적으로 향상시키면서 급속한 도시화와 산업화 과정에서 도입하고 있는 외래대중문화의 수용능력을 높이고 지역간·계층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해 나갈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백서: 1981~1985」(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p. 28.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에서도 문화예술분야가 독립되어 포함된다. 1980년대 문화정책의 특성은 정책의 대상을 전문적인 문화예술인으로부터 국민전체로 확대하였다는 점에 있다고 할 수 있다.¹⁷¹⁾ 이러한 정책방향은 전두환대통령의 다음의 말에 잘 나타나고 있다.

〈표 8〉 1980년대 남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도	내 용	비 고
1980	한국방송광고공사법	법
1982	사회교육법	"
	문화재보호법	"
1984	박물관 및 미술관진흥법	"
	전통건축물보존법	"
1985	한국출판금고	단 체
1986	독립기념관법	법
	유선방송관리법	"
1987	저작권법	"
	예술의 전당	단 체
	전통사찰보존법	법
	사료의 수집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
	정기간행물의 등록에 관한 법률	"
	한국방송공사법	"
1988	대한민국예술원법	"
	방송문화진흥위원회법	"
1990	문화부	기 관
1991	국립국어연구원	기 관

17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p. 22~23.

문화권의 신장을 위하여 지역과 계층, 그리고 세대간의 문화적인 격차를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둠으로써 문화발전의 혜택이 전국의 모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도록 해 나갈 것입니다(“1983년도 국정연설,” 1983. 1. 18).¹⁷²⁾

국민을 위주로 한 문화정책은 문화향수권 및 참여권의 확대로 이어졌다. 이를 위해서 중앙과 지방의 문화시설을 확충하였고,¹⁷³⁾ 대중문화를 지원하였다고 할 수 있다.¹⁷⁴⁾ 이와 같은 문화정책은 5공화국 정부의 정치적 구호인 ‘복지사회건설’이나 6공화국의 정치구호였던 ‘민주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¹⁷⁵⁾

1980년대 문화정책의 또 다른 특성으로 문화의 세계화를 지향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노태우 대통령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
- 172) 민정기 편, 「전두환대통령 어록: 영광의 새역사를 국민과 함께」(서울: 동화출판공사, 1987), p. 507.
- 173) 1984년에 지방문화중흥 5개년계획을 수립하고, 1984년에서 1988년까지 5개년 동안에 160억5천만원을 투입하여 시·도별로 일정 수준의 공연장·전시시설을 갖춘 종합문화회관 6개소의 건립을 지원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 백서」, pp. 99~100.
- 174) 프로야구를 비롯한 각종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도 이러한 맥락에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6공화국에서는 문화의 대중화라는 명분하에 움직이는 박물관, 움직이는 미술관 등의 「움직이는 문화프로그램」을 개발하였다. 「자료 제6공화국」, pp. 583~584.
- 175) 6차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의 문화부문의 정책기조의 첫번째가 문화복지의 구현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23. 6공화국에서는 문화민주화를 문화정책의 주요 성과로 주장하고 있다. 「자료 제6공화국」, p. 570.

우리 문화는 개방적이고 진취적이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대외지향적인 문화가 되어야 합니다. 외래문화를 받아들여 우리 것을 지키는 바탕 위에서 그것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키는 것이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라디오 주례방송, 1989. 10. 2).¹⁷⁶⁾

적극적인 해외문화의 수용이라는 정책목표에 따라 1980년대에는 한국문화재를 해외에서 전시하였고, 공연예술을 교류하였으며, 외국의 문화인사를 초빙하기도 하였다.¹⁷⁷⁾ 이와 같은 문화의 세계화는 기본적으로 1988년의 올림픽개최와 관련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의 홍보와 참가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문화교류의 필요성이 증대하였기 때문에 한국문화의 적극적인 소개와 해외문화의 유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에도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기본적인 이념은 민족주의라고 할 수 있다. 비록 전 시기에 비해서 해외문화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지만 여전히 5공화국 출범직후에 ‘민족사

176) 대통령 공보비서실 편, 「민주주의와 통일을 여는 길」, p. 369.

177) 1980년대의 대표적인 국제적 문화행사는 다음과 같다. 한일문화교류전(일본, 1980), 한국고대문화전(일본, 1983), 한국미술5천년전(영국·독일, 1984~1985), 조선통신사전(한국·일본, 1985~1986), 한국문화통신사 일본방문(1991~1992). 「요록 제5공화국」, pp. 507~517; 「자료 제6공화국」, pp. 598~599.

178) “선진조국 창조의 국가적 목표를 추구해 나아가고 있는 우리가 민족문화의 창달에 무엇보다도 큰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국가발전을 촉진하고 국민 생활의 향상을 이룩해 나가는 힘찬 활력이 바로 우리의 문화역량에서 샘솟기 때문입니다.” 전두환, “문화예술상 수상자들을 위한 오찬 격려사”(1985. 12 13), 민정기 편, 「전두환대통령 어록: 영광의 새 역사를 국민과 함께」, p. 501.

관정립특별위원회'를 설립하고 독립기념관 설립을 추진하는 등 전통문화의 보존과 민족문화의 창달이 문화정책의 첫 번째 자리에 있었다.¹⁷⁸⁾ 그리고 이를 토대로 '문화의 국민통합 기능'을 확대하고자¹⁷⁹⁾ 한다는 점도 지난 시기의 문화인식과 큰 차이가 없다고 할 수 있다.

정책담당자들은 '복지문화'와 '문화민주화'라는 구호 하에 문화의 다양성을 인정하였을 뿐만 아니라, 북한 및 사회주의 문화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개방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이전시기의 문화정책과의 차별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실제로 6공화국에 들어서서 '출판등록 전면 개방(1987),' '출판사 등록절차 개선(1988),' '간행물 납본제도 개선(1987),' '시판금지종용도서 해제' 및 '공산권 자료개방(1987),' '미수교국 예술작품 국내 개방(1988),' '월북작가 작품 해금 및 금지가요 해제(1987~1988),' '영화시나리오 사전심의 폐지(1987),' '무대공연물에 대한 각본 및 대본 사전심의제 폐지(1989)' 등 개방적인 정책이 이루어졌으며, 그동안 정부가 주관하였던 각종 문화행사의 민간이관이 이루어지기도 하였다.¹⁸⁰⁾

그러나 이와 같은 외관적인 개방조치를 실질적인 문화민주화라고 보기는 어렵다. 1980년 12월에 제정된 '언론기본법'으로 언론사가 강제로 통폐합되었고, 방송심의위원회, 공연윤

179) 정한도, "제5공화국의 문화치적: 개괄과 평가," 「요록 제5공화국」, p. 547.

180) 「제6공화국 실론: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④」(서울: 공보처, 1992), pp. 296~296.

리위원회 등을 통한 통제체제가 강화되었을 뿐만 아니라, 반체제적인 각종 공연에 대해서는 공권력을 투입하여 저지하였다.¹⁸¹⁾ 또한 문화공보부는 내규를 통하여 예산지원을 하는 산하단체의 운영에 대한 간섭과 규제를 하였으며, 납본필증 교부를 통하여 출판물에 대한 실질적인 사전 검열을 지속하였다고 할 수 있다. 개방적인 조치들이 시기적으로 주로 올림픽 개최를 앞두고 집중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1980년대의 개방적인 문화정책이 이전 시기의 이념적 지향과 본질적으로 다르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¹⁸²⁾

문화부문에 투입되는 자본이 급증하여 문화기반 시설의 투자가 확충되었고, 대중문화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다는 점은 분명히 이전 시기와 다른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헌법상에 문화부문을 부과되고 문화발전을 주요 국정지표의 하나로 삼은 결과 정부예산에서 문화부문이 차지하는 비율이 1980년도 0.23%였으나 1990년도에는 0.35%로 점증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¹⁸³⁾ 또한 문예진흥기금의 수입도 1986년의 182억7천4백만원에서 1990년에는 419억8백만

181) 1984년 연우무대의 '공해풀이,' 1985년 민중미술전람회의 '20대의 힘전' 등이 경찰에 의해 강제 저지 당하였다.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p. 307; 광대원, "한국 근대미술의 본질과 80년대 민족미술운동," 최열·최태만 편, 「민중미술 15년 1980-1994」 (서울: 삶과 꿈, 1994), pp. 84~85.

182) 올림픽에서 참가국의 문화행사가 병행되는 것이 관례이다. 따라서 미수교국이나 사회주의국가의 문화에 대한 해금이 이루어졌다는 것은 올림픽개최를 위해서 불가피한 정책이었다고 할 수 있다.

183)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 75.

원이나 될 정도로 급증하였고, 1981년부터 조성된 공익자금에서 문화에 지원되는 액수도 1983년의 94억원에서 1990년에는 519억원이 될 정도로 증가하였기 때문에¹⁸⁴⁾ 문화부문에 대한 경제적 지원이 활발해 질 수 있었다.¹⁸⁵⁾

문화에 대한 지원이 늘었다는 점은 그 자체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나, 동시에 적지 않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총예산의 0.4%에도 미치지 못하는 문화부문 예산은 절대액수가 부족하고,¹⁸⁶⁾ 국민의 부담이 포함된 광고비를 활용하거나(공익자금), 정책적으로 지원해야 할 공연장에서 기금을 모으고 있다는(문예진흥기금) 점은 문제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선별적인 자금지원을 통하여 친정부적인 문화예술단체를 활성화시키고,¹⁸⁷⁾ 체제에 동조하는 작품활동을 지원하였다는 점은 다양성이라는 민주주의적 가치에 토대를 둔 문화발전과는 거리가 있는 것이었다.

184) 위의 책, pp. 81~82.

185) 예를 들어 1981년에 원고료 지원금이 장당 850원에 불과하였으나 1985년에는 2,500원으로 3배 가까이 인상되었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백서」, p. 61.

186) 프랑스에서 1975년의 경우 중앙정부가 문화부문에 지출한 비용은 전체 예산의 2%였으며, 1981년에 지방정부의 예산에서 문화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은 지역에 따라 편차가 있으나 0.4%에서 11%까지 되었다. “문화확산을 위한 재원,”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재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pp. 294~297.

187) 사업비도 아닌 운영비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고 있는 예총의 경우가 대표적이다. 예총은 정부의 중요한 정치적 결정을 항상 지지하여왔으며, 예총의 주요 인물들은 정부 여당에 영입되기도 하였다. 예총의 문제에 대해서는 박종국, “한국문화정책의 기조와 방향,” pp. 62~63; 김양수, “예총의 어제와 오늘,” 「예술과 비평」 (1989 봄), pp. 164~172 참조.

나. 북한: 통제의 이완과 재강화

1980년에 조선로동당 6차대회를 통하여 김정일은 당중앙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당중앙위원회 비서국 비서, 당중앙군사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됨으로써 후계자의 지위를 굳히는 동시에 김일성과 더불어 실질적인 북한의 지배자가 되었다. 특히 주체사상의 해석을 중심으로 사상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김정일은 문화분야에서도 절대적인 영향력을 발휘하였다고 볼 수 있다.¹⁸⁸⁾

1970년대에 헌법개정과 아울러 문학예술부문에 대한 전면적인 정비를 끝낸 북한에서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전시기와 뚜렷하게 구별되는 특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¹⁸⁹⁾ 문학예술

188)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pp. 206~214. 1980년대 이후에 김일성이 전반적인 국가시책에 대한 연설에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독립적으로 문화예술분야에 이야기한 것은 거의 없다. 그리고 문화부분에 대한 김일성의 지도를 취급한 책에서도 1980년대 이후는 빠져있다. 리기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예술령도사」 참조. 반면에 김정일은 「친애하는 지도자 김정일동지의 문예이론 총서」(전40권)를 발간하였을 뿐만 아니라, 1980년대 이후 문화분야의 문헌이나 종사자들의 말에는 김정일의 지침이 가장 중요시된다. 김정일이 문화정책의 주도권을 획득한 것은 단순히 권력이양의 차원이 아니라고 할 수도 있다. 여타사회주의 몰락이라는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사상·문화 부분을 강조한 결과 이미 이 분야에 경력을 갖고 있었던 김정일이 문화부분을 관할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고 볼 수 있다. 박상천·김경웅·류보선,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p. 41.

189) 1960년대 유일사상체계 성립이후 문예정책은 거의 변하기 않았다는 견해도 있다. 좌담, “북한의 주체문예, 60년을 점검한다,” p. 39.

을 통하여 주체이론을 확산하고, 근로자들을 교양하겠다는 문화정책의 주안점과 군중문화를 확산하겠다는 정책수단 그리고 이를 위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구체적인 실천방안 등은 1960년대 이래 지속되어온 것들이다.¹⁹⁰⁾

또한 김일성 유일사상의 공고화에 기여하는 문학예술의 역할도 여전히 강조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정일은 “창작가, 예술인들은 경애하는 수령님의 위대성을 형상하는데서

190) 1980년대 문화정책에 대한 북한의 공식적인 견해는 다음의 두개의 글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우리 문학예술인들앞에는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께서 보고에서 가르쳐주신대로 사회주의 문학예술을 더욱 발전시킴으로써 온 사회를 주체사상으로 일색화하는 사업에 적극 이바지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사고 있습니다. 우리는 문학예술을 철저히 주체사상화하기 위하여 우선 자신들의 혁명화, 로동계급화를 계속 다그치면서 문학예술의 모든 분야에서 주체를 더욱 튼튼히 세우고,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드팀없이 관철해 나가겠습니다.” 조선로동당 6차 대회(1980. 10)에서의 토론 백인준, “문학예술 당 조직대표 백인준 토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346; “문학예술부문에서는 우리 당의 주체적인 문예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을 철저히 구현하여 우리의 전체 근로자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며 그들을 사회주의 완전승리를 위한 보람찬 투쟁과 창조적 로동으로 고무하는 사상예술성이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 하겠습니다. 이와 함께 문학예술활동을 대중화할때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 공장, 기업소들과 농촌, 어촌들에서 군중문화활동을 널리 발전시키며 근로자들의 예술적 재능과 창작열의를 남김없이 발양시키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문학예술을 더욱 개화발전시키기 위하여 문학예술의 창작기지들을 더 잘 꾸리는 한편 근로자들의 높아가는 문화적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문화시설을 새로 더 많이 건설하며 특히 공업지구들과 농촌마을들에 문화시설들을 더 잘 꾸리도록 하여야 하겠습니다.” 리근모,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발전 제3차 7개년(1987~1993) 계획에 대하여,”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집」, pp. 833~834.

이미 거둔 성과를 공고히 하면서 반세기가 넘는 수령님의 영광찬란한 혁명력사를 체계적으로, 전면적으로 깊이있게 더 잘 형상화하여야 하겠습니다”라고 하면서 수령형상문학을 독려하고 있다.¹⁹¹⁾ 이러한 차원에서 1970년대 항일혁명문학을 대표하는 5대 혁명가극에 이어 1980년대에는 5대혁명연극이 완성된다. 1978년에 초연된 ‘성황당’의 뒤를 이어 ‘혈분만국회(1984),’ ‘딸에게서 온 편지(1987),’ ‘3인일당(1987),’ ‘경축대회(1988)’ 이 공연되었다. 1972년부터 시작된 연작소설 ‘불멸의 력사’가 계속 출판되어 1988년에 해방전 부분이 완성되었고,¹⁹²⁾ 김일성의 항일운동을 소재로 한 10부작 영화 ‘조선의 별’이 1980년에서 1987년까지 완성된다.

이 기간에 새로 설립된 문화시설로는 주말에만 평양을 대상으로 방송하는 ‘만수대TV(1983)’와 ‘평양FM방송(1989)’이 있다. 또한 1983년에는 ‘왕재산경음악단,’ 1985년에는 ‘보천보경음악단’이 만들어졌고, 1984년에는 ‘윤이상 음악연구소’가 개설되었다. 그 동안 보여왔던 반종교적인 입장과는 달리 1980년대에는 교회가 잇달아 설립된다. 1988년에는 평양에 ‘봉수교회’가 그리고 1989년에는 ‘칠골교회’가 건설되었고, 1989년에는 ‘조선종교인 협의회’와 ‘조선천주교인협회’가 조직되었으며, 1990년에는 성경이 제작되었다.

191)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상을 일으키자” (1986. 5. 17), 김정일,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5: 1983~198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8), p. 396.

192) 해방 후 부분은 현재도 발간 중이다.

해외문화교류도 계속되는데, 만수대예술단, 평양학생소년예술단, 평양예술단, 조선청년예술단 그리고 조선인민군협주단 등이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 유럽 등에서 순회공연을 하였다. 1985년에는 일본 각지에서 ‘고구려문화전’이 개최되었고, 1987년에 평양에서는 ‘평양영화축전(비동맹영화제)’이 열려서 ‘어머니의 소원’이 대상을, ‘도라지꽃’의 오미란이 여우주연상을 수상한다.¹⁹³⁾ 또한 1985년에는 1차고향방문단에 동반한 예술단의 교환과 1990년 통일음악제를 통하여 남한과의 부분적인 문화교류를 시도하였다(표 9 참조).

〈표 9〉 1980년대 북한 문화정책 관련 사안

연 도	내 용	비 고
1982	6·4문학상	상
1983	만수대 TV	방 송
	왕재산 경음악단	단 체
1984	윤이상 음악연구소	기 관
1985	보천보 경음악단	단 체
1987	딸에게서 온 편지, 3인일당	작 품
	평양영화축전(비동맹영화제)	교 류
1988	경축대회	작 품
	봉수교회	종교시설
1989	평양FM	방 송
	칠골교회	종교시설
1990	성경발간	출 판
	송년음악제	교 류
1980~1987	조선의 별	작 품

193) 「조선중앙년감」 각년도 참조.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도 지속된다. ‘리조실록’번역에¹⁹⁴⁾ 이어 1986년에는 팔만대장경이 완역되었고, 같은 해에는 민족기악 연주대회가 개최되기도 하였다. 또한 4월과 11월을 문화유적애호월간으로 지정하여 문화유적에 보존을 강조하였다.

군중문화를 강조하기 위해서 1982년에는 ‘6·4문학상’을 제정하여 일반인들의 참여를 강조하였고, 예술소조축전을 개최하였다. 예술선전대의 활동도 지속되었는데 1984년의 경우 광산 80여개소, 기업소 160여개소, 농업지역 600여개소를 비롯하여 860여개소에서 공연을 하였다.

1980년대의 북한 문화정책은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을 중시하는 문화창작의 원칙은 지켜가면서 동시에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경향도 여전하다고 볼 수 있다. 김일성은 “자취를 감추었던 적지 않은 유물들이 발굴복원되어 근로자들을 애국주의사상으로 교양하며 사회주의적 민족문화를 건설하는데 이바지하고 있습니다”라고 하고 있으며,¹⁹⁵⁾ 김정일도 “문학예술작품창작에서 주체를 세우자면 또한 민족예술을 위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하고 있다.¹⁹⁶⁾

194) 리조실록은 1975년에 번역을 시작하여 1991년에 완간되었다.

195) 김일성,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1987. 6. 7),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p. 314. 전통문화에 관한 김일성의 관심에 대해서는 박동진, 「빛나는 민족 문화유산」 (평양: 조국사, 1987) 참조.

196)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p. 412.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것은 이전시기에도 나타나는 형상이지만 특히 고구려문화를 중시하고 있다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것은 1985년의 남북한간의 문화교류와 남북대화의 진전에 따라 자본주의문화를 경계하는 동시에 남한문화에 대한 우월성을 증명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민족문화의 강조는 ‘조선민족제일주의’의 부각과도 관련있다고 볼 수 있다.¹⁹⁷⁾

1980년대의 북한의 문화정책은 전반기와 후반기에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내내 수령형상화문학이 핵심적인 창작작품으로 취급되고 있으나, 1980년대 전반기에는 새로운 경향의 작품들이 등장한다. 1980년 1월 7일부터 10일까지 개최된 조선작가동맹 제3차대회에서 천세봉위원장은 혁명적인 문학작품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고 주장하였고,¹⁹⁸⁾ 김정일은 이를 구체적으로 “숨은영웅의 발견”이라고 하고 있다.¹⁹⁹⁾ 평범한 일상생활에서 자신의 일을 수행하는 숨은영웅 따라 배우기는 1980년의 제6차당대회를 앞두고 강조된 대중운동이다. 이것이 문화창작에도 영향을 미쳐 항일혁명일색의

197) 1990년대 북한 사상의 중심적인 지위를 점하고 있는 조선민족제일주의는 김정일의 1986년 7월 5일 담화, “주체사상에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에 대하여,”에서 처음 언급되었다. 1990년대 문화정책에 있어서 기본 지침서가 되는 김정일의 「주체문학론」(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2)에서도 조선민족제일주의가 중요한 개념으로 취급되고 있다. 주체문학론에 대해서는 박상천·김경웅·류보선,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 문화교류의 방향」, pp. 48~56 참조.

198) 「로동신문」, 1980. 1. 11.

199)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p. 259.

북한문화에 작품소재가 다양화되는 계기를 제공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이 “다양한 주제의 문학예술작품을 많이 창작하여야”한다고 주장한 결과²⁰⁰⁾ 영화와 소설 등에서 일상생활을 소재로 한 작품들이 대거 등장하게 된다.

상대적으로 완화된 문화정책의 시행은 다음의 몇 가지 이유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첫째, 기존의 문화정책이 추구하였던 이념적 목표가 어느 정도 해결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김일성은 “우리 사회에서 력사적으로 물려받은 뒤떨어진 낡은 사상과 낡은 문화의 잔재는 극히 부분적인 요소”가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있다.²⁰¹⁾ 둘째, 기존의 이념 중심의 획일적 문화가 북한인민들로부터 외면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김정일은 문학예술의 ‘도식주의’를 비난하고 있는데,²⁰²⁾ 이러한 비판은 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것이었다. 따라서 문화를 정치나 경제적인 동원화에 직접적으로 활용하기보다는 간접적으로 활용하고 동시에 문화의 오락적 기능을 중시하는 분위기가 확산되었다고 볼 수 있다.²⁰³⁾

그러나 1980년대 후반에는 문화정책이 다시 경색된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도 전반기와 같은 가벼운 문학

200)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p. 395.

201) 김일성,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1986. 12. 29), 「북한최고회의 자료집 4집」(서울: 국토통일원, 1988), p. 786.

202) 김정일,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키자,” p. 420.

203) 소설에서는 획일적인 주인공들이 축소되고, 무갈등적인 경향이 지양되고, 영화의 경우에도 오락적인 요소가 강조되는 ‘일지매,’ ‘사랑사랑 내사랑아,’ ‘임격정 연작’ 등의 작품이 제작되고 희극작품들도 등장한다.

예술작품이 나오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전반기에 비해 이념을 강조하는 분위기가 고조된다. 이러한 경향을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 ‘조선문학예술총동맹 제6차대회(1986. 3. 27~28, 평양)의 개최’이다.

1961년 당시 문예총 위원장이었던 한설야의 숙청을 위해서 5차대회가 열린지 무려 25년만에 개최된 대회에서 각 문화부분의 대표자들은 “우리 당이 문학예술사업에서 이룩한 업적을 옹호고수하고 계승발전시키자”는 주제하에 토론하였고, 종합보고자인 최영화 문예총 제1부위원장은 “당의 유일사상교양에 이바지하는 혁명적문학예술작품들을 더 많이 창작하여야”하며 “동맹원들과 작가, 예술인들이 주체사상의 가치를 더욱 높이 추켜들고 창작에서 주체성의 원칙, 당성, 로동계급성, 인민성의 원칙을 철저히 고수하여야”하고, “작가, 예술인들의 사상예술적준비에서 가장 중요한것은 주체의 혁명적세계관, 혁명적수령관을 똑바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위대한 수령님의 로작과 당문헌 학습을 강화하여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문예총 제6차대회 앞으로 보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축하문”에서도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은 작가, 예술인들을 우리 당의 혁명사상과 독창적인 문예방침, 불멸의 업적으로 튼튼히 무장시키며 그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여 모든 작가, 예술인들이 당의 방침을 무조건 철저히 옹호관철하며 당과 혁명이 요구하는 높은 문학예술작품들을 창작하기 위하여 자기의 모든 지혜와 정력을 다 바쳐 일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²⁰⁴⁾

따라서 1980년대 후반부터 김일성을 소재로 한 다부작 영화 「민족과 운명」을 비롯한 김철주, 김정숙, 김형직 등 김일성가계의 위대성을 강조하는 영화들이 제작되고, 「불멸의 역사」와 견줄 수 있는 김정일을 소재로한 「불멸의 향도」와 같은 소설이 발표되기 시작한다. 이와 같이 이념성이 재강조되는 이유는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대외적 환경변화와 권력이양이라는 대내적 환경변화가 결합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여타 사회주의국가들의 몰락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사상적인 결속을 강화하는 것이 불가피하였기 때문에 문화의 정치적 수단화가 다시 강조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아울러서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김일성뿐만 아니라 김일성일가의 혈통적 우수성을 부각시킬 필요성이 제기되었고 이러한 작업을 문화부분이 수행하였다고 할 수 있다.

204) 「로동신문」, 1986. 3. 28; 「로동신문」, 1986. 3. 29.

IV. 남북한 문화정책의 특성

1. 남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요인

가. 남한

남한의 문화정책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 점차 강화되어 온 경향이 있다. 이승만 정권시절에는 변변한 문화정책이 없었으나 노태우정권시절에는 문화부가 독립하는 등 문화정책을 명실상부하게 독립된 영역으로 간주하게 되었다. 따라서 문

〈표 10〉 남한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문화에 대한 관심	낮음	보통	높음	높음
문화정책 이념	반공주의 민족주의 민족주의	1. 반공주의 2. 민족주의 3. 민족주의	1. 민족주의 2. 반공주의 3. 민주주의	1. 민족주의 복지주의 2. 세계주의 3. 반공주의
국가의 개입 방식	자유방임 직접규제	직접규제 간접지원	직접규제 간접규제 간접지원 직접지원	직접지원 간접지원 간접규제 직접규제
정책의 주안점		조직 및 법령정비	민족문화 보존	시설확충·대 중문화지원
정책대상	전문가	전문가	전문가	일반국민

화에 대한 관심도, 문화정책의 이념, 정책의 주안점,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양식, 정책의 대상 등에 있어 시기별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표 10 참조).

이승만정권이 문화정책에 관심이 적었던 것은 당시 남한의 정치적 혼란과, 경제적 궁핍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이 본격화된 것은 박정희가 집권한 1960년대 이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1960년대 초에는 경제성장에 총력을 기울였기 때문에 문화에 대한 관심은 여전히 부차적인 것이었다. 1960대 후반에 들어서서야 비로소 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기 시작하였는데 이것은 경제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였던 양질의 노동력 공급과 노동통제에 문화정책이 일정한 기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²⁰⁵⁾

1970년대에 문화를 보다 중시하게 된 것은 유신체제의 성립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유신체제는 국민적 동의에 바탕을 두어 성립되었다기 보다는 지배집단의 독자적인 결정에 따라 수립된 정치체제였다. 따라서 유신체제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홍보할 필요가 있었고, 이 과정에서 문화를 정치선전의 매개체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고 볼 수 있다.

전두환과 노태우정권에서도 문화는 정치적으로 중요시되었다. 12·12와 5·17을 통하여 권력을 획득한 5공화국도 정

205) 경제성장의 전제조건으로 문화정책을 생각하는 견해는 김적교,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정책,” 『문화정책』 4권 4호 (1977 10), pp. 35~37 참조.

당성 확보를 위하여 문화를 활용하였고, 이에 따라 1980년대에도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정치적 이유 못지 않게 일반 국민들의 생활수준의 향상으로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대된 것도 국가가 적극적인 문화정책을 수립하게 된 또 다른 이유라고 할 수 있다.²⁰⁶⁾

문화정책의 강화는 국가 자체의 역량 증대와도 관계가 깊다고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자본주의가 발전하는 과정에서 국가의 기능은 점차 확대되는 경향이 있다고 한다. 더욱이 남한의 경우는 해방이후 군사정권을 거치면서 국가부문이 과대하게 성장한 경향이 없지 않다.²⁰⁷⁾ 국가의 성장이 국가가 영향력을 행사하는 부분이 증가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정치경제적으로 성장한 남한의 국가는 일상생활의 영역에 포함되는 문화에 대해서도 일정한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문화정책의 이념은 해방이후 1990년까지 근본적인 변화를 겪지는 않았다. 시기를 막론하고, 민족주의와 민주주의가 표

206) 도시가구의 예를 들자면 전체 소비지출에서 교양오락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1965년에는 1.2%에 불과하였으나 1980년에는 2.6%가 되고 1985년에는 3.3%가 되었으며, 1990년에는 4.4%가 된다. TV의 소유비율은 전국적으로 1970년의 6.4%에서 1985년에는 99.1%로 급증하게 된다. 박물관 관람객수도 1981년 2,622,016명에서 1990년에는 4,599,690명으로 두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pp. 206~221

207) 이러한 논의에 대해서는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 「한국현대정치학의 구조와 변화」 (서울:가치, 1989), pp. 81~113 참조.

면적으로 내세우는 문화정책의 이념적 지향점이었다.²⁰⁸⁾ 그러나 민족주의와 민주주의의 바탕에는 항상 반공주의가 존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해방 후 남한 문화정책의 이념적 토대는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주의라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의 창달’로 표현되는 민족주의적 성향은 식민지시대를 경험한 신생독립국으로서 당연한 이념적 지향점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이승만은 독립운동의 경험을 권위유지를 위하여 활용한 까닭에 민족주의를 더욱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학문과 예술의 자유 보장’으로 표현되는 자유민주주의 이념은 대한민국의 건국이념인 동시에 자본주의체제를 유지하는 한 명목적 이념체계로서 강조할 수밖에 없는 이념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 있어서도 반공주의가 핵심적인 이념이 된 것은 분단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경험하고 북한과의 대결상태가 지속되었기 때문에 사회적 차원에서 반공주의를 포기할 수 없었고, 이것이 문화정책에도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에 못지 않게 1960년대 이후 군사정권이 지속된 것도 반공주의적인 문화정책이 강화되는 또 다른 이유가 될 수 있다. 북한을 제일의 가상적으로 인식하고, 지속적으로 교육받고 있는 군부에서 반공주의는 가장 기본적인 가치일 수밖에 없고, 군사문화의 바탕도 반공주의가 될 수밖에

208) 수차례에 걸친 헌법개정에도 불구하고 민족문화의 추구하고 민주적 문화 풍토를 조성한다는 내용은 변화가 없었다.

에 없다. 이와 같은 군사문화에 익숙한 최고통치자들이 반공주의의 틀을 벗어난 문화를 용인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였다고 볼 수 있다.

해방이후 현재까지 민족주의, 민주주의, 그리고 반공주의가 낡은 문화정책의 이념이었으나 문화정책이 지향하는 이념의 우선 순위는 시기에 따라 변화하였다고 할 수 있다. 이승만 정권시절에는 뚜렷한 문화정책이 없었기 때문에 구호의 차원에서 민족주의, 민주주의가 혼재하였지만 그 바탕에는 반공주의가 있었다. 반면에 3공화국시절에는 반공주의가 전면부각되었다. 혁명공약 1항에 나타나고 있듯이 반공을 쿠데타의 명분으로 삼았기 때문에 제3공화국에서 반공주의적인 문화정책은 강화될 수밖에 없었다.

유신시대에는 민족주의가 강조되었다고 할 수 있다. 유신 이념이 서구적 민주주의를 거부하고, 한국적 민주주의를 주창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볼 수 있다. 문화부문에 투입된 예산의 70% 이상이 민족문화 부문에 투입되는 것도 이러한 이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1980년대의 문화정책은 다소 복합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 민족문화를 여전히 제일의 위치에 두고 있지만, 복지차원의 문화창달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었다. 또한 적극적인 외부문화의 수용에서 알 수 있듯이 문화적인 세계주의의 경향도 나타나고 있는가 하면, 부분적

인 완화조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반공주의적인 성향도 여전히 여전하였다.

1980년대 문화정책이 부분적으로 복지주의적인 특성을 갖게 된 것은 5공화국의 정치적 구호가 ‘복지국가의 건설’이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1980년대에 들어 급격히 증가한 국민들의 문화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도 복지주의적인 문화정책을 지향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문화를 강조한 것은 정치적으로 전두환·노태우정권이 박정희정권의 연장선상에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문화정책도 근본적으로 기존 정권의 문화정책을 승계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주의가 대두되는 것은 올림픽의 개최와 관계가 깊다고 할 수 있다. 올림픽유치 이후 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정권안보를 위하여 활용하였던 당시의 지배집단은 사회주의국가들을 포함하여 참여 국가의 수를 늘리는 것으로써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증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사회주의국가들의 참가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개방적인 문화구조를 강조하는 것이 불가피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체제적이고 대항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반공주의적인 태도를 견지하였다.

문화정책의 이념 변화도 일차적으로 정치경제적인 환경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1970년대 이후에는 지배문화와 대립하는 대항문화(Alternative Cul-

ture)의 활성화도 문화정책의 이념 변화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1970년대에 대학가의 탈춤운동으로부터 촉발된 민중문화운동은 반체제운동의 일환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고,²⁰⁹⁾ 지배문화를 구현하고 있는 문화정책도 이에 대하여 일정하게 대응을 하였다. 즉, 대항문화가 민주주의를 강조하였던 1970년대에 문화정책은 보수주의적인 민족주의를 강조하였으며, 민중주의와 민족주의가 대항문화의 핵심이었던 1980년대에는 반공주의와 세계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이 추진되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가가 문화에 개입하는 양상은 점차 다양해졌다. 1950년대에는 문화활동에 대해서 국가는 자유방임적인 태도를 보였고, 일부 반체제적인 문화에 대해서는 직접적인 규제를 가하였다. 1960년대에는 법률 및 검열제도 등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문화를 규제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각종 시상제도를 통하여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방식을 취하기도 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서서는 기존의 직접적인 규제장치가 활발히 작동하면서도 동시에 민간기구를 통한 자율규제라는 간접적 통제기제를 활용하기도 하였다. 또한 우수영화시상과 같이 특정한 방향의 창작을 유도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도 하였고, 문화예술진흥원을 통하여 직접적으로 창작활동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209) 대항문화로서 민중문화의 발달과정에 대해서는 최승운, “문화예술운동의 현단계,” 『문화운동론·2』, pp. 15~40 참조.

1980년대에는 문화에 대한 국가의 개입이 규제보다는 지원을 중시하는 방향으로 바뀌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예산을 증가하고 각종 기금을 확보하여 이를 토대로 국가가 직접 문화행사를 주관하거나, 각종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는 문화정책을 지향하였다. 또한 대중문화가 활성화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과 같은 간접적인 지원정책을 추진하기도 하였다. 국가가 문화활동에 참여하는 방식이 다양해진 것은 문화정책이 고도화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이 고도화된 것은 두가지 차원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다. 첫째, 생활수준이 향상된 국민들이 문화에 대한 욕구가 증가하여 문화부문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문화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국가가 문화에 대한 투자를 확대하는 경우 자연스럽게 문화정책은 고도화된²¹⁰⁾ 이러한 차원에서 점증하는 국민들의 다양한 문화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문화시설을 확충하고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등 문화정책은 점차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적절한 문화통제를 통하여 정치적 안정을 확보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문화정책이 고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대항문화가 활성화되고 국민들의 정치문화 의식이 제

210)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p. 247.

고됨에 따라 보다 정교한 문화통제 기제가 필요하였고 이과정에서 문화정책도 점차 고도화될 수밖에 없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체제에 비판적인 민중문화를 약화시키기 위하여 경우에 따라서는 물리력을 동원한 직접 통제를 시도하기도 하였고, 대립되는 문화를 육성하기도 하는 등²¹¹⁾, 다양한 통제기제를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때로는 체제비판적인 사고와 문화가 확대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소비적인 대중문화를 확산시킨 경우도 있었다.²¹²⁾ 이러한 맥락에서 정교한 문화통제 기제의 발전이 문화정책 고도화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남한 문화정책의 특성과 변화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의 경우와 부분적으로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남한의 문화는 원칙적으로 문화적 자율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미국의 문화정책과 일맥상통하는 점이 없는 것은 아니나, 문화에 대

211) 근로자 축제, 근로자 가요제 등을 국가가 직간접적으로 지원하여 ‘근로자’문화를 육성함으로써 소위 의식화된 ‘노동자’문화의 상대적 약화를 추구한 것이 이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212)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1집」(1988), p. 28; 유재천, “민중문화와 대중문화,” 김용복 외, 「문화와 통치」(서울:민중사, 1982), p. 29. 1981년에 개최되었던 ‘국풍’이 하나의 예가 될 수 있다. 민족문화의 현대화와 대중화라는 취지대로라면 ‘국풍’이 한번의 행사로 끝나지 않았을 것이다. 프로스포츠의 활성화도 이러한 관점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5공화국과 6공화국의 대중문화 확산 정책 비판에 대해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할 수 있다. 전일균,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고대문화」 24집(1984); 임상훈, “6공화국의 문화지배정책,” 「서강논집」 5호(1991); 이종남, “프로야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마당」(1982 4).

한 국가의 개입이 점차 확대되어 왔다는 점에서 미국적인 문화정책과 큰 차이가 있다. 반면에 상대적으로 문화정책을 중시하는 프랑스나 독일의 경우와 흡사한 부문이 많다. 그러나 이들 국가들의 문화정책이 문화활동등에 대한 순수한 지원에 중점을 두고 있는 반면에 남한의 경우는 통제가 문화정책의 중요한 측면이었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또한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도 통제의 한 방편으로 활용하였다는 점도 남한 문화정책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화정책이 점차 중시되는 경향은 남한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문화부문에서 국가의 개입이 증가되는 정도는 남한의 경우가 더욱 급격하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남한사회가 급속히 발전하는 가운데 국민들의 문화욕구, 문화수준도 급속히 증대하였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나 독일도 사회당의 집권하면서 문화에 대한 투자가 증대되었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문화정책과 정치환경과의 변화가 일정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남한 문화정책의 변화도 정치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 특이한 현상은 아니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프랑스나 독일은 사회당의 집권으로 문화정책이 전반적으로 강조되었으나 정권교체에 따라 문화정책이 추구하는 문화의 내용과 방향 자체가 변하지는 않았었다고 볼 수 있다. 반면에 남한의 문화정책은 정권의 성격, 집권세력의 정치적 필요성에 따라 문

화정책의 이념이나 내용도 변했다는 점에서 문화정책이 정치에 좌우되는 정도가 더욱 높았다고 볼 수 있다.

문화향수권의 확대라는 변화양상은 남한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다. 또한 기존의 전통문화를 유지보존하려는 시도는 다른 자본주의 국가들에서도 보편적으로 찾아 볼 수 있는 현상이다. 그리고 문화의 다양성을 확대하고, 이 과정에서 지역단위의 특수문화를 중시하는 문화정책의 변화양상은 다른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1980년대 이후 남한의 문화정책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단위에서 독자적인 문화정책이 수립되기보다는 중앙정부의 계획에 따라 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된다는 점에서 남한의 문화정책은 중앙집권적인 성향이 강하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문화정책의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민간부문의 참여가 상대적으로 적다는 점도 남한 문화정책의 또 다른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²¹³⁾

나. 북한

북한의 문화정책의 목적은 정치이념의 확산에 두어진다. 이러한 차원에서 정치체제의 변화나 지배자의 실질적인 교체가 없었던 북한에서 문화정책의 성격은 근본적인 변화를 경

213) 미국이나 프랑스 독일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화정책 수립과 집행에는 명실상부하게 자율성을 갖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된다. 국가에 따라 문화정책의 예산을 국가가 담당하는 경우도 있고, 기금 모집을 활용하기도 하지만 국가 예산을 담당하더라도 국가가 전면에서 문화정책을 주도하는 국가는 드물다.

협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체제의 내외환경 변화는 문화정책에도 일정한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문화정책의 바탕이 되는 이론이나 문화정책의 역할은 시기별로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다(표 11 참조).

〈표 11〉 북한 문화정책의 변화 추이

	1950년대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문화정책의 목표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위한 근로자 교양: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이 구현되는 작품창작			
문화정책의 이념	민족주의· 사회주의	주체사상 ----- 민족주의·사회주의		
문예이론	사회주의 리얼리즘: 카프전통	항일혁명 문화	주체문예 이론·종자론	주체문예 이론·종자론
정책의 주안점	반제의식 확산	김일성 우상화	노력동원	인민성제고· 권력세습 정당화

시기별로 변화가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문예이론이라고 할 수 있다. 1950년대에는 일제하 카프의 전통을 이어받은 고전적인 사회주의리얼리즘이 기본 문예이론이었다. 그러나 1960년대 주체사상의 제기되고 1967년의 문화계내의 종파투쟁을 겪으면서 항일혁명문학이 북한의 대표적인 문예이론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항일혁명문학은 주체사상과 결합되어 주체문예이론으

로 귀결된다. 1970년대 이후에는 김정일이 주창한 종자론이 주체문예이론의 실천이론으로 확립되어 1980년대까지 지속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 문예이론이 변화하는 것은 정치, 사상의 차원에서 유일체계의 완성과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50년대까지 김일성의 권력장악은 완벽하지 못하였으며, 김일성과 정치적으로 경쟁하고 있는 정치집단도 존재하고 있었다. 더욱이 문화계는 남로당 출신이 주류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초기의 문예이론은 전통적인 맑스레닌주의에 충실하면서도 민족주의적 경향이 결부된 카프적인 성향이 강조되었다. 그러나 남로당의 숙청과 김일성 유일체계의 확립, 그리고 주체사상의 대두는 카프적인 전통이 몰락하고 새로운 문예이론으로서 주체문예이론이 대두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김정일의 등장과 후계체제의 확립은 사상적 획일성을 강조하는 종자론이 중요한 문예이론으로 자리잡는 계기가 되었다.

북한의 문화이론이 변하였다고 할 수 있지만 이것이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성격변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반제의식의 고취, 사회주의 우월성의 강조는 1960년대나 1970년대에 있어서도 지속적으로 북한 문화정책의 주안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만 강조하는 문화의 내용이나 정도가 시기별로 다소간 차이를 보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강조점이 조금씩 변화한 것은 기본적으로 북한체제의 대내외적인 환경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할 수 있다. 전쟁을 경험

한 1950년대에는 교전 당사국이었던 미국에 대한 적개심을 바탕으로 반제의식을 고취하는 것이 핵심적인 정책과제였다 고 한다면, 유일체계가 성립되던 1960년대에는 김일성 우상화가 문화정책의 주안점이 될 수밖에 없었다. 1960년대의 천리마시대를 거쳐 1970년대 3대혁명의 시대에는 문화를 경제적 선동에 활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건국 초기에는 문화의 정치적 측면이 강조되었으나 1970년대 이후에는 경제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 문화의 여가기능이 강조되는 경향이 있는 것은 부분적으로 산업화에 따른 북한주민의 의식변화와 사회체제의 복잡화와 연관이 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이후에 다시 문화정책에서 사상성이 중시되는 것은 사회주의권의 몰락이라는 대외환경 변화와 김정일로의 권력이양이라는 내부권력구조 변화에서 비롯되었다고 볼 수 있다.

‘민족적 형식에 사회주의적 내용’이라는 말이 함축하고 있듯이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은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혼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이념적 경향은 해방이후 현재 까지도 유지되고 있는 것이지만 1960년대 이후에는 주체사상이 보다 상위의 이념으로 확립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족주의는 김일성의 항일혁명유산의 계승이 되는 것이며, 사회주의는 김일성 중심의 북한식 사회주의가 된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문화정책에서 민족주의와 사회주의는 표면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되어있으나 정책이 구현되는 과정에서는 민족주의가 상대적으로 우위에 서있는 경향이 있다. 해방 직후에는 식민지 잔재를 청산하는 과정에서 민족주의 이념이 강조되었으며, 1960년대 이후에는 주체와 자주라는 차원에서 민족주의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다. 더욱이 1980년대 후반 사회주의권이 몰락한 이후에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기 위해서 ‘우리식 사회주의’와 ‘조선민족제일주의’라는 구호가 등장함에 따라 민족주의적인 경향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²¹⁴⁾ 민족문화 발굴이나 문화어의 개발, 민족악기의 개량사업, 리조실록의 번역작업 등에 정책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 민족주의를 강조하는 문화정책을 반증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주의 이념은 일반 대중의 참여를 확대하는 군중문화의 추진정책 등에서 구현되고 있으나, 실질적인 작품 창작이나 평가과정에서는 고전적인 사회주의 이념은 주체사상에 토대를 둔 집단주의적 가치, 김일성주의, 유일사상체계 등에 비해서 부차적인 위치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당성·로동계급성·인민성을 균형있게 추구한다는 문화정책의 목표도 비교적 일관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엄격하게 따져 본다면 당성의 구현이 상대적으로 중시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문화정책을 실질적으로 관할하는

214)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4), pp. 100~111.

것이 당이며, 사회주의 이념 보다 상대적으로 주체사상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당성에 비해서 로동계급성은 약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²¹⁵⁾ 또한 인민성은 그 자체가 작품 창작에서 추구하는 목표라기보다는 당성 및 로동계급성이 설득력 있게 구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정책 변화 과정에서 일차적으로 중요한 것은 북한체제의 내외적 조건 변화이다. 주체사상의 대두나 유일 지배체제의 성립, 그리고 김정일 후계체제의 등장 등과 같은 내부적 요인과 중국 및 소련의 정권 교체, 사회주의권의 몰락과 같은 대외적 요인이 북한의 문화정책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이와 아울러서 남한과의 대치상태나 남한의 문화적 상황도 북한문화정책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다. 민족문화를 강조하고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적극적으로 비판하는 것은 남한과의 차별성을 부각하고, 남한 문화에 대한 북한 문화의 우월성을 주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북한의 문화정책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의 문화정책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다. 당이 문화정책을 관할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기본 목표는 사회주의 이념의 전파이고, 다양성보다는 획일적인 문화가 강조되고, 문화통제에 주안점을 두고 있는 성향은 북한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다. 그러나 다음의

215) 로동계급성을 강조하는 작품들도 궁극적으로는 당성(유일사상체계)을 부각하기 위하여 활용되는 경우가 많다.

몇 가지 점에서 북한문화정책은 독특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첫째, 북한의 문화정책은 상대적으로 변화가 적었다고 할 수 있다. 여타 사회주의 국가들은 지도자의 교체나 문학예술가들의 이론 논쟁에서 문화정책이 변하는 등 굴곡이 있었으나, 정치지배층의 교체가 없었던 북한에서는 문화정책의 변화를 찾아보기 힘들다. 카프문학을 둘러싼 문학논쟁이나 문화계 종파투쟁과 같은 문예이론상의 이념논쟁이 북한에서도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김일성주의화라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이 일관되게 변화하여 왔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일시적으로 대중성을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으나 이것도 문화정책의 근본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니었으며, 고르바초프 집권후의 소련이나 덩소핑 집권후 중국에서와 같은 문화적 개혁·개방과는 거리가 먼 것이었다.

둘째, 북한에서는 다른 사회주의 국가들에 비해서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고 할 수 있다. 북한에서도 외면적으로는 사회주의문화 건설이 문화정책의 궁극적인 목표였으나 실제로는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이 추진되었고, 민족문화를 중시하는 문예이론을 확립했다. 이러한 경향은 주체사상과 유일지배체제의 성립으로 북한체제를 차별화하기 위한 방편이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 문화보다는 민족주의 문화 그리고 민족문화보다는 주체문화가 중시되는 것이 북한 문화정책의 핵심이었으며, 이것은 다른 사회주의

국가에서 찾아 볼 수 없는 북한 문화정책의 독특성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2. 남북한 문화정책의 비교

자본주의체제인 남한과 사회주의체제인 북한은 체제의 차이만큼이나 판이한 문화정책을 펼쳐왔다. 무엇보다도 남북한 문화정책이 지향하고 있는 이념이 다르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을 통하여 남한은 자유민주주의의 실현을 추구하는 반면 북한은 사회주의 문화건설을 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북한에서는 주체사상과 사회주의라는 획일적인 문화가 강조되지만 남한에서는 다양한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는 점도 남북한 문화정책의 기본적인 차이라고 할 수 있다. 이념적인 차원에서 파생되는 차이점 외에도 다음의 몇 가지 부분에서 남북한 문화정책은 뚜렷이 다르다(표 12 참조).

〈표 12〉 남북한 문화정책의 차이

	이념	목표	문화정책 중요도	문화정책 담당부서	국가 개입양식	문화정책 대상
남한	자유민주 주의	문화향수 권 확대	낮음	정부· 민간단체	간접+ 직접	전문가 중심
북한	주체사상	주체사상 내면화	높음	당·정부	직접	인민

첫째, 정부정책 전반에서 문화정책이 차지하는 중요성에 있어서 커다란 차이가 있다. 북한은 건국 초부터 문화에 대

한 관심이 높았고, 문화정책을 중요시하였으나 남한에서 문화정책이 구체화되기 시작한 것은 1960년대 후반부터이며, 본격적으로 문화정책이 시행된 것은 197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에 남한에서 문화정책이 중시되고 있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북한에서만 문화정책이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²¹⁶⁾

최고지도자의 문화에 대한 관심도 큰 차이가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문화에 대하여 자주 언급하고 있으나, 남한의 지도자들은 시정연설이나 선거공약과 같이 국가시책 전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가운데 부분적으로 문화를 언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문화를 언급하는 경우 빈도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수준에 있어서도 남북한 최고 지도자간에는 차이가 있다. 김일성이나 김정일은 문화에 대한 거시적인 견해뿐만 아니라 기술적인 문제까지 관심을 표명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에 남한의 최고 지도자들은 추상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서 문화 혹은 문화정책을 이야기하는 경향이 있다.

둘째, 문화정책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남북한간에 차이가 있다. 남한에서 문화를 담당하는 전문부서가 독립된 것은 1990년대 이후 였으며, 1960년대부터 1990년까지는 문화공보부가 문화를 전반적으로 관리하였다. 북한에서는 당우위의 국가답게 당의 문화부와 선전선동부가 문화를 총괄하고 있

216) 남한에서 문화부문예산이 총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0.4%에 불과하지만, 북한에서는 1950년대에 총예산의 1.5%가 문화부문에 투입되었다.

다. 북한의 정부 내에서도 담당하는 부서가 건국 직후부터 존재하고 있으나(문화선전성→교육문화성→문화예술부), 실질적인 권한은 당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을 실천하는 부서로서 북한에는 조선문학예술총동맹이 있으며, 남한에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 있으나 북한의 문예총은 당의 공식적 기관인 반면, 문예진흥원은 외형적으로는 국가가 출연한 독립된 기관이라는 점에서 다르다.

셋째, 국가가 문화에 대하여 개입하는 정도에서 차이가 난다. 북한은 문화의 창작, 분배, 문화예술인의 양성과 조직에 이르기까지 국가가 문화영역을 직접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남한은 국가가 문화에 직접적으로 개입하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나, 기본적으로 문화를 자율적인 영역으로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문화에 개입하는 방법도 다르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는 규제를 하거나 지원을 하는 경우 당이나 국가가 직접 개입하는 방식을 주로 채택하고 있으나, 남한에서는 국가가 직접 간섭하기보다는 국가가 지원하는 단체 등을²¹⁷⁾ 통하여 간접적으로 문화에 개입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넷째, 북한에서는 건국 직후부터 일반 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문화정책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나, 남한의 문화정책은 주로 문화예술인과 같은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217) 지원을 담당하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나 규제를 담당하는 공연윤리위원회도 모두 명목상으로 민간기구라고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북한은 일반 주민의 문화역량을 제고하는 데 관심을 기울였으며, 일반인이 참여하는 문화프로그램 개발에도 관심을 갖고 있었다. 그러나 남한에서 이와 유사한 문화정책이 추진되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북한은 일반인이 참여할 수 있는 문화시설의 확대에 관심을 기울였으나 남한은 전문문화예술인이 활용하는 문화시설의 건립을 우선하였다고 볼 수 있다.

체제와 이념 그리고 여기서 비롯된 문화정책의 차이가 두드러짐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문화정책이 공유하고 있는 특성도 있다.

첫째, 문화정책이 정치와 경제체제에 예속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북한은 사회주의체제를 지향하기 때문에 문화를 정치사회화의 중요한 수단으로 취급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뿐만 아니라, 김일성의 권력유지를 위해서 문화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화가 정치에 종속된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남한의 경우는 1960년대 군사정권이 수립된 이후부터 정치적 정당화를 위하여 문화를 활용한 경향이 없지 않다. 북한이 문화를 당의 선전선동부에서 관할하고 있는 것처럼, 남한에서는 문화부가 독립되기 이전까지 문화공보부에서 문

화를 공보차원에서 다루고 있었다.²¹⁸⁾ 그리고 유신이나 전두환정권의 성립과 같은 정치적 격변기에는 정권과 체제의 정당성을 홍보하는 문화창작을 적극적으로 유도하였다. 또한 북한에서 천리마운동이나 3대혁명과 같이 경제적 동원화에 문화를 활용한 것과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는 1960년대 후반부터 경제성장을 위하여 문화정책을 강화한 경향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남북한 모두 문화정책의 변화도 문화를 향유하고 창조하는 일반 사회구성원들의 요구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해당 시기 지배집단의 정치경제적 판단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념적인 대립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모두 민족문화 건설을 문화정책의 주요 목표로 삼고 있다는 점이다. 남한의 경우에 민족문화의 창달이라는 정책목표는 건국이후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고, 북한의 경우에도 민족문화의 발전적 계승이 문화정책 기본적인 목표중의 하나이다. 문화재를 관리하고 유물을 관리하는데 문화예산의 많은 부분을 투자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는 것도 남북한 문화정책의 공통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민족문화를 중시하고 있는 것은 남북한간 체제경쟁의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분단이후 민족적 정통성을 서로 주장하는 과정에서 남북한은

218) 자본주의 국가에서 문화부가 독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 문화를 담당하는 주무 부서는 교육부인 경우가 많다. 일본의 경우가 대표적인데 문부성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있다.

민족문화를 계승하였다는 점을 부각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전통 문화를 정비하는 등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정책을 지향하였다고 할 수 있다. 문화정책에서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두드러지는 또 다른 이유는 남북한의 지배집단이 체제유지 이데올로기로서 민족문화를 활용하였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남한에서 유신이후 민족문화를 강조하는 경향이 두드러지는 것과 북한에서 주체사상의 등장과 함께 민족적 형식이 재삼 강조된 것은 유신체제와 유일지배체제라는 정치구조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에는 봉건적인 전통문화를 ‘복고주의’라고 비난하면서도 가부장적 권위주의는 강화된 경향이 있으며,²¹⁹⁾ 가부장적 권위주의를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남한의 경우에서도 마찬가지였다고 할 수 있다.

민족문화를 공통적으로 중시하였으나 남북한이 상정하고 있는 민족문화에 대한 개념이나 내용도 같은 것은 아니었다. 남한은 전통적인 요소들을 중심으로 민족문화를 그리고 있는 반면, 북한에서는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이 민족성의 전형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남한은 유교적 가치와 같은 문화요소들을 강조한 반면, 북한은 김일성의 활동에 부합하는 역사적 전통들을 선택적으로 강조하였다고 볼 수 있다.

219) 북한에서 전통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우영, 「북한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민족통일연구원, 1993) 참조.

또한 남한은 복고주의적 성향의 민족문화 발전 전략을 채택하였으나, 북한은 사회주의 건설이나 유일체제 확립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민족문화를 개발하려는 전략에 관심을 가졌다고 볼 수 있다.

남한과 북한에서는 각 사회의 발전 정도, 지배집단의 정치적 필요성에 의하여 문화정책의 성격이 변화하여 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와 함께 남북한의 각자의 문화정책도 일정하게 상호작용한 측면도 있다. 남북한이 민족문화를 경쟁적으로 강조하는 것이나, 남한의 반공주의 이념과 북한의 반자본주의적 이념은 각자의 문화정책이 서로간에 영향을 미친 결과라고 볼 수 있다. 특히 남북한의 분단상황은 북한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고, 남한의 경우에도 탄력적이지 못한 문화정책이 수립되고 집행되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V. 결 론

해방이후 1990년까지 남한과 북한의 문화정책은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국가의 문화정책과 사회주의 국가의 문화정책 일반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남한은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면서, 문화의 기간시설의 확충과 같은 문화향수권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북한은 사회주의이념 확산을 위한 매개체로 문화를 활용하는 동시에 일반 주민의 문화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였다. 자본주의 국가에 비해서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문화를 중시한 것처럼 남한에 비해서 북한의 문화정책이 상대적으로 적극적이었으며, 동시에 문화정책이 갖는 정치적 성격도 더욱 강하였다.

그러나 남한과 북한의 문화정책은 여타국가의 문화정책과는 다른 특수성도 갖고 있었다. 남한은 권위주의 정권의 등장에 따라 문화를 정치·경제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으며, 북한에서는 유일지배체제 확립에 문화를 이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분단상황으로 인하여 남북한의 문화정책은 일정한 상호작용을 하였다. 남한과 북한은 정통성 확보를 경쟁하기 위해서 민족문화를 경쟁적으로 지향하였고, 상대방의 문화를 전혀 인정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문화에 대해서 적대적이기까지 하였다.

남한은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문화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

대되었으며, 문화정책도 다양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980년 까지는 문화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였고, 문화에 대한 통제가 적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는 문화 부문의 자율성을 점차 증대하는 방향으로 문화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문화정책의 탄력성도 증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²²⁰⁾

북한은 1960년대 이후 유일지배체제와 권력승계에 문화를 활용하면서 폐쇄적인 문화정책을 추진하여왔다고 볼 수 있다. 북한에서 문화정책이 정치구조에 예속되어 있는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으나, 꾸준히 일반 주민들이 문화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와 시설을 확충하였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1980년 초반에는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기는 하지만 북한 주민들의 욕구를 수용하는 문화정책이 추진되기도 하였다.

남한의 문화정책은 국가는 문화시설을 확충하는 등 간접적

220) 대항문화를 대표하는 조직이었던 '민족미술예술총연합회'에 기금지원을 시작한 것이 문화정책이 점차 탄력적으로 변하고 있다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김영삼 정권에서는 개혁의 차원에서 문화정책도 새롭게 추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문화부에서 작성한 「문화발전10개년계획」은 '복지문화', '화합문화', '민족문화', '개방문화', '통일문화'라는 기본 방향을 정하고, 문화창조력의 제고, 문화매개기능의 확충, 국민의 문화향수 확대, 국제문화교류의 증진이라는 실천 목표를 세우고 있다. 새 정부의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기본개념」(서울:문화발전연구소, 1993); 심광현, "문민정부의 개혁과 90년대 문화정책의 기본과제," 「문화예술논총」 5집 (1993), pp. 21~31 참조.

인 지원에 머무르고 문화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문화도 자본주의적 경쟁체제에 영향을 받아 상품성으로 평가되거나, 경제적 능력에 따라 문화의 향수가 불균등하게 이루어지는 부정적인 현상이 초래될 가능성도 있다.

북한에서는 1980년대 후반 이후부터 지속된 이념중시의 보수주의적 문화정책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김정일체제의 공고화를 위해서도 문화의 정치적 이용이 필요할 것이며, 개방을 대비할 경우 자본주의의 문화적 침략으로부터 북한문화를 보존하기 위해서 북한문화의 우월성을 강조하는 문화정책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의 남북한 문화정책의 방향을 구체적으로 비교 평가하기는 시기적으로 부적절하다고 할 수 있으나 다음의 몇 가지 예측은 가능할 것이다.

첫째, 남한은 문화부문에 있어서도 경제 등 다른 사회분야와 마찬가지로 국제화와 세계화를 더욱 강조하는 경향을 띠 것으로 전망할 수 있다. 따라서 민족문화에 대한 관심은 상대적으로 축소되거나 경쟁력이라는 구호하에 상품성이 높은 민족문화에 대한 투자만이 확대되어 박제화된 민족문화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반면에 북한은 남한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도 민족문화에 더욱 강조할 여지가 있다. 최근의 단군릉 개발이나 단군의 시신발굴 등이 이러한 전망의 증거가 될 수 있다.

둘째, 남한은 정치적 민주화의 진전, 통일논의의 활성화에 힘입어서 북한문화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것이며, 이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문화정책도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북한은 체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나 개방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남한 및 자본주의 문화를 비판하는 문화정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셋째, 북한은 민족문화의 정통성 경쟁을 지속하고자 할 것이나, 남한은 정치·경제적 우월성을 바탕으로 문화의 질, 문화시설의 량, 문화향수권의 정도와 같은 문화역량의 우수성을 강조할 가능성이 크다. 민족문화의 전통성을 축으로한 문화적 경쟁은 여전히 남북한관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겠지만 이전시기에 비해서 그 중요도는 상대적으로 약화될 수 있다. 이 경우 국민들의 실질적인 문화향수권, 문화 복지, 국민 개인의 문화적 능력 등이 새로운 문화적 경쟁의 축으로 부상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남북관계가 화해협력의 단계로 접어드는 경우 남북한 문화와 문화정책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 가능성도 있다. 남북한 자신의 문화체계를 유지하면서도 상대문화를 비판적으로 수렴하는 문화정책을 시도할 여지도 있다.

남북한의 문화정책은 상호간에 영향을 받으면서 변하여 왔다고 할 수 있으나 남한이나 북한 어느 쪽도 통일문화를 지향하는 문화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거나 추진하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이와는 반대로 지금까지는 자신의 문화를 절

대시하고 상대편의 문화를 타도의 대상으로 삼아왔다고 할 수 있다. 남한에서는 통일 문제가 정권차원에서 중시되었던 6공화국에서 통일문화를 문화정책의 한 항목으로 포함하였지만, 이 기간에도 통일문화에 대한 뚜렷한 정책목표나 실천의 경험은 없었다고 할 수 있다. 북한의 경우는 1980년대 이후 체제위기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통일문화를 준비하기보다는 자신의 문화를 보호하는 문화정책 유지에 급급하다고 할 수 있다.

적대의식을 불식하고 바람직한 통일체계를 지향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문화정책에 대한 상호이해를 증진시키는 동시에, 문화적 동질성을 확대하고 통일시대를 대비하는 문화정책에 대한 논의가 보다 활성화될 필요가 있다.²²¹⁾

221) 통일을 대비하는 문화정책에 대해서는 염무웅, “통일에 대비하는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하여,” 「문화예술논총」 5집 (1993), pp. 32~43 참조.

참 고 문 헌

〈단행본〉

- 김문환. 「문화로 본 현대일본」. 서울: 나남, 1994.
- 김재용. 「북한문학의 역사적 이해」.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4.
- 김재현. 「사상, 기술, 문화의 3대혁명 수행경험」.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86.
- 김정분. 「미학개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91.
- 김정웅. 「종자와 작품창작」.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7.
- 김정일. 「김정일선집」.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_____. 「주체문학론」. 평양: 조선로동당출판사, 1992.
-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7:8대편·상」. 서울: 대한공론사, 1973.
- 류 만. 「당의 령도밑에 대전성기를 맞이한 주체적문학예술」.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4.
- 리기주.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 문학예술령도사」. 평양: 문예출판사, 1991.
- 毛澤東. 「연안 문예좌담회에서의 강화·당팔고에 반대한다」. 李騰淵 역. 서울: 두레, 1989.
- 문공회. 「문화공보연감 공보처 편」. 서울: 문공회, 1992.
- _____. 「문화공보연감 문화부 편」. 서울: 문공회, 1992.

- 문화부. 「북한문예정책관련 자료집」. 서울: 문화부, 1991.
- _____. 「우리나라의 문화행정 1992」. 서울: 문화부, 1992.
- _____. 「제7차 경제사회발전 5개년계획 문화부문계획:1992~1996」. 서울: 문화부, 1992.
- 민정기 편. 「전두환대통령 어록:영광의 새역사를 국민과 함께」.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7.
- 민족통일연구원. 「남북한 국력추세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2.
- 박동진. 「빛나는 민족문화유산」. 평양: 조국사, 1987.
- 박상천·김경웅·류보선. 「북한의 문화정책과 남북문화교류의 방향」.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3.
- 박승덕. 「사회주의문화건설리론」.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5.
- 사회과학원력사연구소. 「조선전사 24」.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_____. 「조선전사 29」.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1.
- _____. 「조선전사 30」.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_____. 「조선전사 32」.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_____. 「조선전사 33」. 평양: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82.

- 출판사, 1982.
- 사회과학원 문학연구소. 「문학예술사전」.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75.
- 이우영. 「북한정치사회화에서 전통문화의 역할」.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 전상인. 「북한 민족주의 연구」. 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4.
- 정정길. 「정책학원론」. 서울: 대명출판사, 1989.
- 조영빈. 「남북한 사회문화 비교척도 모델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3.
- 陣繼法. 「사회주의 예술론」. 叢成義 역. 서울: 일월서각, 1979.
- 최재율. 「남북한사회문화체계비교척도에 관한 연구」. 서울: 국토통일원, 1972.
- 통일원 조사연구실 편. 「남북한 사회문화역량 종합평가」. 서울: 통일원, 1990.
-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예술진흥원 15년사」. 서울: 문화예술진흥원, 1988.
- _____. 「문화진흥백서: 1981—1985」.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5.
- _____. 「문화정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 _____. 「문화운동」.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91.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한국의 문화정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발전연구소, 1992.

. 「문화발전 10개년계획의 기본개념」. 서울: 문화발전연구소, 1993.

한배호. 「한국의 정치」. 서울: 박영사, 1984.

한중모·정성무. 「주체의 문예리론 연구」. 평양: 사회과학출판사, 1983.

한태수. 「한국정당사」. 서울: 신태양사, 1961.

Althusser, Louis. *Lenin and Philosophy and Other Essays*. Ben Brewster trans. New York: Monthly Review Press, 1971.

Baradat, Leon P. *Political Ideologies: Their Origins and Impac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1979.

Bell, Daniel. *The Cultural Contradictions of Capitalism*. New York: Basic Books. Inc. Pub, 1976.

Dahl, Robert A. *Dilemmas of Pluralist Democracy: Autonomy vs. Control*.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1982.

Held, David. *Models of Democracy*. Stanford. Ca.: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7.

James, C. V. 「사회주의 리얼리즘론:기원과 이론」 서울:녹진,

1990.

Kliem, Manfred. ed. 「맑스·엥겔스 문학예술론 1」. 조만영·정재경 역. 서울: 돌베개, 1990.

Lightenberg, Judith. ed. *Democracy and the Mass Media*.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McGuigan, Jim. *Cultural Populism*. London: Routledge, 1992.

Parsons, Talcott. *Societies*. 이종수 역. 서울: 흥성사, 1978.

Pheysey, Diana C. *Organizational Cultures: Types and Transformations*. London: Routledge, 1993.

Williams, Raymond. *Culture and Society: 1780~1950*.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58.

_____. *The Long Revolution*. Harmondsworth: Penguin Books, 1961.

Zis, Avner. 「마르크스주의 미학강좌」. 연희원·김영자 역. 서울: 녹두, 1989.

〈논문〉

「문화과학」 편집위원회. “지배문화정책 분석을 위한 제언.” 「문화과학」 2호 (1992 겨울).

강현두. “매스미디어의 문화정책.” 「문화예술논총」 1집 (1988).

곽대원. “한국 근대미술의 본질과 80년대 민족미술운동.” 최열·최태만 편. 「민중미술 15년 1980~1994」. 서

을: 삶과 꿈, 1994.

- 김문환. “문화발전의 이념지향.” 「광복 40년 문화진단과 발전방향」. 서울: 고려원, 1985.
- 김양수. “예총의 어제와 오늘.” 「예술과 비평」 (1989 봄).
- 김여수. “문화정책의 이념과 방향.” 「문화예술논총」 1집 (1988).
- 김일성. “문화인들은 문화전선의 투사로 되어야 한다” (1946. 5. 24). 「김일성저작집 2」.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9.
- _____. “민족문화유산을 잘 보존하여야 한다” (1949. 10. 15).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 _____. “현시기 문학예술인들 앞에 나서는 몇가지 과업” (1949. 12. 22). 「김일성저작집 5」.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 _____. “우리의 예술은 전쟁승리를 앞당기는데 이바지하여야 한다” (1950. 12. 24). 「김일성저작집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0.
- _____. “조선로동당 제3차대회에서 진술한 중앙위원회 사업총결보고” (1956. 4. 23).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1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영화는 호소성이 높아야 하며 현실보다 앞서나가야 한다”(1958. 1. 17). 「김일성저작집 12」. 평양: 조

- 선로동당 출판사, 1981.
- _____. “천리마시대에 맞는 문학예술을 창조하자” (1960. 11. 27). 「김일성저작집 14」.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1.
- _____. “조선로동당 제4차대회에서 한 중앙위원회 사업 총화보고.”(1961. 9. 11)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혁명적 문학예술을 창작할데 대하여” (1964. 11. 7). 「김일성저작집 18」.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 _____. “조선어의 민족적특성을 옹계 살려나갈데 대하여” (1966. 5. 14). 「김일성저작집 2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2.
- _____. “공화국 정부 10대 정강” (1967. 12. 14). 사회과학력사연구소. 「조선전사 31」.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2.
- _____. “조선로동당5차대회 한 중앙위원회 사업총화 보고” (1970. 11. 2).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우리나라 사회주의제도를 더욱 강화하자”(1972. 12. 25).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3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사상혁명. 기술혁명. 문화혁명을 더욱 힘있게 다그

- 치자”(1973. 3. 14). 「김일성 저작선집 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74.
- _____. “사회주의의 완전 승리를 위하여” (1986. 12. 29).
「북한최고회의자료집 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_____. “력사 유적과 유물을 발굴복원하는 사업을 잘할데
대하여” (1987. 6. 7). 「김일성저작집 40」.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94.
- 김적교. “개발도상국가의 문화정책” 「문화정책」 4권 4호
(1977 10).
- 김정일. “영화예술론”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여 2:1972
~1973」.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7.
- _____. “혁명적 문학예술작품 창작에서 새로운 양양을 일으
키자” (1986. 5. 17). 「주체혁명위업의 완성을 위하
여 5:1983~1986」. 평양: 조선로동당 출판사, 1988.
- 노태우. “1989년도 예산안 제출에 즈음한 국정연설.” (1988.
10. 4). 대통령공보비서실 편. 「민주주의의 시대, 통
일을 여는 연대:노태우대통령 1년의 주요연설」. 서
울: 동화출판공사, 1989.
- _____. “문화의 달을 맞아.” (1989. 10. 2). 대통령 공보비
서실 편. 「민주주의와 통일을 여는 길:노태우 대통
령 3년의 주요 연설」. 서울: 동화출판공사, 1991.

- 박거용. “지배문화 분석의 한모델:레이먼드 윌리엄즈의 문화 유물론.” 「문화과학」 창간호 (1992 여름).
- 박영신. “박영신토론.”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3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박정희. “5·16 군사혁명 1주년 기념식 기념사.” (1961. 5. 16).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연설문집 1:최고회의 편」. 서울: 대한공론사, 1973.
- _____. “시정연설문.”(1964. 9. 1).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2:제5대편·상」. 서울: 대한공론사, 1973.
- _____. “「국민교육훈장」선포에 즈음한 담화문.”(1968. 12. 5).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4:6대편·상」. 서울: 대한공론사, 1973.
- _____. “제7대 대통령 취임사.”(1971. 7. 1). 대통령비서실 편. 「박정희대통령 연설문집 6:제7대편」. 서울: 대한공론사, 1973.
- 박종국. “문화정책의 기조와 과제.” 「문화예술논총」 1집 (1988)
- 반성완. “사회주의 리얼리즘의 역사적 전개와 그 이론.” 「중소연구」 14권 4호 (1990 겨울).
- 백낙청. “시민문학론.” 「민족문학과 세계문학」.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78.
- 백인준. “문학예술 당 조직대표 백인준 토론.” 「조선로동당대

- 회자료집 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 송영원. “1950년대 반공이데올로기의 사회적 성격.” 「한국현대사를 어떻게 볼 것인가」. 서울: 열음, 1987.
- 심광현. “90년대 문화정책 비판.” 「민예총 토론회 발표논문」 (1993).
- _____. “문민정부의 개혁과 90년대 문화정책의 기본과제.” 「문화예술논총」 5집 (1993).
- 염무웅. “통일에 대비하는 문화적 동질성 확립을 위하여.” 「문화예술논총」 5집 (1993).
- 유영준. “한국 역대정권의 국가목표 설정과 그 정치적 과제.” 「한국정치학회보」, 14집 (1980).
- 유재천. “민중문화와 대중문화.” 김용복 외 편. 「문화와 통치」. 서울: 민중사, 1982.
- 이동연. “지배문화정책 분석과 새로운 문화실천.” 「성균」 (1992).
- 이종남. “프로야구는 이렇게 만들어졌다.” 「마당」 (1982 4).
- 이춘길. “북한 문화정책의 이념과 전개에 관한 연구.” 「북한 문화연구」, 1집 (1993).
- 이충양. “중국의 문예정책.” 「중소연구」 14권 4호 (1990/1 겨울).
- 이항재. “소련 문예정책의 전개와 사회주의리얼리즘 논쟁.”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 임상훈. “6공화국의 문화지배정책.” 「서강논집」 5호 (1991).

- 임지현. “사회주의 민족이론과 민족문화정책.” 「중소연구」 15권 1호 (1991 봄).
- 임홍배. “문화관련기구 운용의 문제점.” 「민예총 토론회 발표 논문」 (1993).
- 전두환. “문화예술상 수상자들을 위한 오찬 격려사.” (1985. 12 13). 민정기편. 「전두환대통령 어록: 영광의 새 역사를 국민과 함께」. 서울: 동화출판공사, 1987.
- 전일균. “제5공화국의 문화정책.” 「고대문화」 24집 (1984).
- 정갑영. “우리나라 문화정책의 이념에 관한 연구.” 「문화발전 연구소 연구논문집」 1집 (1993).
- 정재완. “한국의 문화정책.” 최승운 외. 「문화운동론·2」. 서울: 공동체, 1986.
- 정한모. “제5공화국의 문화치적: 개괄과 평가.” 「要錄 제5공화국」. 서울: 경향신문사, 1987.
- 정홍익. “문화행정연구.” 「행정논총」 27권 1호 (1989).
- _____. “문화행정연구: 개념들과 분석.” 「한국행정학회보」, 25권 4호 (1991).
- _____. “새로운 시대 문화정책의 이념과 목표.” 「문화예술논총」 5집 (1993).
- 좌 담. “북한의 주체문예 60년을 점검한다.” 「역사비평」 4 (1989 봄).
- 최봉대.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통해 본 이승만 정권의 성립과 그 함의.” 최장집 편. 「한국현대사 I」. 서울: 열

- 음, 1985.
- 최장집. “과대성장국가의 형성과 정치균열의 전개.” 「한국현대 정치의 구조와 변화」. 서울:까치, 1989.
- Abercrombie, Nicholas, Hill, Stephen and Turner, Bryan S. “Theories of the Dominant Ideology.” *The Dominant Ideology Thesis*. London:George Allen & Unwin, 1980.
- Biggsby, C. W. E.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한 정책.” 한국문화 예술진흥원. 「문화정책」. 서울: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 Engels, Friedrich. “Letter to Margaret Harkness.” Lee Baxandall & Stefan Morawski. ed. and trans. *Marx & Engels: On Literature & Art*. St. Louis:Telos Press, 1973.
- Gramsci, Antonio. “On Education.”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 Smith. ed. and trans. New York:International Pub, 1971.
- _____. “State and Civil Society.” *Selections from the Prison NoteBooks of Antonio Gramsci*. Quintin Hoare & Geoffrey Nowell Smith. ed. and trans. New York:International Pub, 1971.
- Holmes, Stephen. “Liberal Constraints on Private Power.”

- Judith Lichtenberg. ed. *Democracy and the Mass Media*.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0.
- Ismayr, Wolfgan. “연방제의 분리정책 — 서독.” 한국문화예술진흥원. 「문화정책」.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8.
- Lenin, Vladimir Il'ich. “당조직과 당문학.” 이길주 역. 「레닌의 문학예술론」. 서울: 논장, 1988.
- _____ . “성인교육에 관한 제1차 전러시아 대회 격려사.” 「레닌의 문학예술론」. 서울: 논장, 1988.
- Medick, Hans. “자본주의로의 이행기의 평민문화.” Raphael Samuel · Gareth Stedman Jones 편. 「문화와 이데올로기와 정치」. 송무 역. 서울: 청계연구소, 1987.
- Petras, James. “Cultural Imperialism in the Late 20th Century.”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Vol. 23 No.2 1993.
- Singer, Milton. “The Concept of Culture.” David L. Sills ed. *International Encyclopedia of the Social Sciences*, Vol. 3. New York: The Macmillan Co. & The Free Press, 1968.
- “문화확산을 위한 재원.” 「문화재원」.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9.
- “미국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 한국문화예술진흥원,

1987.

“사회주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한국문화예술진원,
1987.

“서독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한국문화예술진원,
1987.

“영국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한국문화예술진원,
1987.

“인도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한국문화예술진원,
1987.

“일본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한국문화예술진원,
1987.

“프랑스의 문예정책.” 「예술행정」. 서울:한국문화예술진원,
1987.

<기타>

“Cultural Policy:A Preliminary Study.” UNESCO (1968).

“고르바췌프 정치보고(Ⅱ):소련공산당 제 27차대회에 제출
한 소련공산당 중앙위원회 정치보고.” 「중소연구」
10권 4호 (1986.7 겨울).

“사회주의 정신문명 건설의 지도방침에 관한 결의.” 「중소연
구」 10권 4호 (1986. 7 겨울).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 인민 경제발전 7개년(1961~
1967) 계획 통계 숫자.” 「조선로동당대회자료집

2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대한민국선거사 1집」.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64.

「대한민국정당사 1집」.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9.

「대한민국정당사 2집」.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81.

「대한민국정당사 3집」. 서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1992.

「백과전서 2」.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백과전서 3」. 평양: 과학, 백과사전출판사, 1983.

「북한법령집 1권~5권」. 서울: 대륙연구소, 1990.

「북한최고인민회의자료집 1집~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要錄 제5공화국」. 서울: 경향신문사, 1987.

「자료 제6공화국: 노태우대통령정부 5년」. 서울: 공보처, 1992.

「제6공화국 실록: 노태우대통령정부5년 ④」. 서울: 공보처,
1992.

「조선로동당대회 자료집 1집~4집」. 서울: 국토통일원,
1988.

「조선중앙년감 1949~1991」. 평양: 조선중앙통신사, 1957~
1991.

● 發刊資料目錄案內 ●

〈세미나시리즈〉

- 91-01 轉換期的 東北亞 秩序와 南北韓 關係
- 91-02 岐路에 선 北韓의 經濟社會: 實相과 展望
- 91-03 北韓體制的 變化: 現況과 展望
- 92-01 南北和解·協力時代, 우리의 座標와 課題
- 92-02 북한의 權力構造와 金日成 이후 政策方向 전망
- 92-03 北韓의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 92-04 韓半島 周邊 4國의 對北韓政策
- 92-05 轉換期的 南北韓關係: 現況과 展望
- 93-01 統一理念으로서의 民族主義
- 93-02 北韓 核問題: 展望과 課題
- 93-03 中國의 改革·開放
- 93-04 北韓開放에 대한 周邊 4強의 立場
- 93-05 南北韓 關係 現況 및 94年 情勢 展望
- 94-01 北韓 核問題와 南北韓 關係 展望
- 94-02 南北韓關係와 美國
- 94-03 예멘 統一의 問題點
- 94-04 金日成사후 北韓의 政策展望과 우리의 統一方案
- 94-05 統一文化와 民族共同體 建設
- 94-06 南北韓關係 現況 및 95年 情勢展望

〈研究報告書〉

- 91-01 第2次大戰後 新生國家의 聯邦制度 運營事例
- 91-02 北韓聯邦制案의 分析 및 評價
- 91-03 美國聯邦制 研究: 歷史的 發展過程을 中心으로
- 91-08 韓半島 非核地帶化 主張에 대한 對應方向
- 91-09 東西獨 事例를 통해 본 南北韓關係 改善方案: 정상회담
과 기본조약체결 사례 중심
- 91-10 國際的 平和保障 事例研究
- 91-11 在野統一案 研究
- 91-12 蘇聯의 東北亞政策 變化와 東北亞秩序 改編: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
- 91-13 北韓體制的 實相과 變化展望
- 91-14 「한민족공동체」具體化方案 研究: 社會·文化·經濟 交流·
協力 中心
- 92-01 統一獨逸의 分野別 實態 研究
- 92-02 中國의 改革·開放 現況과 展望: 北韓의 中國式 改革·開
放 모델 受容 可能性과 關聯
- 92-03 美國의 對韓半島政策: 韓國安保와 南北韓 統一問題를 중
심으로
- 92-04 日本의 國際的 役割增大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
亞秩序 豫測(II)
- 92-05 1992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2-06 軍備統制 檢證 研究: 理論 및 歷史와 事例를 中心으로

- 92-07 北韓住民의 人性研究
- 92-08 國際社會에서의 南北韓間 協力方案 研究
- 92-09 日本의 對韓半島政策
- 92-10 러시아聯邦의 對韓半島政策
- 92-11 東北亞 經濟協力の 發展方向
- 92-12 統一獨逸의 財政運用 實態研究: 統一關聯 財政政策 中心
- 92-13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
- 92-14 南北韓 社會·文化共同體 形成方案: 社會·文化的 同質性 增大方案 中心
- 92-15 北韓의 權力엘리트 研究
- 92-16 東北亞 新國際秩序下에서의 韓半島 統一基盤 造成方案
- 92-17 南北韓 經濟共同體 形成方案
- 93-01 1993年度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3-02 金日成著作 解題
- 93-03 日本의 對北韓政策
- 93-04 中國의 改革·開放 加速화와 東北亞秩序: 1990年代 東北亞 秩序·豫測(IV)
- 93-05 中·臺灣關係의 現況과 發展方向
- 93-06 美國 클린턴 行政府의 東北亞政策과 東北亞秩序 變化 - 1990年代 東北亞秩序 豫測(III) -
- 93-07 東北亞 地域에서의 多者間 安保協力體 形成展望과 對應策
- 93-08 獨逸統一後 東獨地域에서의 私有化政策 研究
- 93-09 對北 投資保護 및 紛爭解決方案 研究
- 93-10 脫冷戰期 北韓의 對中國·러시아 關係

- 93-11 北韓 軍事政策의 展開樣相과 核政策 展望
- 93-12 北韓의 人權實態 研究
- 93-14 베트남 統合事例 研究
- 93-15 金正日著作 解題
- 93-16 韓半島 軍費統制方案 研究: 유럽 軍費統制條約의 示唆點
과 관련하여
- 93-17 北韓 家族政策의 變化
- 93-18 主體思想의 理論的 變化
- 93-19 예멘 統合事例 研究
- 93-20 北韓 政治社會化에서 傳統文化의 役割: 北韓映畫分析을
中心으로
- 93-21 북한의 에너지 수급실태 연구
- 93-22 北韓 國營企業所의 管理運營體系
- 93-23 社會主義體制 改革·開放 事例 比較研究
- 93-24 南北韓 國力趨勢 比較研究(改訂版)
- 93-25 「한민족 공동체」 形成過程에서의 僑胞政策
- 93-26 日本의 核政策
- 93-27 東北亞의 新經濟秩序
- 93-28 러시아聯邦의 對北韓政策
- 93-29 南北韓 政治共同體 形成方案 研究
- 93-30 統一論議의 變遷過程(1945~1993)
- 94-01 북한 관료부패 연구
- 94-02 美國과 日本의 對北韓 關係改善과 南北韓關係
- 94-03 韓國의 對러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04 中·臺灣의 統一政策 比較研究
- 94-05 北韓의 社會間接資本 實態分析
- 94-06 主體思想의 內面化 實態
- 94-07 金正日 리더십 研究
- 94-08 北韓 民族主義 研究
- 94-09 김정일의 軍事權力基盤
- 94-10 韓國의 對中 經濟協力 推進方向
- 94-11 中國과 日本의 軍事力 增強이 韓半島安保에 미칠 影響
- 94-12 統一韓國의 政黨制度와 選舉制度
- 94-13 南北聯合 形成 및 運營 方案研究
- 94-14 金正日體制의 對南政策 展望
- 84-15 北韓과 中國의 經濟關係 分析
- 94-16 北韓 指導部의 情勢認識 變化와 政策展望
- 94-17 北韓의 對外經濟 開放政策 現況과 展望
- 94-18 統一韓國의 對外經濟協力 方向: 亞·太地域 多者間協力
關聯
- 94-19 1994年 統一問題 國民輿論調查 結果
- 94-20 「조선전사」解題
- 94-21 1995年 NPT延長會議와 韓國의 對策
- 94-23 北韓 住民들의 價値意識 變化: 蘇聯 및 東歐와의 比較연구
- 94-24 韓國 民族主義 研究
- 94-26 中國과 北韓의 政治體制 比較研究: 黨·軍關係를 中心으로
- 94-27 統一韓國의 登場에 따른 東北亞地域 安保構造 變化 對應策
- 94-28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統一情勢分析〉

- 91-01 韓·蘇, 日·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2 고르바초프 權力的 現況과 展望
- 91-03 李鵬 中國總理의 訪北 結果 分析: 韓半島 周邊情勢 및 南北韓關係에 미칠 影響을 중심으로
- 91-04 第85次 國際議會聯盟(IPU) 平壤總會 結果分析
- 91-05 中·蘇 頂上會談 結果 分析
- 91-06 北·日, 北·美關係 變化展望과 對策
- 91-07 北韓의 유엔加入宣言의 影響과 政策變化展望
- 91-08 美國의 東北亞 安保政策 基調와 最近動向
- 91-09 유고슬라비아의 民族葛藤과 聯邦解體 危機
- 91-10 中國의 對韓政策 展望
- 91-11 옐친의 러시아大統領 當選이 蘇聯國內情勢에 미칠 影響 分析
- 91-12 美·蘇의 對 東北亞政策과 東北亞 軍事秩序 再編 可能性
- 91-13 美·蘇 頂上會談의 結果 分析
- 91-14 戰術核 관련 부시 美大統領 宣言이 東北亞 및 韓半島安 保에 미치는 影響
- 92-01 부시 美國大統領의 아시아4個國 巡訪結果 分析: 南·北 韓關係와 관련하여
- 92-02 豆滿江地域開發計劃 發展方向
- 92-03 中國의 改革·開放 深化가 北韓에 미치는 影響

- 92-04 러시아聯邦의 改革과 韓·러關係 展望
- 92-05 東北亞情勢와 統一環境: 1992年 上半期
- 92-06 북방정책 이후 동북아정세와 한반도 통일환경
- 92-07 豆滿江地域開發計劃의 現況과 展望: 開發代案 및 法制度
中心
- 93-01 最近 러시아聯邦의 政局推移: 國民投票 結果를 中心으로
- 93-02 北韓 核問題의 展開過程 分析 및 展望
- 93-03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1~6)
- 93-04 「조국통일을 위한 전민족대단결 10대강령」과 北韓의 對
南政策
- 93-05 東北亞 多者間 安保協力體 構成展望과 南北韓關係
- 93-0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3. 7~9)
- 93-07 中國의 核實驗이 國際 및 東北亞情勢에 미칠 影響
- 93-08 第5次 亞·太經濟協力體(APEC)會議을 계기로 본 亞·
太地域 協力の 發展方向
- 93-09 1993年 12月 黨 中央委 全員會議 및 最高人民會議 結果
分析
- 94-01 美國의 對韓半島 政策: 北韓 核問題와 美·北 關係改善을
中心으로
- 94-02 中國의 對北韓政策: 現況과 展望
- 94-03 북한외의 대외개방 현황과 전망: 외자유치 관련법 제정을
중심으로
- 94-04 러시아의 權力構造 改編에 따른 對內·外政策 展望
- 94-05 北韓核問題에 대한 중국의 입장과 우리의 對中政策 方向

- 94-06 核關聯 北韓의 協商戰略戰術 分析
- 94-07 韓·日, 韓·中 頂上會談 結果分析
- 94-08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1~3)
- 94-09 北韓 最高人民會議 第9期 7次會議 結果分析
- 94-10 韓·러關係 定立方案: 1994年 6月 頂上會談을 契機로
- 94-11 탈북자 발생 배경 분석
- 94-12 北韓의 南北頂上會談 提議 意圖 및 會談의 展望
- 94-13 무라야마(村山) 內閣의 對內外政策 展望
- 94-14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4~6)
- 94-15 金正日 政權의 登場과 政策 展望
- 94-16 北韓의 對南動向 分析(1994. 7~9)
- 94-17 李鵬 總理의 訪韓結果 分析과 對中政策 方向
- 94-18 美國의 中間選舉 以後 對韓半島政策 變化展望
- 94-19 北韓의 變化와 金正日 政權의 將來
- 94-20 核 經協連繫 緩和措置와 北韓의 對應政策 展望

〈世界主要事件日誌〉

- 91-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4. 1 ~ 1991. 6. 30)
- 91-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7. 1 ~ 1991. 9. 30)
- 91-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1. 10. 1 ~ 1991. 12. 31)
- 92-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 1 ~ 1992. 3. 31)
- 92-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4. 1 ~ 1992. 6. 30)
- 92-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7. 1 ~ 1992. 9. 30)
- 92-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2. 10. 1 ~ 1992. 12. 31)

- 93-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 1 ~ 1993. 3. 31)
 93-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4. 1 ~ 1993. 6. 30)
 93-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7. 1 ~ 1993. 9. 30)
 93-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3. 10. 1 ~ 1993. 12. 31)
 94-01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 1 ~ 1994. 3. 31)
 94-02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4. 1 ~ 1994. 6. 30)
 94-03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7. 1 ~ 1994. 9. 30)
 94-04 世界主要事件日誌(1994. 10. 1 ~ 1994. 12. 31)

〈年例情勢報告書〉

- 91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1~1992
 9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2~1993
 93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3~1994
 94-01 北韓 核問題斗 南北關係
 94-02 統一環境斗 南北韓 關係: 1994~1995

〈論叢〉

- 統一研究論叢 創刊號(1992. 6)
 統一研究論叢 第1卷 2號(1992. 12)
 統一研究論叢 第2卷 1號(1993. 7)
 統一研究論叢 第2卷 2號(1993. 12)
 統一研究論叢 第3卷 1號(1994. 8)
 統一研究論叢 第3卷 2號(1994. 1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1(1992)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2(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3)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vol. 3(1994)

THE KOREAN JOURNAL OF NATIONAL UNIFICATION
special edition(1994)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3)

한·독 WORKSHOP : ECONOMIC PROBLEMS OF NATIONAL UNIFICATION(1994)

〈資料〉

- 92-01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國文篇)
- 92-02 統一 및北韓關聯 研究文獻目錄(外國語篇)
- 93-01 藏書目錄: 單行本·研究報告書
- 93-02 藏書目錄: 特殊資料
- 93-03 獨逸 統一條約 批准法律
- 94-01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上)
- 94-02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中)
- 94-03 貨幣·經濟·社會統合에 관한 條約(下)

남북한 문화정책 비교 연구

研究報告書 94-28

發行處 民族統一研究院

編輯人 民族統一研究院 政策研究室

서울 중구 장충동 2가 산 5-19

전화 : 232-4726, FAX : 231-4304

印刷處 陽東文化社 전화 : 266-0892

印刷日 1994年 12月 日

發行日 1994年 12月 日
